

2021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지원사업

김문회 회원 지음  
예산사랑 장편소설

# 귀농

정이 들면 타향도 고향이라고 했듯이  
예산 대흥의 봉수산 아랫 마을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든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역시 시골 쪽이 살아가기에 좋을 수밖에,  
저렇게 푸르디푸른 하늘의 기운이  
땅 위에까지 이처럼 와 닿고 있으니...

## 著者 김문희

- 1941년 예산군 예산읍에서 출생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퇴역 육군대위(ROTC 2기)  
전방 소총 소대장  
논산 훈련소 훈련 중대장  
비무장지대 수색중대장
- 예산문화원 사무국장(1993.11 ~ 2006. 6)
- 예산문화원 이사 및 부원장
- 2019.1 ~ 2020. 4 [귀농] 집필

## 귀농

인쇄\_ 2021년 12월 26일

발행\_ 2021년 12월 31일

지은이\_ 김문희

펴낸이\_ 김종옥

펴낸곳\_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TEL. 041-335-2441

기획\_ 박세진

편집위원\_ 김종옥, 김태영, 양명석, 윤용혁, 이강열

행정지원\_ 박세진,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제작\_ (주)디자인붓뜨리

충남 예산군 삼교읍 수암산로 241, 103호

TEL. 041-338-4311

ISBN 979-11-91120-23-3

© 김문희, 예산문화원 2021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 예산으로 귀농하여 행복을 찾다

최근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가까운 장래에 소멸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산군도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대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예산군에 귀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기후나 토양이 농업에 적합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귀농하기에 적합한 고장입니다. 또한 예산군 귀농·귀촌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새로운 귀농·귀촌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들을 예산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김문희 회원께서 집필하신 ‘귀농’이란 장편소설은 소설이지만 예산군이 귀농·귀촌 하기에 적합하고, 인심이 후하며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먼저 귀농한 국태성과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오민아가 학생들과 함께 농촌체험을 하러 왔다가 사랑이 싹트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아울러 인심 좋은 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려 마을도 발전시키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도 하며 또 다른 귀농인들을 맞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흔히 농촌하면 가난하고, 문화시설이 없으며 또 결혼도 하기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면 이와 같은 농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며 농사짓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며 사랑도 싹터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인심이 후한 마을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서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도시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김문회 회원은 과거 오랜기간 동안 예산문화원 사무국장과 이사,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예산문화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전문 소설가가 아니면서도 심혈을 기울여 감칠맛 나는 단어와 문장들을 총동원하여 이 소설을 집필해주신 김문회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이 발간되도록 지원해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소설이 예산군민과 대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많이 읽히고 그리하여 예산군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 예산군이 더욱 활기찬 고장으로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예산문화원장 김종옥

## 등장인물 활동내용...

- ▣ 서울에서 예산군 대흥면의 의좋은형제마을로 귀농한 국태성
  - \_ 유리하우스 수경재배 산나물 농장을 경영 .....10
  
- ▣ 서울의 강남주말농장동호회와 강남 혜명 여중 학생들
  - \_ 유리하우스 농장 수경재배 견학 .....27
  
- ▣ 강남 혜명 여중의 오민아 교사
  - \_ 국태성과 친교를 맺음 .....40
  
- ▣ 오민아는 의좋은형제마을로 귀농할 뜻을 밝히고
  - \_ 국태성은 이를 환영함 .....73
  
- ▣ 오민아와 그리고 국태성
  - \_ 이들 두 사람의 짧은 농장 체류 생활 .....102
  
- ▣ 국태성은 농장 경영을 하면서
  - \_ 그 밖의 지역 활동 전개 .....154

- 🍃 오민아는 여름 방학 끝머리에 서울로 가고  
 \_ 국태성도 그 후 월말을 맞아 서울 본가행 .....174
  
- 🍃 용산역에 도착한 국태성과 기다리던 오민아  
 \_ 국태성의 부모에 이어 오민아의 부모에게 인사 .....190
  
- 🍃 추석 연휴의 국태성과 오민아  
 \_ 두레박 활동과 그리고 농장 생활 .....195
  
- 🍃 국태성, 오민아, 황보여사, 맹 회장 등  
 \_ 수세미 축제를 고을의 민속 축제로 .....213
  
- 🍃 국태성과 오민아 그리고 외지에서 온 청년들  
 \_ 의좋은형제마을에 귀농 및 이주 터전 마련 .....221
  
- 🍃 두레박 회원들 봉수산 아래에 모여  
 \_ 이 고을의 수목장에 쓰고자 상록수 두 그루를 심다 ..... 229

## 서울에서 예산군 대흥면의 의좋은형제마을로 귀농한 국태성

### 유리하우스 수경재배 산나물 농장을 경영

‘역시 시골 쪽이 살아가기에 좋을 수밖에, 저렇게 푸르디푸른 하늘의 기운이 땅 위에까지 이처럼 와 닿고 있으니...’

장항선 하행 열차로 예산역에서 내린 국태성은 지금 뿐 아니라 자주 이런 생각을 해왔다.

‘이제 두레박 회원들과 마주해야겠군.’ 하며 역전 광장 바로 옆 정류장에서 국태성은 오륙 분을 기다려서 농어촌 버스를 하나 골라서 오른다.

이 지역에서는 시내 버스라고 부르는 농어촌 버스, 승객들의 목적지는 제 각각에 멀면 70 리 안팎인데 그 거리야 멀든 가깝든 천 삼백 원씩의 요금을 앞문으로 오르면서 운전사가 보는 요금함에 저마다 넣는다. 거스름돈이 있을 때에는 그 요금함의 아래쪽으로 거슬러 나온다.

시내 버스는 내려 주고 다시 태우기를 거듭하면서 여남은 명 정도의 승객



들과 함께 반 시간쯤을 가다가 국태성을 내려 줬다.

국태성의 최종 목적지는 이 근처가 아니고 5리 정도 더 가야한다. 의좋은 형제마을의 마을 회관이다.

의좋은형제마을은 해뜨는 동쪽 방향으로는 예당호가 가까워서 넓게 펼쳐지고 서편에는 남북방향으로 산록이 질편하게 누운 곳인데 산천과 전답이 있는 위에 많도 적도 얇은 가옥들이 옹기종기 아니면 드문드문 자리 잡았고 고택들과 옛 관아가 문화재로 남아 있는 고을로 산기슭 뒤 멀지 않은 저만치에는 높다 높은 봉수산이 임존성으로 허리를 두른 채 웅장하다.

마을 회관에 국태성이 도착한 것은 시내 버스에서 내려서 십여 분 후였다. 늘 그랬듯이 버스에서 내리면 근처에 세워 뒀던 자전거에 올라타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삿길을 거쳐 마을로 간다.

설령 눈이나 우박 등이 온다 해도 마구 쏟아지지만 앉는다면 왼손으로 우산을 펼쳐 들고 오른손으로는 자전거 손잡이를 잡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즐겨 타는 까닭은 연료도 세금도 없는 자가용이라는 매력 때문이다.

국태성이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 맞는 이들이 있었다. 두레박 회원들이다. 거의 그랬듯이 스무 명이 넘는 회원들이 빠짐없이 모여 있어 보인다. 두레박이 이들 모임의 명칭이 된 것은 두레박으로 물을 갖듯이 이 고장에 풍요로움을 함께 길어 올리자는 목적을 가지고 뭉쳤기 때문이다.

국태성은 모두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골라 앉는다.

“떠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수경 재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대학엘 다녀왔습니다.”

국태성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서 책자들을 회원들에게 한 부씩 돌린다. 주간 신문 정도의 규격과 매수다. 필요하다면 서너 부씩 더 가져가도록도 했다. 전부들 조용하다. 나눠받은 책자를 넘겨보는 중이다. 수경재배 교재다. 이네들은 모두 교재에 열중하는 듯했다.

이러는 중에 수경 재배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회원들에게 수경재배는 낯이 선 농사 방식이기 때문이다.

“농사도 결국은 이득을 보려는 사업이라면 사업이 아니겠어요?”

이런 저런 대화들이 오고 갈 즈음 정자나무골 멍 영감이 내는 말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갔다가 다시 국태성 쪽으로 옮겨 온다.

“그렇습니다. 농사도 사업이지요. 이득을 남겨야만 되고요, 당연히.”

국태성의 대답이다.

“그간에 수경재배라는 것을 해보니 다른 농사보다 이득이 많이 생기던가요?”

“처음 시작해 보는 농사 방식이어서 아직은 이득을 따져 보기 어렵지만 이득을 낼 자신은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던 회원들의 질문과 국태성의 대답이 오고 갔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듣고만 있는다. 농사라는 것이 인건비 등 딱 얼마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욱이 수경 재배라면 처음에 투자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들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예정했던 대로 회원들 모두가 모처럼 수경재배용 유리 하우스 구경을 하기로 한다.

오늘 두레박 회원들이 구경할 유리 하우스는 국태성이 여러 해를 공들여

은 산나물 재배 농장인데 직사각형 모양의 500평 가량 규모이다. 길이 50미터 폭 40미터의 농토 위에 기초를 닦고 네 군데의 모퉁이와 그 사이의 중간 중간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골격을 세운 다음에 벽돌을 쌓아서 허리 높이로 하부 벽을 친 후에 다시 그 벽 높이 정도의 상부 벽과 아치형 지붕은 스테인리스 스틸 살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판유리들을 끼워서 지은 건축물인데 이 유리 하우스의 건축 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더 들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회원들은 하우스 내부로 들어섰다. 내부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란다.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는 회원들도 있다. 회원 중 몇몇은 들여다본 적이 있지만 처음 와 보는 회원은 모두가 감탄한다.

유리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신발과 그리고 옷과 손의 소독 절차를 마친 다음에 맨 먼저 기관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국태성의 설명인 즉 이 기관실에서 비료를 물에 녹여서 저수 탱크에 보내면 저수 탱크에서는 그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재배실로 대어 준다고 했다.

기관실과 저수 탱크를 지나니 재배실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아닌게 아니라 판유리를 이어서 세운 벽에 지붕도 판유리로 덮힌 길다란 공간이 유리 온실이 되어서 펼쳐졌다.

국태성은 벽과 지붕의 판유리들은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깨진다 해도 잘게 부스러져서 사람이나 작물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부스러진다고 쳐도 부스러진 날장만 다시 끼우도록 조립이 되어 있어서 수리비 또한 적게 든다고도 했다.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햇빛과 그리고 공기는

자동 조절 장치가 움직여서 관리자의 요구에 맞춰 준다는 이야기도 한다.

국태성은 계속 설명을 이어 갔다.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들 중에는 퇴직 후에 할일이 없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궁리를 짜내야 그 만큼의 소득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는 새로운 농사 기술 한 가지를 찾아 낸 것으로 기후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일년 내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국태성이 말을 하는 동안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하우스의 내부 구경에 열중이다. 유리 하우스의 내부는 바깥쪽에 통로가 있고 그 안쪽으로 연한 밤색 벽돌을 어른 무릎 높이로 쌓아 올린 위에 폭이 약 1.5미터, 길이는 약 40미터의 발 두둑을 2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곰취, 잔대, 머위, 냉이 따위의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비닐 하우스가 아닌 유리 하우스 재배는 이 근방에서는 국태성이 처음 시작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하우스는 봄부터 겨울까지 줄곧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 나물들은 모래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국태성의 가까이에서 움직이던 황보 여사의 설명이다.

“모래밭이라고요?”

“비료를 탄 물을 모래밭에 대 주는 방식이죠.”

“하긴 모래밭은 물을 속히 댈 수 있고 또 비료를 제때에 바꿔 줄 수도 있겠군요.”

“빨리 받을 말리거나 온도를 조절해 주기도 쉽겠네요.”

“밭이 깨끗하달까, 어찌 보면 청정재배로군.”

“소독도 별로 필요찮겠어요.”

“필요할 때 알맞은 비료를 때맞춰 물에 녹여서 대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수경 재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유리 하우스는 처음에는 건축비라든지 시설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만 그 대신 오래 쓸 수 있죠.”

국태성과 회원들, 그리고 황보 여사 사이에서 여러가지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의견들이 오고가고했다.

“자, 이제 저의 집으로 모시겠어요.”

오늘은 황보 여사가 점심 제공을 할 순번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회원들을 안내한다. 바깥이 화창했다. 5월의 하늘이 맑다. 저쪽 편 끝이 까마득한 예당호에서 드넓은 수면을 덮을 양 김이 피어 오르고 있다. 동쪽으로 예당호를 끼고 아스팔트 한 길을 조금 건다가 서쪽으로 접어들어 50미터쯤 거리에 황보 여사의 집이 있었다.

출입구와 뒷마루를 거쳐서 꽤 널따란 장판방 하나를 지나면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나가면 뒤뜰에 장독대에다가 기와 지붕 등이 옛날 집 같다는 느낌을 준다. 회원들은 장판방으로 안내되었는데 온돌방이었다. 방바닥의 따스함이 양말을 통해 전해지는데 22공탄 함실 아궁이 두 군데가 있어서 양쪽 아니면 한쪽에서 방을 데워 주다가 사정에 따라 연탄 대신 장작이나 삭정이등

형편이 닿는 대로 댄다고 했다.

모두는 방 가장자리에 둘러앉았고 ㄷ자 형을 이루어 남녀가 이쪽 반 저쪽에 반을 차지했는데 황보 여사는 인원수를 눈으로 헤아려본다. 지금 모두의 인원은 23명으로 남녀가 각각 12명과 11명이다. 거의 그랬지만 오늘도 전원 참석이다.

황보 여사가 여자 회원 두셋과 함께 주방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방 한가운데에 교자상 둘이 놓이고 음식이 들어왔다. 색달라 보이는 점심 상이 차려진다. 황보 여사는 흠뻑이인 터라 음식 마련이 여의치 않은데 오늘이 마침 둘째 주 토요일이어서 이 고장에 의좋은 형제 장터가 열리고 그 장터에 먹거리로 민물 어죽과 붕어찜이 있어서 별미라고 생각 되어 주문해 왔다고 했다.

두레박의 회식 자리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마련하고 회식이 끝날쯤에는 설명회 등의 이름으로 농사 정보의 교환과 환담 등 친목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모임의 날짜를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대개는 한 달에 한 번이고 회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맹 영감의 의견이 중심이 되었다. 오늘도 그렇게 정해진 날이다. 두레박에 딱 직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국태성이 으레 총무 역할을 맡아 왔다.

“식사를 마치시면 이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태성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후 식사가 끝이 나고 남은 음식을 물리자 이제는 그 비운 교자상이 탁자가 되어 회원들은 그 상의 둘레에 다시 자리를 잡는다.

국태성이 일어섰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며칠 전에 댁으로 보내드린 서류에서 보셨듯이 수경 재배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비료 대어 주기입니다.”

국태성은 커다란 봉투 하나씩을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 봉투 속에는 서류 묶음과 작은 비닐 주머니 셋 씩이 들어있다. 서류 묶음은 말 그대로 며칠 전에 회원들의 집집으로 보내진 것과 같은 것이었고 비닐 주머니는 오늘 새로 나눠 준 것인데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였다.

“이 색깔이 있는 비닐 주머니들은 주머니만 색깔이 있는 것을 썼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비료를 탄 물인데 색깔은 없습니다.”

“비료 탄 물이라고요?”

맹 영감이 물었다.

“예, 빨강 주머니 속의 물에는 질소 비료가, 노랑 주머니 속의 물에는 인산 비료가, 그리고 파랑 주머니 속의 물에는 가리 비료가 녹아 있습니다.”

국태성의 대답이다. 국태성은 말을 잇는다.

“이 봉지 속의 물이 바로 유리 하우스 안의 그 저수 탱크에 저장해 가며 쓸 비료 물의 견본입니다. 이 세가지 원액을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저수 탱크에서 정해진 비율로 물을 타서 재배실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회원들은 모두 무심한 표정들이다. 이 정도는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다음은 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설명서에는 기관실 저수 탱크의 바닥 높이는 재배실 각층의 모래 바닥 높이가 보다 30 센티쯤 높다는 것 등을 시작으로 저수 탱크 속 비료 물은 섭씨

15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면 좋다는 것 등이 적혀있다. 고등학생 공책 예닐곱 장 분량이다.

국태성이 설명을 마치면서 두레박 모임은 끝이 났다. 오늘의 설명회는 짧았다. 국태성이 자신의 수경재배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끝맺음을 했다.

“자-, 이제 모두들 돌아가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 영감의 말을 끝으로 회원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황보 여사의 집에 마지막까지 남은 회원은 국태성 혼자였다. 황보 여사와 국태성은 회원들 중에 소위 나홀로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 선생님.”

“예?”

황보 여사는 국태성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사실은 둘이서만 대면하거나 서로간에 불러본 적은 없었다.

“약주 즐기시나요?”

“술은 별로입니다.”

왜 술 얘기를 꺼내는지 모를 일이다.

“교회에 다니세요?”

“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절 얘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싸잡아서 국태성은 대답을 한다.

“소주가 싫지는 않으시죠?”

조금 당황스럽다. 술은 별로라고 했는데 소주 얘기를 한다. 국태성은 웃음



으로 대답한다. 싫다고는 하기가 좀 그래서 미소로 대답을 대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황보여사가 밥상에 유리잔 하나, 소주병, 북어포를 얹어서 국태성 앞에 놓는다. 이미 준비해 놨던 것처럼 가져왔다. 벽쪽을 보니 찬장에서 꺼내온 것 같다. 불박이 벽찬장이 눈에 띈다.

‘술을 즐겨하는 여인인가?’ 생각하는데

“국 선생님.”

“예?”

“국 선생님과 저는 닮은 점이 있죠?”

“닮은 점요?”

“닮은 점을 얘기해볼까요?”

“?...”

“우리는 둘 다 싱글 패밀리라는 것이어요.”

“싱글 패밀리요?”

“독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독거인인 독신요.”

국태성은 지금까지 계속 듣고만 있는 쪽이었다. 이런 때는 서로 응대를 하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국태성은 생각한다.

“저한테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뭔가요?”

“배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제 일신상의 문제까지?”

“여사님의 이마에 써 있거든요.”

“제 이마를 읽는 재주라니 정말 유별나네요.”

“다른 얘기도 써 있군요.”

국태성은 황보 여사의 이마를 세심히 보는 시늉을 한다.

“보이는 것이 또 뭔가요?”

황보 여사의 눈에서 빛이 반짝 난다.

“여사님께서 배필을 만나 가지고 백년 해로한다고도 써 있군요.”

“어머!”

“듣기 싫으셨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국태성이 농을 바로 취소했다. 그리고 황보 여사는 소주병의 마개를 띤다.

“소주가 싫지는 않다고 하셨죠?”

황보 여사는 유리잔에 소주를 따른다. 국태성 앞에 하나만 놓고 채웠다.

“약주 싫어하십니까, 여사님은?”

“주거니 받거니가 더 좋을 듯해서요.”

“그게 좋을까요?”

국태성은 소주잔을 어서 들어서 마신다. 잔을 잡자마자다. 그리고 쓴 맛이 입안에 퍼지기도 전에 그 잔을 황보 여사 앞에 놓고 그득히 소주를 따랐다. 몇 가지 동작이 거의 삼시간에 이루어졌다. 잔을 비우는 것보다 황보 여사 앞에 놓고 채우는 일에 마음을 써서다.

황보 여사도 가볍게 잔을 비운다. 술 실력이 어지간해 보였다.

“안주가 북어포 뿐이어서...”

황보 여사의 말이다.

“괜찮습니다. 소주에는 오히려 마른 안주가 제격입니다.”

두 사람은 북어포를 맛있어 보이게 씹는다.

시간이 흐르고 대화를 섞어가며 주머니 받거니를 하는 사이에 서창의 해는 장산 쪽으로 기울어 갔다.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제가 좀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황보 여사가 일어서려고 한다.

“집 쪽이 궁금해서 가봐야겠습니다.”

황보 여사보다 국태성이 먼저 일어났다. 몸에 도는 얼큰해진 기운이 지금 국태성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득이 가는 술자리였음을 느끼면서 국태성은 일어난다.

국태성이 황보 여사의 집을 나와서 향한 곳은 효녀원홍장마을쪽이다. 거기에 거처가 있어서다. 거처로 가는 길목의 마을회관에 들러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

‘해가 저물 무렵까지 밖에만 있었다니 참.’

국태성으로서는 종일 바빠 보낸 실정이지만 자기 일은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수경재배 동지들을 만들겠다는 것은 왠 실속있는 일이지.’

사실 그렇다. 수경재배가 지금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뜻과 길을 함께 하는 이들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만 지식을 함께 갖고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도 향상시키고 학계나 관계 기관 등 외부와의 교섭 능력도 갖추게 된다. 국태성이 황보 여사의 집을 나와서 의좋은형제마을의 수경재배 유리하우스

를 지나 마을 회관 앞마당을 가로질러서 효녀원홍장마을에 있는 자신의  
거처까지 오는데는 십여 분 정도 걸렸다.

거처로 마련한 곳을 와서 보니 거처에는 오늘도 자기 혼자다. 국태성이  
요즘 말로 나홀로 가족이 된 것은 귀농을 한 후 부터였다. 귀농은 새로운 삶  
의 개척을 요구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유리하우스 수경재배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버린 요즈음, 국태성도 그런 세상의 형편 속에서  
서른 넷의 시골 뜨기 총각으로 머물러 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태성은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책상 앞에서 시 한 수를 쓰고 고치고  
그래서 완성한다.

그리고 읊조리며 새겨 본다.

혼자 선 길 위에서 무어라 말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일을 향한 길 위에  
그 길이 훤히 보이던가 보기에 달렸는데  
내일도 또 자신있게 그 길 위를 걸으리

그 길 다녀와서 이렇게 답을 하리라  
내가 그 길을 늘 곳곳이 걸어왔다고  
그 길은 멀고 고단해도 견기에 달렸으니  
다짐 또 다짐하며 다음 길도 걸겠노라고

남들이 궁금해 하면 귀뜸을 해야하네  
우리 모두가 함께들 다잡아 걸어가자고  
가는 길이 좁았던 멀었던 타박 안하며  
길 위를 걷는 방법들 찾을 수 있으며

자작시에 마음을 담아서 혼자 있음을 받아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에 실어 놓은 희망과 두레박 공동체 23인과의 화합도 생각 하며 희망의 맹서를 이 시간에도 다진다.

국태성은 작부 일지를 꺼냈다. 농사의 기본은 농작물을 심는다는 것이기에 작부 일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날 그날의 일과 중 하나가 작부 일지 작성이다. 대학 노트 크기의 작부 일지는 하루치 면마다 위 아래 두 단으로 나눠 놔는데 윗 단은 년월일시, 작부 실시 사항(금일), 작부 예정 사항(내일), 특기 사항, 그리고 아랫 단에는 일기를 쓰도록 양식을 만들어 놔다.

국태성은 작부 일지를 쓴다. 작부 실시 사항에는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에서 가리 비료액을 밭에다 대어 준데 대해서 썼고 작부 예정사항에는 유리 하우스 비료액 저장 탱크에 질소 비료액을 저장해 둘 계획을 적었다. 그리고 일기란에는 황보 여사와 함께 보냈던 내용을 주로 썼다.

매일 그렇듯이 국태성은 오늘도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은 쓸모가 적어서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가 기다리고 있다. 8시간의 취침이면 재충전에도 충분하다. 꿈의 세계가 국태성을 맞아 준다.

이틀 날도 맑다. 5월은 매양 싱그러운 계절이다.

새벽 4시 조금 지나서 양치질만 하고 자전거 앞뒤에 전조등과 깜빡이를 켜고 유리 하우스로 갔다. 어제 두레박 회원들 앞에서 자태를 뽐냈던 산나물들, 유리 하우스의 그 산나물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러 간다. 작부 일지는 자전거 앞 바구니에 담았다.

하우스에 오니 산나물들이 반겨주는 모습이 요란스럽다.

머위와 창출, 곰취, 그리고 씬바귀는 반 그늘진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래 쪽 두둑을 차지했고 달래, 잔대, 그리고 냉이와 참취는 별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므로 윗두둑에다가 자리를 잡아 줬다. 머위는 모래땅에는 조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있으나 한번 가꿔보기로 했다.

이번 주말에는 이곳 유리 하우스에서 주말 농장 활동을 하기로 서울 쪽의 강남주말농장동호회와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체험 활동을 위해서 아랫 두둑의 곰취와 머위가 준비 되어 있다.

그들은 2년여 동안 주말을 택해서 이곳에 와서 농촌 견학 겸 경작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근처에 농토를 장만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해 볼 생각이라는 회원도 있다.

주말에 그들이 왔을 때 유리 하우스 농장에 걸기로 되어 있는 「의좋은 형제마을농장」 간판은 이번 방문 기념으로 자신들이 제작해 가지고 오겠다는 통지도 보내 왔다. 그리고 국태성은 강남주말농장동호회와 두레박을 손잡아주는 역할을 해낼 생각이다.

이렇게 꼭두새벽에 나와서 하우스 속의 산나물들을 대하는 것, 이것을 국태성은 아침 인사라고 불러 왔다. 날이 샐 무렵까지의 한 시간 정도를

국태성은 긴요하게 쓰려고 한다. 새벽녘의 시간들은 마디기 때문이다.

온도 맞춤 설비, 광선 조절 장치, 소독시설, 그리고 물 저장 탱크의 물 높이와 비료 준비 같은 것들을 점검해 나간다. 동이 트고 주위가 밝아지고 나면 국태성은 가지고 다니는 작부 일지를 보면서 오늘의 일과를 다시 한번 새긴다. 머리 속에 기억해 둔다. 그리고 농장의 새벽 녘에 오늘 아침 떠오르는 시귀, 그 시귀를 작부 일지에 적어 가면서 외로운 거동을 달란다. 그러면서 굳건히 나가자고 다그친다.

창출 곰취 머위 씀바귀

너희가 그늘 밑에 함께 노닐고

잔대 냉이 참취 달래

너희들이 햇볕 아래 모여 앉았네.

내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귀담아 들으며 자라오르니

쭉쭉 번어서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너나 없이 반겨 맞겠네 .

국태성은 이 시를 산나물들 앞에서 읽어 준다. 이렇게 산나물들과의 아침 인사로 하루 일과를 여는 국태성은 다음 일정을 이어 간다. 재촉한다. 자전거 거로 되돌아오는 길은 해가 떠오르는 시각을 맞이하고 있다. 늘 그래왔다.

유리 하우스에서 거처까지는 5분여, 자전거 위에서 맞는 아침 해가 반갑다. 찬란한 새벽 햇살이 이제 온 누리로 퍼져 나간다.



## 서울의 강남주말농장동호회와 강남 혜명 여중 학생들

### 유리하우스 농장 수경재배 견학

이날 이후 수삼일이 지나서 서울쪽의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들이 용산역을 떠났다는 전화가 왔다. 미리 연락도 왔었다. 국태성은 농장에서 그대로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 기다림이었지만 예정대로 그들은 당도했다.

남녀가 섞임섞임이다. 여행 용구 같은 것도 없고 복장도 평상복인데 매번 이런 차림으로 오늘도 유리 하우스 안으로 직행한다. 자기 집에서 텃밭으로 가는 몸동작이다. 모두가 운동모, 운동화 바람 그대로 하우스 안으로 숨어들듯이 움직인다.

산나물 수확은 이들의 재미라고 했다.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색다른 삶을 맛보게 해 주는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재미이면서 삶의 영양소란다.

이네들이 농장에서 하는 일은 산나물을 숙아내서 근량을 단 다음 그에

갈음할 만큼의 말린 산나물과 바꿔 받는 일이다. 물론 재배를 하는데 든 비용은 적절히 셈하고서다.

그러니 재미도 적잖은 그 위에 일한 만큼의 보람도 느낀다고 하겠다. 비용의 금액은 늘 그렇듯이 국태성의 셈법에 의해서 매겨진다.

5월의 유리 하우스 안은 따스함 그대로다. 그 안에서 오늘은 씹거리 별미인 곰취와 그리고 향기롭고도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머위를 채취하고 있다. 아랫 두둑에서다.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여자 열 아홉 명에 남자 열 다섯 명인데 노인쪽 열 서너 분 청년층 일곱 정도, 그리고 장년들이다.

명칭을 강남주말농장 동호회로 정한 것은 서울 강남 지역을 아우르는 곳 사람들이 함께 만든 모임이어서라고 했다. 점심은 서울 모임에서 준비해 왔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장만했는데 예산쪽 뒤편까지 그쪽에서 맡았다.

점심 장소는 황보 여사의 집으로 정했다. 두레박 회원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다. 결석이 없으면 예산에서 23 명, 서울쪽에서는 34 명의 회원들이 모이게 된다.

점심 시간에 맞춰서 서울의 회원들은 황보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이곳의 들녘은 구경 삼아서라도 걸을 만했다.

황보 여사네 장판방에 60 명 가까이가 둘러 앉으니 넓디넓은 방이 이 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처럼 보였다.

이들이 이런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그 시작이다. 오늘은 두 곳 회원들이 벗의 연분도 맺게 된다.

점심 식사 후의 양 편 모임에게는 농장으로 가서 「의좋은형제마을농장」 현판에 이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순서가 기다린다. 여러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서울쪽에서는 사진 기사까지 동행해 왔다. 전에도 몇몇끼리는 왔었던 적이 있지만 오늘처럼 소위 대동 단합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쪽 회원들로부터 도시락이 분배되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만들었다. 거의가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음식을 앞에 놓고 나누는 대화는 피차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정다움을 자아 내기에 충분했다.

점심 모임이 끝나고 양측 회원들은 다시 농장으로 갔다.

의좋은형제마을의 멀지 않은 저쪽 산기슭에 서너 너댓씩 자리잡은 농가들을 오른 편으로 바라보면서 유리 하우스에 이르러서는 이제 현판을 하기로 한다.

국태성은 간판을 걸 위치를 유리 하우스 입구로 미리 정해 뒀다. 입구의 오른 편에 간판도 걸고 농장 안내판도 세울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도 만들어 뒀고 그곳에다 서울서 가져온 간판을 걸었다. 이제 서울쪽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농장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이다.

현판을 마치고 이어지는 순서로 양측 회원들은 통성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물론 구면인 사이도 있지만 모두 모였으니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먼저 서울쪽에서, 그리고 다음은 예산쪽에서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하면 일동이 박수로 답하는 방식으로 통성명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모임을 마무리하고 서울쪽 회원들은 서울로 떠났다.

농장에는 맹 영감과 황보 여사가 잠시 더 머물렀다가 그들도 돌아갔다.

국태성은 농장 현판을 보고 또 본다. 그런 다음에 두 손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번에는 쓸어 어루만졌다. 그리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한다. 다음 일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작부 일지에 바쁜 순서대로 번호까지 매겨서 적어 놨다.

일감의 첫 번째 순서는 산나물 건조장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산나물을 농로에 널었던 형편이었는데 거리도 뜨고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 유리 하우스에 바로 대서 콘크리트 마당을 만들 생각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산나물 건조 마당이다.

공사 비용은 4 년쯤 전에 유리 하우스를 건축할 때 영농 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서 장기 저리로 금융 혜택을 받았을 때처럼 한번 더 용자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사 비용이라야 큰 돈은 아닐 테니 그냥 견뎌 보기로 했었다. 그건 그렇고 이제는 농장쪽 일과는 여기까지로 마치고 국태성은 조금 일찍 거처로 갔다. 그리고 거처에 도착하면서 먼저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정리했다.

서울에서 왔던 회원이 34명이었는데 지금 손에 쥔 명함은 모두 열 넷이다. 이들과의 교류가 앞으로 활발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명함들을 살핀다.

명함을 준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끄는 여인이 있다. ‘언제든지 단체로 견학을 와도 좋으냐’고 묻던 여인이다. 명함 속 여인은 이름이 「오민아」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런데 색다른건 이름만 인쇄되어 있고 주소와 전화번호는 이름 곁에 볼펜 같은 것을 가지고 좀 작은 글씨로 적어 넣었

다는 점이다.

국태성은 ‘이런 명함도 있으니…’ 하면서 넣어 둔다. 볼펜 글자 중에서 「강남 혜명 여중」이라는 여섯 글자가 머리에 남는다.

이제는 잠자리에 든다. 저녁 8시가 지나고 있다. 식사는 오늘은 우유랑 빵 사과서건으로 해결했다. 오늘은 그렇게 되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산나물 건조장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콘크리트 마당 만들기 작업이다. 유리하우스 남쪽 가까이에 장소를 정하고 눈대중으로 네 귀에 말뚝을 꽂은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터를 잡은 후에 재보니 폭 15미터에 길이 25미터 정도다.

대충 120평이니 이만하면 충분하다. 넓지도 않다. 큰 비라도 내릴 때 흘러 내리는 빗물에 주변의 땅이 패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배수로 터를 잡고 북쪽의 유리 하우스와 어느정도 거리도 뒀다.

유리 하우스 때와 마찬가지로 햇살이 유리나 비닐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쬐도록 하는 문제도 머리를 썼다. 그래서 눈비가 올 때에만 전동 장치를 작동시켜서 비닐 지붕을 씌울 수 있게끔 했다.

작업은 두레박이 떠말아 졌다. 재료와 가재와 도구 등의 물품과 새참 거리 같은 것만 대 주고 나머지는 회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냈다. 배수로 형틀과 건조장 자리에 콘크리트를 비벼서 부은 후 국태성이 이것들이 굳기 까지 20여 일을 기다렸다가 형틀을 해체하니 건조장으로서 그만해 보였다. 생각해 보면 국태성에게는 모든 것이 배워 가면서 개척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무렵 황보 여사의 집에 맹 영감이 찾아와 있다. 늘 그렇듯이 황보 여사가

차를 내온다. 유리병에 담아 둔 유자 원액을 컵 둘에 조금씩 나눠서 꿀과 함께 넣고 거기에 팔팔 끓는 주전자 물을 부어 맹 영감과 자신의 앞에 한 컵씩 놓는다.

“영감님께서선 요즘 무슨 일로 하루하루를 즐기세요?”

황보 여사의 질문에 맹 영감은 미소만 짓는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죠. 즐기는 일이야.”

“지금은 6월이니까 봄이면서 여름인데…”

“요즘 같은 땀 그냥 있어도 즐겁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맹 영감은 찻잔을 들어서 향 내음을 먼저 맡는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비운다.

“이건 무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여사님은 독신 주의자이신가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맹 영감이 묻는다. 맹 영감은 무례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눈빛을 짓는다.

황보 여사에게는 난처한 질문이다.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맹 영감이 난처한 줄 알면서도 난처한 질문을 불쑥 해온다. 황보 여사는 결혼이 필수 조건이나 아니면 필요 조건이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맹 영감의 질문을 받고 보니 정곡을 찔린 기분이지만 친근감을 느낀다. 나이 40이 치받도록 미혼인 처지가 누가 봐도 떳떳할 수 없는 여인네한테 망설임 끝에 던져 준 질문일 텐데 대답을 하자니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어렵사리 대답을 찾아냈다.

“선생님,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하나요?”

황보 여사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이번에는 맹 영감 쪽이 궁해졌다. 쉽잖은 반문이기 때문이다.

“꼭 해야 한다기 보다는 하면 어떻겠냐는 뜻이죠.”

맹 영감이 두루뭉실 대답을 한다.

이젠 황보 여사가 의중을 드러낼 차례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묻는 쪽이나 대답해야 하는 쪽 모두에게 불필요한 얘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맹 영감의 생각이 그렇다.

“내 질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괜한 질문을 했음을 느낀 맹 영감은 이내 발을 뺐다.

“영감님은 혼자신가요? 혼자가 맞나요?”

황보 여사가 묻는다. 궁금한 터에 계제가 좋아서 묻고 있다.

“꽤 오래 되었죠, 집사람 보낸지가.”

황보 여사는 왜 무슨 이유로 보냈는지 까지는 묻지 못한다. 그보다도 공연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을 황보 여사도 한다.

“여사님은 주로 무슨 일로 나날들을 보내시나요?”

맹 영감이 대화의 방향을 돌려 잡는다.

한편 이 시각에 국태성은 산나물 건조장에 와있다. 초여름 햇볕에 창출, 잔대, 곰취를 널어 말리는 중이다. 창출은 데쳐서 말리고 있다. 이때 우편물 집배원이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편지 한 통을 건넨다. 보내는 쪽에 오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강남혜명여중이라고도 써여 있다. 강남주말농장 동호회가 떠오른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 강남혜명여중 학생들 육칠십 명과 네댓 분 선생님들이 의좋은 형제마을 농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 농장 설명 자료를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농장 견학을 환영한다는 승낙서도 함께 요구해 왔다. 국태성은 산나물 널기를 마저 끝내고 이내 자료를 챙기고 환영의 글도 쓴 다음 수경재배와 유리하우스 사진까지 함께 넣어서 등기 우편으로 학교에 보냈다. 이렇게 오민아 선생의 학교 일로 오전 일과를 마감한 국태성은 오후부터는 흙벽돌집 짓기를 시작하기로 한다. 가까이서 유리하우스를 관리하고 또 현장 사무실 겸 임시 숙소로도 사용하기 위해서다.

농장과 주변의 땅이 거반 황토 땅이면서 흙을 채취할 언덕 같은 것이 주변에 지천이어서 그동안 참참이 흙벽돌을 만들어 놓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공사에는 늘 두레박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주게 되어 있다.

강남 혜명 여중 학생들의 체험 일자가 잡혔다는 통지가 오고 통지를 받은 국태성은 학생 체험 일정표를 짠다. 학생들이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의 시간표다.

첫인사 - 체험시간표 설명 - 흙벽돌집 짓기 참관 -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 견학 - 산나물 채취 체험 활동 - 흙벽돌 쌓기 체험 - 점심식사 - 체험종료 인사의 순으로 짰다.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두레박 회원들이 두세 명씩 끼어들어서 안내하기로 한다. 점심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해 온다고 하니 황보 여사가 식사 장소와 뒷바라지를 맡아주고 두레박 회원들은 모두들 자기 집에서 각자 점심식사를 하고 농장에서 모이기로 했다.

학생들의 체험 학습일이 7월 11일 금요일이니 그 다음은 휴무일이 2일간



이어져서 학생들에게나 인솔교사들에게나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이 넘치는 날로 보였다.

중학교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은 오늘날의 노인들 청소년 시절에는 원족, 그 후로는 소풍이라고 불리면서 세월과 함께 변천해 온 연중 행사가 아닌가 싶다.

강남혜명여중에서 체험학습 일정 통지가 온지 보름이 지나고 학생들이 올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고 지금 국태성은 흙벽돌집 작업 현장에 와 있다. 황보 여사가 오늘도 들렀다. 거들 일이 있으면 거들기 위해서다. 말벗이 되어 주다가 돌아가지만 더러는 힘을 보태곤 한다.

“내일 학생들의 흙벽돌집 짓기 체험을 준비 중입니다.”

황보 여사를 본 국태성의 얘기다.

“색다른 체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황토를 파서 가져오는 것부터 흙벽돌 찍기, 햇볕에 말리기, 흙벽돌을 쌓기까지 직접 해보고요.”

황보 여사는 구경만 하지 않고 한 시간 가까이 흙벽돌 쌓기를 거들다가 돌아갔다. 늘 그래 온 대로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오전에 학생들이 전세버스로 도착했다. 선생님들 중에 오민아 선생이 보인다. 국태성에게는 오직 한 명의 구면이다.

“안녕하셔어요, 국 선생님.”

오민아 선생이 먼저 국태성에게 다가온다.

서로는 악수를 했다. 얼떨결의 악수다. 그래도 이 악수가 어색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인다.

“학생들이 쾌활하고 명랑해 보입니다, 오선생님.”

인사말은 국태성이 먼저 건넨다.

“저는 어떻습니까? 호호호.”

오민아의 엉뚱한 질문이다.

“허허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우선 학생들에게 제가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계획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국태성이 오선생에게 말했다.

“그러시겠어요?”

학생들을 정렬시킨 다음 오선생이 국태성을 소개한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곳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 일꾼이라고 했다. 총각 일꾼이기도 하다고 하자 박수가 터져 나온다. 다음에는 국태성이 학생들 앞에 섰다.

하고 많은 농촌 중에서 이곳을 찾아 와서 반갑다는 인사말과 오늘의 이곳 안내 일정, 그리고 수경재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흙벽돌집 작업장으로 학생들을 안내했다. 꽤 높직이 쌓아 올린 벽체에 문도 세우고 창도 끼우는 흙벽돌 집이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모양이다.

그 다음은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 안에서는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놀란다. 보도 들도 못한 수경 재배에다 움직이는 판유리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판유리들이 일시에 90도 각도로 세워져서 하늘에

서 내리쬐는 햇살을 직접 잎사귀에 닿게 하는 과정과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은 알아듣는 눈빛이다.

다음에는 수경 재배 중인 산나물의 이름과 쓰임새를 말해 준다. 위쪽 두둑의 달래, 잔대, 냉이, 참취, 그리고 아래쪽 두둑의 머위, 창출, 곰취, 씬바귀들의 이름을 한가지씩 알려주자 학생들은 들어본 듯 그렇잖은 듯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이제는 수확을 해 보인다. 산나물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뽑고 자르고 한다. 나물의 이름을 대면서 했다. 몇몇 학생에게는 시켜도 보고 거둔 산나물들을 건조시키는 작업을 해 보도록 했다. 다음은 흙벽돌집 작업장으로 다시 가서 이 편짝에게는 흙을 파오는 작업을, 저쪽에게는 흙벽돌을 만들어 보도록, 또 다른 쪽한테는 흙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보도록도 한다. 그 다음은 쌓기 체험도 있고 한데 서울까지 되돌아갈 시각에 맞추자니 여기까지로 끝을 냈다. 바듯한 일정이었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 과정과 점심 식사까지를 모두 마치고 두레박 회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 일행이 떠나기 전 국태성은 오민아 선생에게 내일 서울에 올라갈 일정들을 얘기했고 오민아 선생은 휴대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국태성에게 건넨다. 학생들이 그리고 오민아 선생이 떠나자 국태성은 이제는 다시 흙벽돌집 짓기를 서둘렀다.

우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박 회원들도 계제에 일을 거들다가 돌아갔다. 흙벽돌 얹혀가는 높이가 지붕을 씌울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석양 노을이 물드는 시각까지의 일과를 촘촘히 채운 국태성은 이제는 거처로 간다.

거처에 오자 국태성은 오민아 선생이 적어 준 휴대 전화 번호 쪽지를 꺼내서 지난 번 받아 뒀던 그녀의 명함에 적는다. 오민아 선생이 줬던 명함의 전화번호가 자택의 것인지 학교의 것인지 은근히 궁금했었지만 이제는 상관 없게 되었다.

국태성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서울 집에서 가져온 것들로 끓이는 된장찌개 정도지만 식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바쁘거나 피가 나도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다. 오늘 저녁에는 하우스에서 슈아 온 취나물을 물과 함께 뚝배기에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썰어 넣고 다시 끓으면 끝으로 된장을 풀어서 또다시 끓이는 찌개 겸 국이다. 찌개를 이렇게 끓여내는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는 아무에게도 물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맛은 있다.

저녁 식사 후 오늘도 일찍 작부 일지를 편다. 작부 일지의 금일 실시 사항에는 수경 재배와 유리 하우스를 중심으로 썼고 내일의 예정사항에는 서울 갈 용무인데 유리 하우스 수경 재배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얻는 일을 적었다. 물론 서울에 가면 항상 집에 들어서 어머니를 뵙고 누이동생도 만난다. 이번은 두 달만의 귀가다.

특기사항은 흙벽돌집 굴피지붕 없는 일을, 그리고 그 아래 단의 일기란에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내용과 오민아 선생과의 약속에 대하여 쓴다. 그런 후 8시 조금 지나서 이부자리를 폈다.

다음 날 국태성은 예산역에서 용산행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주말의 경우 늦어도 이틀 전에 예매를 해야 좌석차지가 보장된다. 전화 예약도 할 수 있어서 전화 예약을 해냈다.

예산역에서 오전 11시 2분에 국태성을 태우고 출발한 열차는 무궁화호다. 새마을호는 신례원역, 도고온천역, 평택역, 안양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하지만 요금은 많고, 무궁화호는 이들 역에서 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대신 요금은 싸다. 국태성은 7호차 43호석에 앉았다. 옆 자리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파가 앉아 있고 통로에서 서있는 승객은 없었다.

오늘도 서울로 가는 마음은 유쾌하다. 서울에 가면 농촌 생활에 의욕을 갖도록 북돋워 주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작은 힘이지만 보태야 한다고 어머니는 자주 말씀해 주신다. 농촌은 분명 살아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다.

천안역을 통과하면서 국태성은 오민아 선생한테 휴대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오민아 선생으로부터는 그렇잖아도 용산역으로 마중 나가는 중이라는 대답이 온다. 오늘 일과는 오민아 선생을 만나는 일만 남았다. 수경 재배에 대한 기술 정보는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에 관계 기관에 가서 얻기로 되어있다. 국태성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에 가고 있는데 불일을 보자면 늦게 뵈지도 모르겠다고 말씀 드려 놓는다.

열차가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싸가지고 온 김밥 점심을 먹고 난 얼마 후였다. 국태성이 오후 1시가 다 되어 용산역에 내렸을 때 오민아 선생은 그곳에 이미 와 있었다. 국태성을 먼저 보고 다가온다.

## 강남혜명여중의 오민아 교사

### 국태성과 친교를 맺음

“오늘은 제가 모시겠어요, 국 선생님.”

‘모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선생님이라니...’

“저는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가 좀 그러네요.”

국태성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반박하는 척하는 눈빛과 말투를 오민아에게 보낸다.

“그럼 어쩐다? 태성씨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마음에 듭니다. 오선생님.”

“마음에 안 들긴 저도 마찬가지군요.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가.”

“오라, 그렇군요. 민아씨, 하하하.”

“제가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태성씨.”

오민아 선생이 국태성의 팔에다 오른 편 손을 끼워 가면서 국태성을 쳐다본다. 서로간의 관계가 급진전한다. 이제부터 팔짱을 끼는 사람은 오민아, 따라가는 사람은 국태성이 되었다. 오민아가 주는 상냥함, 그리고 다가옴이

국태성에게는 흐뭇함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오민아를 태우고 왔던 승용차 옆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제 동생입니다. 인사 드려라 민철아.”

승용차 가까이에 이르자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다.

“오민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청년이 먼저 국태성에게 인사를 하는데 스무 살은 되어 보인다.

“예, 나는 국태성입니다.”

국태성이 손을 내민다. 악수를 청했다.

인사를 끝낸 세 사람은 승용차에 함께 오른다. 오민철이 뒷문을 열어 국태성에게 운전석 뒤 좌석을 권했고 오민아가 운전석 옆에 앉으면서 승용차는 출발했다.

“누나, 거기로 갈까?”

“그래야지.”

묻고 대답하는 것을 들어볼 때 남매 간에는 갈 곳을 이미 정해 놓은 것 같았다.

‘거기가 어디일까?’

궁금했지만 물을 것까지는 없는 일이다.

“태성씨.”

오민아가 뒷몸 까지 돌려서 국태성을 보며 불렀다.

“예?”

국태성이 오민아와 눈을 마주치며 대답한다.

“오늘 서울에 오셨으니 약주 한 잔 대접하려고요, 서울 중심가에서요.”

“중심가요?”

“예, 충무로인데요, 파전에 빈대떡이 소주하고 잘 어울린다고들 해요.”

이러는 사이에 승용차는 목적지에 도착을 한듯 멈춰 선다. 용산역에서 충무로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고 불과 수십 미터 걸어서 좁다란 골목에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냄새로 먼저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보는 빈대떡과 파전은 그 맛이 그야말로 일미였다. 국태성으로서는 와본 적은 없어도 들어 본 기억이 있는 곳인데 평범한 음식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왁자지껄 머물게 하는 명소한 곳을 만들어 내고 있다. 희한한 곳이다.

“서울에 오실 날을 생각해서 한 번 정찰을 마쳤죠, 별미가 있다가에.”

오민아의 마음 씀이 대단하다. 정찰까지 했다니. 오민아와 국태성이 대작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초여름의 좋은 날씨에 서울 한복판의 오찬 메뉴로 빈대떡과 파전이 더없이 색다르다. 오민철은 파전과 빈대떡에만 손이 갔다. 운전 때문으로 보였다.

취기가 오르기 전 국태성이 먼저 일어선다. 조금은 얼큰한 기운을 국태성은 느꼈다.

“오늘 좋은 곳에서 즐거운 자리 감사했습니다. 파전이랑 빈대떡이 일품이군요.”

“그렇죠? 다음에 또 한 번 모실게요.”

셋이서는 승용차에 올랐다.



“오늘 가실 곳이 어디신가요?”

차에 오르자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묻는다. 시동이 걸리기 전에 물었다.

“태워다 주시려고요?”

“그야 당연하죠, 모셔다 드리려고요.”

“이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택이 서울이시던가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동생하고요.”

“그럼 택으로 가야겠어요.”

오민철이 차의 시동을 건다. 그러더니 위치를 묻고 방향을 잡아서 국태성이 가리키는 위치에 차를 댔다.

“저의 집에서 다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국태성이 차에서 내려서 오민아에게 건내는 말이다.

“오늘은 그냥 가야겠어요. 다음에 찾아 뵈 날이 있겠죠.”

오민아 남매가 그대로 돌아갔고 국태성이 집에서 서울쪽 일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이틀 밤을 머문 월요일에 수경 재배에 대한 기술 정보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일로 일을 마친 국태성은 집에서 부식 거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지금 농장쪽은 흙벽돌집 지붕 없는 일이 멀잖아 닥칠 우기를 앞두고 날짜를 재촉하고 있다.

바쁜 마음으로 열차를 탔다. 밖은 온통 시가지가 범벅이 되어 훤히 차창을 스쳐간다. 수원역에 이르기까지도 철로 변은 연이어서 시가지다. 농촌은 한산하기 그지없는데 이쪽은 붐벼 보인다.

장항선 하행 무궁화호 열차로 한 시간 반 넘게, 그리고 시내 버스로 반 시간 정도, 그 다음에는 자전거로 십여 분 걸려서 농장에 도착한 국태성은 유리 하우스를 살펴보는 일로 농장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흙벽돌집 지붕 작업을 한다. 지붕을 얹는 작업은 이틀이 걸렸다. 지붕에 씌우는 재료는 참나무 껍데기를 썼다. 실로 여러 해를 벌려서 어렵사리 구한 재료다. 지붕 씌우기를 이틀 만에 끝낸 것은 두레박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황토 흙은 사람의 몸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집의 내부 벽에는 벽지를 바르지 않고 벽의 거죽을 흙손으로 매끄럽게 문질러서 마감 짓기로 했다. 옛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위생상 이로운 사무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집에 쓰인 황토 흙은 처음으로 땅 위의 세상에 나온 흙이기 때문에 공해에 노출되지 않은 태초의 흙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국태성은 이 집을 농장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관리채라고 이름 부르기로 한다.

지붕을 얹은 지 열 하루 만에 관리채 짓기는 22공탄과 화목 겸용 함실 아궁이에 재래식 구들 놓기, 그리고 콩담 장판 바르기로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의좋은형제마을농장의 관리채가 준공을 본 것이나 다름 없는 때의 토요일을 택해서 두레박 회원의 점심 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관리채에 모인 회원은 스물 한 명, 두 명은 외지의 불일로 모임에 빠졌다.

오민아 선생이 와 준 것은 생각 밖의 일이다. 기대 밖의 방문에다가 더욱 뜻밖인 것은 황보 여사를 거드는 듯 하더니 차고들어서 음식을 차리고 대접

하는 두량을 직접 해낸다는 것이다.

관리채는 황보 여사의 집과 닮은 점이 있다. 함실 아궁이와 장판방이 그렇다. 그리고 넓은 방 안에 주방이 함께 있는 것도 똑같다. 다만 벽지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흙내가 나는 점이 다르다. 국태성에게는 황토의 향이 은은한 향기로 몸에 배어드는 맛이 언제나 좋다. 누구보다 좋지 싫다.

회식의 자리에서는 두레박 회원들의 환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태성은 바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오민아는 주방쪽에서 움직인다. 황보 여사가 옆에서 거들고 있다.

“댁이 서울이신가요?”

황보 여사가 오민아에게 묻는다. 괜히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다는 생각이 든다.

“예, 서울 강남이에요.”

오민아는 강남이라는 얘기까지 했다. 황보 여사는 대략 물었지만 오민아는 조금 자세히 대답한다.

“강남이라면...”

“신사동 로타리 동쪽 편이에요.”

이번 대답은 더 자상하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겠죠?”

실례인 줄 알면서도 황보 여사는 실례를 하고 있다.

“스물 다섯이에요.”

그래도 오민아는 대답을 금방 한다. 나이 대답을 쉽게 했다.

“그러세요? 국태성 청년의 나이는 서른 셋이던가인데.”

그런데 여기서 국태성 얘기가, 그것도 나이 얘기가 어째서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 오민아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사실 황보 여사는 알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겠으나 국태성의 나이를 한 살 줄여서 얘기했다.

“오늘 서울로 올라가시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얘기나 하면서 하루쯤 지내다가 가시면 어떨까요?”

“.....”

오민아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누가 기다리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옳지, 그렇다면 하루 이틀 더 지내다가 가시는 겁니다.”

“.....”

오민아는 말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그러겠다는 눈치를 보인다. 흔치는 않지만 많이들 쓰는 대답, 침묵으로 하는 대답이다.

주방 설건이를 끝내고 황보 여사가 앞서거니 오민아는 뒤서거니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갔다. 걸어서 십 분여의 거리다. 의좋은형제마을의 북쪽 끝쯤이다. 오민아의 손에는 보따리가 하나 들려있다.

“이게 뭐가요?”

“회식 하실 때 차리고 남은 것들이예요.”

“예?”

황보 여사는 조금 놀란다.

‘남은 음식을 챙겨 오다니…, 하기가 버릴 순 없지’

“잘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차지군요.”

오민아를 데리고 집에 도착한 황보 여사는 우선 오민아가 입도록 아랫도리 옷에 윗도리까지 금세 하나씩 꺼내온다.

“오늘은 이 옷으로 지내요. 오선생님.”

“이제 말씀 놓으세요. 송구스러워서 제가.”

황보 여사도 아직 결혼 전이기는 하지만 오민아야 스물 다섯에 엇되니 누가 봐도 말을 놓을 만했다. 이제는 안면도 깊어졌으니 더욱 그렇다.

어때요? 불편하지는 않아요?”

황보 여사가 묻는다.

“편하네요.”

옷을 바꿔 입고 난 오민아의 대답이다.

“그럼 됐어요.”

오민아의 모습은 마치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양 그럴싸했다.

“오선생 말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놓기로 하지.”

오민아를 바라보던 황보 여사와 옷매무시를 가다듬던 오민아의 눈길이 미소 지으며 마주친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맹 영감의 이웃 나들이다. 자주 있어 온 방문이다.

이 시각에 관리채에서의 점심 모임을 마친 국태성은 산나물건조장 지붕

씻우기 설비를 살핀다. 뼈대는 고정 되어 있는 것이고 가끔 확인할 것은 건조장을 비닐로 씌우고 다시 견고 하는 전동 장치다. 전동 장치를 운전해 보니 별일은 없다. 그러면 오늘은 두레박의 정관 작성을 매듭 짓기로 한다.

두레박 모임은 이렇다할 정관이나 규약 같은 것이 없어서 그동안 틈을 내서 정관 초안 똑같은 것 세 벌을 작성해 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우선 가까운 분 황보 여사의 생각을 묻고 맹 영감의 의견도 들어서 다듬을 데가 있으면 다듬은 다음에 전체 회의 때 내놔서 결정을 보는 일이 남아 있다.

다시 관리채로 온 국태성은 접이식 상을 펴고 초안을 한 번 더 살핀다.

정관은 총칙, 회원, 임원, 사업, 부칙의 순으로 차례를 정한 다음 총칙에는 정관의 명칭, 목적, 적용 범위를, 총칙 다음에는 회원, 임원의 자격과 임원 선출 방법을, 그리고 그 다음의 사업은 두레박이 해야 할 사업을 조목조목 간추려서 적고 마지막의 부칙에는 효력 발생 일자와 개정에 관한 규정을 넣었다. 그래서 정관의 명칭은 「의종은 형제 마을 두레박 정관」으로 하고 부칙의 효력 발생 일자는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날짜로, 그리고 개정 또는 파기는 회원 1/3이상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했다.

이제는 황보 여사의 집에 가기로 한다.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했다. 맹 영감이 마을 와서 함께 있다는 대답을 들은 국태성은 작성된 정관 초안 두 벌을 챙겨 들고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갔다. 황보 여사와 맹 영감이 같이 있으니 두 번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국태성으로부터 정관 초안 한벌 씩을 받은 황보 여사와 맹 영감이 꽤 세심히 들 초안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 세 사람 가까이로 오민아가 온다.

“여기서 다시 뵙는군요.”

본 척은 국태성이 먼저 했다.

“그러네요, 태성씨.”

오민아는 태성씨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쓴다.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니 별다를 것도 없다.

오민아는 황보 여사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제가 거들어 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묻는다.

“커피 타실 수 있겠지?”

대답은 황보 여사가 했다. 오민아는 일어선다. 그리고 커피 내올 방법을 이미 알아 뒀다는 듯이 주방 쪽으로 갔다. 자기 집 주방으로 가듯 움직이더니 얼마 후 끓인 물 주전자와 설탕, 그리고 커피 분말을 타지 않은 채로 가져온다. 커피에도 각자 식성이 있으니 많이들 하는 대로다.

우유를 농축한 연유도 보인다. 구색이 잘 갖춰져 있어 보였던지 모두는 저으기 놀라와 하는 기색이다. 어떻게 이리도 푸짐하게 내왔냐는 표정들이다.

“설탕 넣는 것 싫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커피를 탈 때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던가 유행했는데 요즘도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 함께 앉은 이들은 설탕 타기와 타지 않기가 둘씩이 되었다. 커피를 드는 동안 국태성이 내는 정관 초안은 원안 그대로 두레박 전체 회의에 가져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이제 가서 회잇 날 다시 뵙겠습니다.”

정관 초안 내뉘던 것 두 벌을 봉투에 다시 넣어 들고 국태성은 일어선다. 두레박 회의 일시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봤다. 안건도 짚으니 회원들에게 통지할 일만 남았다.

“저도 가요. 산나물 농장으로 가시겠죠?”

오민아도 일어선다. 국태성이 산나물 농장으로 가려니 짐작하고 있는 오민아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국태성과 오민아는 농장으로 함께 왔다. 국태성은 오민아를 관리채로 안내한다.

“이 공간이 오늘따라 맘에 더욱 드네요. 은은한 향도 좋고요.”

오민아가 실내를 한 번 죽 둘러보며 하는 말이다.

“여기 앉으시지요.”

국태성은 오민아를 자리잡아 앉히고 자기도 저만치에 비껴 앉는다.

“이렇게 넓은 방이라니 교실로도 쓸 수 있겠어요. 방바닥이 무척 다습고요.”

“함실아궁이를 났습니다. 올해에 지었기 때문에 말리느라고 장작불을 지폈죠. 아궁이도 네 군데에 있고요.”

“함실아궁이요?”

오민아로서는 알듯 말듯한 이름이다.

“아궁이를 방고래 속으로 깊숙하고 넓게 만들고 초입에서부터 안쪽으로



바닥에 레일을 깬 다음 그 레일 위에 22공탄 2개짜리 화덕을 얹어서 구들 밑 깊은 데까지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해놓은 아궁이랍니다.”

설명이 복잡한 듯했지만 오민아가 듣기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 들을 수 있었다.

“황토의 향이 이렇게 향기로운 줄은 몰랐어요.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함실 아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만나보게 되네요.”

“민아씨.”

“네?”

“내가 어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맘에 드시냐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다짜고짜시네요?”

“요새 사람들 말로 프리포즈잡습니까.”

오민아는 눈만 동그랗게 뜬다. 대꾸할 방도가 난감해서다. 그런데 오민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용산역 앞에서 국태성의 팔을 껴잡았던 그 일이 왜 지금 다시 생각나는지 모를 일이다.

“생각 나시죠?”

국태성이 또 묻는다.

“무슨 생각요?”

“우리가 용산역 앞에서 팔짱을 껴잡았던 일이 떠올라세요.”

국태성도 같은 생각을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 날 국태성의 팔에 자기 팔을 껴잡았던 그 일을 생각하니 실

로 대답했다고 봐야 옳다. 그때의 그 눈빛을 들은 지금 교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욱 대답해 줬다. 국태성 쪽이 그렇다. 프리포즈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그렇다.

“태성씨.”

이번에는 오민아가 국태성을 불렀다.

“예?”

국태성의 눈이 오민아의 눈과 부딪는다.

“제 맘에 드느냐고 하셨죠?”

국태성은 대답은 없이 눈만 마주치고 있다. 대답할 쪽은 오민아이니 듣겠다는 눈치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찬찬히 뜯어볼 때 마음에 든다는 대답이 오민아의 눈빛에서 읽힌다. 오민아의 눈에서 반짝 빛이 났기 때문이다.

오민아가 국태성을 또렷이 쳐다본다. 국태성쪽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려는 것 같다. 오민아의 눈빛에서 마음에 든다는 그녀의 속마음을 읽었으니 국태성으로서 오민아의 말대답을 들을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말 했다. 오민아에게는 작던 크던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두 사람은 눈빛을 통해서 마음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일어서요.”

“그렇까요?”

“수경 재배 하우스가 구경하고 싶어요.”

오민아쪽에서 국태성을 일으킨다. 손을 잡아서 당긴다. 당기는가 아닌가 싶게 끌어 올렸다.

둘은 함께 유리 하우스로 간다. 농장으로 올 때엔 오민아가 국태성을 따라 왔지만 이제 유리 하우스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간다. 손목은 그냥 잡은 채로다. 거리도 가깝고 또 주위엔 둘 뿐이어선지 오민아는 잡은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보인다. 유리 하우스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 건조장 위에서는 널어 놓 산나물들이 가지런히 햇볕을 쬐고 있다.

“하우스 옆에다 이렇게 널어 말리시는군요.”

“요즘의 햇볕 아래서는 네뎃새면 마르죠.”

“이것들 이름이 뭐가요?”

“이쪽 것은 잔대, 그리고 저쪽 것은 곰취랍니다.”

“잔대란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곰취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잔대는 어린 싹과 뿌리를 사용하고 곰취는 잎을 쓰죠.”

“이제 이 나물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같은 날씨라면 앞으로 이틀 정도 햇볕을 더 쬐 다음에 내려고요.”

“낸다고 하셨어요?”

“사러 오는 이들에게 팔겠다는 얘기죠.”

몇가지 얘기를 잠깐 동안 나누는 사이에 둘은 유리 하우스 출입문 앞에 이른다. 국태성이 하우스의 잠금 장치를 열자 오민아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오민아의 뒤를 국태성이 따른다. 손은 서로 잡은 채로다.

일주일쯤 전에 학생들과 함께 와 봤던 그 유리 하우스 안에 다시 들어와 보는 오민아에게는 감회가 새롭다. 불과 두세 달 새에 세 번째 와 보는데 달라지는 것이 많고 유리 하우스 안팎의 풍경이 사뭇 바뀌어 가고 있다. 하우스 안은 이제 수확을 앞뒀거나 아니면 막 수확을 하고 있는 위층과 아래층 산나물 밭이 풍요롭다.

“2층 짜리 밭이라니. 언제 봐도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러네요. 지난 번에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랑은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 문제 잦겠어요?”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본다.

“무슨 분위기죠?”

오민아가 국태성을 쳐다보며 묻는다.

“우리 둘이서만이라는 분위기 아닐까요?”

국태성의 대답이 빨랐다.

“우리 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오민아는 국태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마음이 통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

오민아는 말이 없고 이번에는 국태성이 오민아의 손을 잡는다. 손바닥끼리를 맞대서 잡았다. 이십전십이며 서로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는 듯이 잡는다. 그러자 이때란 듯이 오민아가 국태성의 왼 팔에 자신의 오른 팔을 슷제 껴다. 깊숙이 껴 잡는다.

길지 않은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남녀의 움직임은 더할 나위 없이 유연했다.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리 하우스 밖에서부터 이루어 온 남녀의 팔짱 끼기였는데 하우스 통로의 폭 또한 남녀가 함께 이런 상태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때로는 서로 껴안고픈 순간을 겪기도 했으나 얼버무려서 그 경황을 넘기고 돌은 침묵의 시간들을 삼키면서 팔을 끼고 끼인 채 안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미리 예상치는 않았던 시간과 공간의 조화다. 그렇게 둘이서는 길다란 유리 하우스 통로를 따라 저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태성씨, 우리 돌아가야죠, 이제?”

그러면서 오민아가 팔짱 낀 오른 팔에 힘을 준다. 지금의 두 사람에게 이곳 유리 하우스 안의 산나물들은 그냥 건성으로 있을 뿐이다.

“어디로 갈까요?”

국태성이 묻는다.

오민아가 대답할 성격이 아닌 질문을 국태성은 오민아에게 했다.

“...?”

오민아는 국태성을 올려다만 볼 뿐이다.

“관리채로 가죠.”

대답도 국태성이 했다.

이제는 유리 하우스에서 오래 머무를 까닭은 없다. 오늘 둘이서는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팔짱을 끼는 이득까지도 봤다. 팔짱을 껴오니 이제는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오래 여기서 머무를 필요없이 관리채로 가서 새로운 분위기에 젖어들어야 할 시간임을 들은 알고 있다.

비슷한 시각에 의좋은형제마을의 마을 회관에서는 모임이 준비 중이다. 관광우애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임이다. 오백 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고려 시대에 이 지역에 살던 의좋은 형제가 우애를 돈독히 하며 살았었다는 옛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 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그 후 현지에는 우애비와 동상까지 건립하는 등 모두가 본받을 형제 우애의 본고장으로 여겨왔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큰 하천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사장을 낀 개울로 바뀌었다가 그 후에 지금의 예당호가 그 지역에 만들어지고 의좋은 형제마을이라는 이름 또한 언제부턴가 이 고을에 생겨난 것인데 이런 전설들을 바탕으로 하천의 연변에 자리를 잡아 살았다고 추측되는 곳을 정해서 형제의 소박한 세간살이 등 초라하면서 단출했던 초가삼간을 꾸미고 그 시절의 모습들을 그렸었구나 할 만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관광우애 마을 만들기의 중심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의 관광우애마을 만들기 논의에 앞서 국태성의 수경재배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나 마을회관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민아씨는 여기서 기다려 줘요. 시간이 많이는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민아한테 관리채 일거리를 두량해 주고 난 국태성은 마을 회관으로 갔다. 의좋은 형제마을 마을회관이다.

이 고장에는 동쪽으로 예당호를 끼고 대흥에서 남쪽 편의 광시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지방도로가 뻗어 있는데 이 도로의 중도에서 직각으로 꺾여서 서쪽 저만치에 있는 봉수산 산록을 향해서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곧고도 긴 농로가 뚫려 있어서 이 농삿길을 경계선으로 남쪽은 효녀원홍장마을, 그리고 북쪽은 의좋은형제마을로 나뉜다. 그리고 국태성의 거처는 이 농삿길가의 효녀원홍장마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국태성은 거처는 남쪽 편의 효녀원홍장마을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일터가 있는 북쪽 편의 의좋은 형제마을까지 두세 차례씩 오가는 실정이니 두 마을 모두와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태성이 자전거로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와 있는 이들이 여럿 있었다.

“반갑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우리?”

이장이 국태성을 반겨 맞았다. 손을 내밀며 먼저 인사를 한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까, 이장님.”

이장을 시작으로 먼저 와 있던 이들과 악수나 아니면 눈인사를 나눈 국태성은 회의 자료를 받아 들고 자리 하나를 찾아해 앉았다. 회의를 앞두고 주민 모두에게 이장이 통지를 했다는데 막상 참석한 인원은 적지도 않았지만 많은 인원도 아니었다.

국태성은 나눠 받은 팜플릿을 본다. 길장의 제목에는 「산나물수경재배와

관광우애마을 만들기」라고 적혀있었다. 알려진 대로다. 이장이 단상의 마이크 앞에 선다. 의좋은형제마을의 이장들 셋중 한 사람인데 국태성을 반가이 맞아 줬던 그 이장이다. 이 지역 부락을 관장하는 이장의 사회로 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된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 첫 순서로 참석자 소개를 하면서 사회자는 국태성을 가리켜 산나물 농장 청년이라고 소개했고 개최식에 이어서 국태성의 강연이 첫머리에 잡혀 있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국 선생님.”

이번에는 이장이 국태성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산나물 농장 청년인데 부를 땀 선생님이라고 불려서 좀 높여 예우하는 것이라고 국태성은 혼자 생각하면서 단상으로 나간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분배할 소책자를 국태성의 원고를 받아서 주최측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 국태성은 이곳에서 그야말로 난생 처음 강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준비는 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대흥면 부면장을 비롯해서 이 지역 인사들과의 교분도 두터이 하면서 산나물 수경 재배 홍보도 겸하게 되니 오늘의 이 자리가 국태성에게는 실로 일석이조의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어렵더라도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강연에 들어갔다.

국태성은 수경재배의 방식과 그리고 산나물들을 수경재배 해서 수확한 다음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까지에 대해서 40분 정도 강연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 고을에서 태어났음이 널리 알려진 의좋은 형제를 본받고자 관광우애 마을을 만들자는 회의가 이어진다니 호감이 가는



바여서 에라 하고 눌러앉는다. 그렇게 해서 관광우에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듣는 소득까지 얻고 국태성은 농장으로 향했다. 이쪽에서 일 보는데 두 시간 이상은 걸렸으니 오민아 선생에게는 실로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자전거 페달을 빠르게 밟는다.

국태성이 관리채로 돌아왔을 때 오민아는 주방에 있었다. 주방 도구들을 정리하는 옆모습이 보인다.

“장조림 좀 가져온 것 지하 광에 넣어 놨어요.”

국태성을 본 오민아가 말했다.

‘장조림을 가지고 오다니...’

국태성으로서는 자신의 살림살이가 오죽잡은 것이 부끄러웁거니와 또 오민아의 장조림 얘기가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하다.

“정말로 염치없습니다.”

부끄럽다는 마음을 무어라고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저 염치 없다는 말로 표현할 뿐이다.

“염치없으시다뇨?”

“그보다 고맙습니다. 민아씨.”

국태성은 결국 고맙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이에요.”

오민아 선생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국태성에게는 실로 요긴한 일이었다.

“지하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국태성에게는 그것이 궁금해 진다.

“지난 번에 봤어요.”

지난 번이란 아마도 일 주일 전 두레박 회원의 점심 모임 때를 말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올라가겠어요.”

오민아의 얘기다. 서울로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오자마자 돌아가겠다는 얘이지만 국태성이 이를 말린다거나 늦출 일은 못된다. 곳이 못할 일도 아니긴 하더라도 못 말리고 만다.

결국 오민아를 예산역에서 배웅하고 나니 이번에는 두레박 모임에 가 봐야 할 차례다. 두레박에서는 오늘 수목장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다.

수목장(壽木葬)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했을 경우 그 유해함을 함재로 늘푸른 나무의 밑동 바로 옆 땅 속에 묻는 절차다. 두레박 회원들 사이에서 이 방식이 풍문으로 돌더니 오늘 그러한 절차를 치르겠다는 첫 번째 회원이 생겼는데 그 얘기가 입소문을 타자 회원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 동네에 서까지 이를 보려고 많이들 와 있다.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흙을 통해 생명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환 과정이며 그래서 이를 따르겠다는 수목장, 이 수목장이 이고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수목장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태성은 뭔가 부족하지 싶은 관리채와 거처의 굴피지붕을 튼튼하게 손보는 일을 해 볼 생각이다. 곧 찾아올 장마철에 걱정

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굴피 지붕의 재료인 참나무 껍데기는 여러 해 전에 충분히 마련해 놨다. 열 다섯 칸 짜리 집의 지붕을 일 수 있는 분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덟 칸 분량을 이번에 쓸 생각이다. 천년 기와 만년 굴피라고 했으니 굴피 지붕의 수명이야 어느 것에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굴피지붕 밑에 두툼하게 펴 황토 반죽 재료도 근처에 넉넉하다.

국태성은 굴피를 보관해 둔 헛간을 돌아본다. 이 다용도 헛간도 거처 옆에 수년 전에 시험 삼아서 굴피지붕을 씌워서 지어 봤는데 지금 봐서는 지붕의 상태가 그만하다. 그 시기에 우연히 수중에 넣게 된 참나무 껍데기, 큰 기대야 하지 않았었지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고 있다. 굴피 지붕의 수명을 지금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고 하겠으나 훗날에 가서는 기와보다 길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꼭 그러리라고 믿고 있다.

이제 굴피지붕 작업을 생각하자니 날씨를 알아봐야 할 일이 먼저다. 전화기의 다이얼 131은 오늘의 날씨는 물론이고 앞으로 사나흘 간 뿐 아니라 그 후의 날씨도 미리 들여볼 수 있는 번호다. 전화기의 자동응답에서는 앞으로 여러 날 맑다는 대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두레박과의 연락이다. 미룰 것 없이 작업 날짜를 정하고 회장과 협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일을 끝냈다.

필요한 자재도 적어 본다. 자재라고 해봐야 몇몇이면 된다. 그리고 나무를 다룰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회원 중에 목수 경력자가 있어서 그에게도 협조를 청해 놨다. 공사하는 날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도 생각해 본다. 스물 셋 두레박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계기 또한 이런 때에 한 번 만들어 볼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오민아를 태운 장항선 상행 열차가 예산역을 출발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차창 밖 풍광들이 멀리서는 느릿느릿 그리고 가까이서는 확확 다가왔다가 지나치는데 그러는 동안 오민아의 뇌리에도 여러 정감들이 교차한다.

두 달쯤 전에 타향 땅인 충청도 예산이라는 곳을 처음 찾았을 때와는 달리 오늘은 오히려 고향을 떠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은 웬일인가. 정이 들면 타향도 고향이라고 했듯이 예산 대흥의 봉수산 아랫 마을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든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유리 하우스 수경 재배 농장이 눈 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오민아는 두 시간 가량의 여행 끝에 용산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까지 민철이 나와 있다가 오민아의 룩색을 받아서 멘다. 예산역에서 국태성이 넘겨준 룩색 속에는 이것저것 산나물 데쳐 말린 것과 오늘 새벽에 유리온실에서 슈아낸 것들이 담겨 있다.

남매가 용산역에서 올라탄 전철 열차의 내부에는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다. 항상 붐비는 것만은 아닌 전철 사정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여유있는 내부 공간을 움직여서 남매는 나란히 자리를 잡는다. 전철을 타고 지하로 들어간 다음 한 차례 바뀌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뒤 두세 정거장을 지나서 둘은 내렸다.

집에 도착한 오민아는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끝내니 이젠 산나물 손질을 하고 싶은데 요량이 서지를 앓는다. 룩색에서 산나물 보자기를 꺼내서 풀어 놓고만 있는데 그 사정을 안 것처럼 어머니가 곁으로 다가와 선다.

“이게 뭐냐?”

“이건 곰취라는 것이고…, 이건 잔대, 이건 머위죠.”

“어떻게 산나물 이름을 다 알았니?”

“엄만, 나를 멍청이로 아시네?”

“그건 아니지. 우리 딸이 누군데.”

“잘 다듬어 줘요?”

“넌 이런 거 다듬어 본 적 없잖니?”

“…”

오민아의 입에서 태성 씨라는 이름 석자가 튀어 나오려다가 들어가 버린다.

다듬는 것은 물론이고 숙아내는 것부터 모두 국태성이 해 줬기 때문이다.

“내 솜씨도 이 정도면 쓸만하죠?”

아예 능청을 부린다.

“다듬어 왔으니 조금 무쳐 보잖겠니?”

오민아로서는 전혀 자신이 없는 일을 지금 어머니가 주문하고 있다. 나물 무치는 일은 아직 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해 나갈 일에 속한다. 그렇다는 것은 어머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는 무언가 육감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제 난 내 방으로 가요, 엄마.”

오민아는 뒷일은 어머니에게 미루고 자기 방으로 와서 책상 앞에 앉는다.

학교 쪽 일들에만 열중했던 생활에서 얼마간은 벗어나서 여름 방학을 맞은 기회에 예산의 강남주말농장 같은 곳에서 색다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오민아로서는 커다란 즐거움이면서 보람일 수밖에 없다. 집에서는 며칠 정도만 지내고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겨났다. 기왕 마음 내킨 김에 이쪽 일 몇 가지만 정리한 다음에 수일 내로 다시 떠나야 겠다고 아예 마음을 굳혀 버린다. 그래서 생활 주변이나 둘러보는 등 마는 등 대엿새를 보낸 오민아는 장항선 하행 열차에 올랐다.

가자마자 왔다가 오자마자 되짚어 다시 간다. 방학 기간도 아직은 적잖이 남았다. 예산역에서 시내버스로 바꿔 탄 오민아는 의좋은형제마을 어귀에서 하차하자 황보 여사의 집에 먼저 들렀다.

“언제 오신 건가?”

오민아를 맞아 들이는 황보 여사는 점심식사 거리를 준비하는 듯 보였다.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리로 왔어요.”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오셨네?”

“예, 다시 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마침맞게 잘 오셨어. 함께 식사 좀 합시다.”

황보 여사의 점심상은 소박했다. 평소의 밥상에다가 수저 한 벌을 더 얹어 가지고 온 듯한데 올려진 반찬은 그저 찌개에다 나물 한두 가지다. 오민아는 주저함 없이 밥상 앞에 다가 앉는다. 해묵은 벽시계의 종이 정오를 친다. 좀 이른 듯한 점심인 걸 보니 이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가 무척 이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식사가 끝날 무렵 황보 여사는 사기 대접 둘에 승능을 담아서 가져온다. 누룽지를 대충 긁어낸 후에 솔바닥에서 우려낸 그 승능 같다. 처녀 아주머니가 나이 지긋한 어엿집 마님처럼 보인다. 옷차림이나 몸의 움직임도 그렇게 보였다.

‘노처녀는 대개들 저런 모습이 되어가나?’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세상에 사기 대접이라니 놀랍다.

황보 여사가 외출 차림을 했다. 의복이 그렇게 보였다.

“자 -, 이제 모처럼 산나물 농장이나 가볼까? 우리 민아씨 아니, 오선생도 오셨고 하니.”

그런데 어쩌서 산나물 농장에다가 자신을 슬며시 관련 시키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지금 수경재배 유리 하우스를 포함한 의좋은형제마을쪽을 아울러서 산나물 농장이라고 황보 여사는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황보여사가 앞서고 오민아가 그 뒤를 따라서 먼저 들어선 곳은 의좋은형제마을농장의 관리 채였다.

그곳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국태성이 있었다. 오민아의 시선이 국태성과 마주치는 순간 지난번 서로 손까지 잡았던 그 일이 지금 와서 또다시 오민아의 가슴에 파랑을 일으킨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었으며 이제부터 더 가야하는 건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지 오민아는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떻든 인사는 해야 올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오랜 만입니다. 민아씨.”

인사를 국태성쪽에서 먼저 해 온다. 조금은 가라앉은 듯한 그 목소리가 오민아에게는 은근하고도 정감이 있는 크기와 색깔이었다. 반가웠다. 이제 는 오민아쪽에서 뭐라고 인사말을 해야한다.

“저도요, 태성씨.”

말로 표현해야 할 인사가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몰랐다. 오민아의 입에서 인사말이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잠깐 주고 받는 인사에 두 사람은 미소를 담는다. 웃음을 나눴다. 그리고 그 웃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도 한다. 오래간만이라는 말에는 보고 싶었다는 뜻이 담겨 있어 보인다. 불과 일주일도 채 안된 기간이었는데도 국태성은 오래간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뭘 하고 계셨어요?”

황보 여사가 국태성에게 물었다. 눈앞에 놓인 광경을 보면서도 묻는다.

“칩 덩굴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산에 있는 나무라는 나무들을 온통 뒤덮었던 것들인데 늦가을에 밑동을 잘라 뺐다가 올 초봄에 거뒀었습니다.”

“요것들이 나무를 덮어 버리면 나무는 견딜 수가 없어요.”

황보 여사의 얘기다.

“올 봄에는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는 것들을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렸습니  
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관리채는 불과 수일 전에 새로 지은 후 구들을



데워서 장관 바닥과 벽체를 말리느라고 불을 때고 있는 중이어서 그 내부가 꽤나 습하고 답답했다. 밖으로 나오자 황보 여사는 나는 여기까지라는 듯이 남겨뒀던 일들을 추슬러 놓고 다시 오겠다면서 국태성과 오민아 두사람만 놔두고 돌아가 버린다.

“민아씨.”

“네?”

“수세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산 수세미요.”

“네, 언젠가 사용해 본 기억이 나요.”

“제가 가꾸고 있는 수세미외밭이 있죠.”

“수세미외밭요?”

“그렇습니다.”

“수세미외밭이라니,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네요.”

“그럼 가 보실까요?”

국태성이 오민아를 안내해서 향한 곳은 좀 멀리 봉수산을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의좋은형제마을을 벗어나면서 효녀원홍장마을에 이르면 그 마을의 초입에 있는 국태성의 거처 근처를 지나고 다시 효녀원홍장마을의 마을 회관 앞을 지나 멀찌감치 국태성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진록색의 덩굴로 된 하우스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만큼 가서 보니 수세미외밭 같다. 더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밭은 분명 밭인데 그 밭이 길다랗게 수세미외 덩굴의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니 폭이 5미터쯤에 높이는 남자 어른 키의 두 곱절은 될 듯한데

이게 웬일인가 그 안에 주렁주렁 매달린 수세미외가 그야말로 볼만하다. 수세미외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인데다 터널의 저쪽 끝은 꽤 멀어 보인다.

넝쿨에 앙증스럽게 매달린 수세미외들이 손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높이에서 대롱대롱거린다. 터널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오민아는 국태성의 손을 잡는다. 적잖은 수세미외 숫자에 가위눌린 탓으로 보인다.

“이 수세미외가 열매는 수세미로 쓰지만 즐기도 화장수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화장수요?”

“여자들이 화장을 시작할 때 뭔가 먼저 발라 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어른들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민아씨는 그런 것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화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크림 한두 가지는 바르지만.”

얘기가 화장쪽으로까지 옮겨가는 사이에 두 사람은 터널의 저쪽 편 끝에 와있다. 바깥을 보니 멀잖은 거리에 우람한 장산이 떡 버티고 있다.

“산이 무척 높네요? 마치 덩벼드는 것처럼.”

“이산은 이름이 봉수산입니다. 백제 최후의 항전지였던 임존성이 둘러쳐져 있고요.”

“백제 최후요?”

“당시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 있었던 부여의 부소산성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함락 당했지만 이곳의 임존성에서는 그 후에도 오랜 기간 싸웠

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사가 깃들인 곳이네요.”

“밖으로 나가 볼까요?”

국태성이 오민아를 계속 안내한 곳은 터널 바깥의 얼마 떨어지지 않은 봉수산 아래녘이다. 그곳에는 칩 녀굴들이 있었다. 적잖은 양이 이곳 저곳에 무더기져 있다.

“며칠 전에 저기 산기슭에서 거뒀던 것들입니다.”

“이걸 지금 가져가시려고요?”

“그건 아니고 바싹 마른 후에 즐기만 추려 가야지요.”

“그렇군요.”

“아까 그 관리채로 가져갈 것들입니다.”

조금 전 농장에 도착해서 들렀던 그 황토흙 집이 관리채라는 곳임을 오민아는 알게 되었다. 칩 녀굴들을 이곳에서 말렸다가 그리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농장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돌아섰다. 봉수산을 뒤로하고 오던 길로 되돌어간다.

“언제 올라가시나요?”

국태성이 묻는다. 오늘 온 사람한테 서울로 돌아갈 날짜를 묻는 것은 왜일까. 좀 머문 후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오민아는 느낀다.

“방학 중에 이곳 생활을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싶어요.”

오민아도 국태성의 속마음을 받아들여려는 정을 담아서 대답한다. 국태성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둘은 언제부터던가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을 잡는 것이 물론 오늘 만의 일은 아니고 이제는 자연스럽다고 둘은 함께 느낀다.

농장쪽으로 되돌아오면서는 둘이서 국태성의 거처에 들른다. 갈 때는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곳이다.

“여기가 태성씨 댁이군요?”

“어떻게 아셨죠?”

“냄새가 나요.”

“냄새라뇨?”

“태성씨의 냄새죠, 호호.”

“예? 내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구별하시죠?”

“영큼한 냄새니까 구별이 되죠.”

“영큼하다뇨?”

“가실 땀 말없이 지나치셨으니까 영큼하시잖고요.”

“아하, 그랬었군요.”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마주치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갔다. 꼭 잡는다. 국태성의 거처는 아담하고 외팔았다. 마당에서 누렁이 두 마리가 꼬리를 친다. 한 놈은 묶여 있고 다른 한 놈은 풀려 있었다. 집 내부는 주방 겸 응접실과 일고여덟 칸 짜리 방 하나로 되어있다.

“어머! 방안이 시원하네요. 여름철인데도.”

“흙벽돌 집에 굴피지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엔 포근할 겁니다.”

“굴피지붕요?”

“예, 참나무 꺾데기 지붕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군요.”

오민아는 내부를 살펴본다.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늑함을 느끼고 있다.

“여기도 장판방이네요? 방바닥은 다스하고요, 여름인데도 다스한 게 좋군요.”

방 안에 들어온 오민아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 방도 함살아궁이에 온돌방이죠.”

국태성의 대답이다.

오민아는 방을 다시 둘러본다. 천장과 벽은 단조로운 빛깔에 장식물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출입문 옆에 거울이 하나 걸려있을 뿐이다. 국태성과 오민아는 서로 거리를 조금 두고 자리를 잡아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는다.

“민아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부른다.

“네?”

국태성의 시선을 강하게 느끼는 오민아, 오민아도 또렷한 눈빛으로 국태성을 본다.

“민아씨와 내가 처음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요?”

뜬금없는 질문이다.

“강남주말농장 동호회였죠?”

국태성이 거듭 묻는다. 묻는다가 보다는 대답도 자신이 했다. 질문식 대답이다. 오민아는 기억을 더듬어 본다.

“맞아, 그때였어요. 5월의 어느 주말이었어요. 강남회원들과 함께요.”

오민아는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을 지금 짧게 줄여서 강남회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7월 중순께 오셨죠, 학생들과 함께.”

“그 후에도 태성씨가 서울에 오셨을 때 용산역에서 뵈고요.”

오민아의 눈에서 반짝 빛이 났다.

## 오민아는 의좋은형제마을로 귀농할 뜻을 밝히고

### 국태성은 이를 환영함

“태성씨.”

이번에는 오민아가 국태성을 불렀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본다.

“저도 이 고장에 와서 살까봐요.”

분명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텐데 오민아의 그 생각이 참으로 놀랍다.

“여기는 시골이랍니다. 민아씨한테는 그야말로 산 설고 물 설기도 한 시골  
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되질 않아요. 정이 들었나 봐요.”

“그러세요?”

국태성이 오민아를 또렷이 바라본다. 그리고 오민아의 눈빛을 읽는다.  
정이 들었다는 말이 옳아 보인다. 눈에서 읽힌다.

“태성씨.”

“예?”

“태성씨는 이 고장에서 계속 머무르시겠죠?”

“이곳 농장이 내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머무르겠냐는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겠다고 국태성은 대답한다. 생의 전부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은 없이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다.

“민아씨.”

“네?”

“민아씨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학교는 저에게는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어요.”

오민아가 자리를 옮겨 앉는다. 국태성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얼른 방석을 가져와서 오민아 가까이에 놓아준다. 오민아와 국태성의 시선이 다시 부딪는다. 여러 번째다. 이번에는 강한 눈빛이 교환된다. 서로간에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하다가 그대로 침묵의 시간이 잠시 흐른다.

“민아씨.”

침묵을 국태성이 깼다. 오민아는 대답 대신 국태성을 쳐다만 본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부르는 소리가 꽤나 작아서였던지 눈으로만 대답한다.

“이곳에서 민아씨와 제가 함께 활동하게 되는 것이 맞죠?”

국태성이 묻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태성씨?”

오민아의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색이다

“이 고장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라니 어떤 기운인가요?”

“쓸쓸해져가는 시골이 잃었던 힘을 되찾아가는 그런 기운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민아씨가 이 고장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 고장의 잃었던 힘을 되찾아 주는 새로운 기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까지 생각하셨어요?”

“모두들 도회지로 도회지로 떠나 버린 시골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고들 해요.”

“내 노래 한곡 지어 본 것 들어보시겠습니까?”

국태성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펴서 든다. 한 번 접고 다시 또 한 번 더 접은 종이 쪽지다.

천년 만년 금수강산 일구려고

조상님네 가꾸어온 우리촌락

서로의욕 북돋우며 살았는데

그제어제 그리내내 삭막토록

젊음네들 여기떠나 쓸쓸하고

한해거뭄 어디있나 초라할제

슬로시티 다시찾아 두루일귀  
바로이제 예전소출 앞서고자  
모두우리 함께하자 일깨우니

“민아씨.”

국태성이 자작시 낭송을 끝내고 오민아를 불렀다. 오민아는 국태성을 바라본다. 시를 낭송하는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던 오민아가 국태성과 눈을 마주쳤다.

“이곳으로 오시겠다는 마음 변함 없으신 거죠?”

오민아는 말대답 대신 고개를 그덕였다. 둘은 지금 눈빛을 교환한다. 그리고 그 눈빛을 통해서 서로의 정이 도타워지고 있음도 느낀다. 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느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아씨가 이곳에서 살아가실 집을 내가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래주시겠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뜻이네요.”

“내가 더러 까다로운 말을 쓰나 보죠?”

“들어본 적이 있달까? 그런 낱말들을 더러 섞으세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세대차가 있는 건가?”

“지금 몇이신데요?”

“내 나이를 모르셨던가요?”

“언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속으로 짐작은 해봤지만.”

“얼마라고 짐작하셨습니까?”

“서른하고..., 그 다음은 말씀해 주셔야겠는걸요?”

“마흔 쪽보다 서른쪽에 가깝다고 해 두겠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그럼 얼마니까?”

“저를 멧덩구리로 아시나봐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바뀌서 제 나이를 맞춰 보시겠어요, 태성씨?”

“뺨따귀 맞으려고요?”

“뺨은 왜요?”

“여자 나이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성씨.”

“예?”

“제가 살아갈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집입니다.”

“네? 이 집을요?”

“나는 농장의 관리채가 있잖습니까.”

“그럼 집세를 드려야겠어요.”

“사실 비워 놓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관리비를 드려야죠.”

“관리비라뇨?”

“집은 비워 놔두면 허물어진다잖습니까? 그러니 관리해 주신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집세는 관리비로 예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이사 오시겠습니까?”

“퇴직 신청이든 전근 신청이든 금방 받아들여지니까 오래잖아서 올 수 있겠어요.”

오민아는 방바닥에 손을 댄다. 다시 한 번 대본다.

“처음엔 시원한 듯하다가 조금 지나면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지죠?”

“그래요.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한여름의 따스함이예요.”

“널 모레 새에 여기 저기 손을 더 봐 놓겠습니다.”

국태성이 일어선다. 그리고 오민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 그런 다음 발길을 농장쪽으로 향했다. 이 근방이야 늘 그렇듯이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이니 지금 두 사람의 자태는 은연중 당당했다. 늙름하다고도 할 수 있다.

농장으로 와서 국태성이 오민아를 데리고 들어선 곳은 수경 재배 유리 하우스다. 지난 주말 팔짱을 껴던 기억이 둘에게 새삼스러워 지는 곳, 하우스 안에까지 팔짱을 끼고 들어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곳, 두 사람에게겐 실로 포근한 공간으로 어울리는 곳, 그런 곳임을 국태성은 알기에 오민아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하우스 안에서는 그런 국태성의 속심을 모두

아는듯하다. 두 사람을 반가워라 맞으며 산나물들이 고개를 다투어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다.

“어머! 나물들이 수풀 같아요. 나지막한 수풀이요.”

오민아가 감탄한다. 오민아는 꺾던 팔짱을 풀고 산나물한테로 손도 얼굴도 가져간다. 그리고 잎사귀들의 향내를 맡아본다.

“나물의 향이 느껴집니까?”

“그래요, 상쾌한 향이어요.”

“이것은 샵주입니다. 창출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언제 거뒀들이나요?”

“지난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해서 봄부터 자란 것들인데 이젠 연한 것만 골라서 수확해야죠.”

오민아는 나물들에게로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하우스 내부를 좌우로 위아래로 그리고 멀리 가까이 다시 한 번 훑어 본다.

“오늘은 내가 이 창출 무침 대접 좀 하겠습니다.”

국태성은 창출 싹을 솥에 내기 시작한다.

“이 싹은 며느리 주기 아깝다는 속담이 나왔을 정도랍니다.”

“태성씨가 이걸 무치시겠다고요?”

오민아가 묻는다. 그러면서 국태성의 창출 꺾는 모습을 내려다보고만 있다.

“민아씨는 구경만 하다가 간이나 한번 봐주면 됩니다.”

국태성이 하우스 안에 매달아 둔 비닐 봉지를 세서 석 장을 떼어 내더니 그 속에 창출 솥에 낸 것을 그들먹히 담는다. 오민아가 만져 가며 살펴보니

겉면은 광택이 나면서 매끄러웁고 뒷면은 솜털 같은 것으로 덮여 있는데  
앞사귀 가장자리는 가시가 돌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닐 봉지에 담은 것 셋 중 하나는 오민아가 나눠주고 하우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이제는 관리채로 간다. 늦여름의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다닌다.  
관리채에 들어서니 황토 흙향이 은은하다.

“제가 거들게요, 옆에서.”

“그러시겠어요? 그렇다면 더욱 실력 발휘를 해야죠.”

국태성은 오민아의 나물 봉지까지 받아서 모은다.

“오늘은 제가 검열도 해야겠어요, 주방이랑 지하에 있는 광이랑.”

“이거 야단났는데요?”

“야단나다뇨?”

“두 곳 모두 불합격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따금 검열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난 주말에 민아씨가 잘 정돈해 주고 가셨는데…”

국태성으로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다. 검열이라면 군대에서나  
들어 봤던 말인데 그런 낱말이 오민아에게서 지금 나오다니, 여하간 검열을  
겪게 되었다. 어떻게 검열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태성씨가 지으신 그 시가 너무 멋있어서 곡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주방과 광을 검열하겠다고더니 그 검열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노랫말도 아닌  
시구에 곡을 붙이자는 오민아가 아닌가.

“두 군데 검열을 마치면 아까 들려 주신 그 시에 곡을 붙이는 얘기를 하시  
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국태성은 오민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런데  
누가 곡을 붙인다는 것인지를 모를 일이다.

주방의 싱크대 앞에 선 국태성은 먼저 중솥에 물을 부어 가스버너에 얹고  
불을 붙여 놓은 다음 창출을 쏘아서 물에 행군다. 오민아가 국태성 옆에  
자리를 잡는다.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데쳐서 무쳐야겠습니다.”

“데칠 줄 아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좀 넣고 이것들을 넣어서 숨 죽여내면 됩니다.”

“무치는 건요?”

“소금 간만 해서 버무리면 최고죠.”

“소금만 넣는다고요?”

“그래야 상쾌한 향이 살아있죠.”

“그렇군요.”

“나물은 양념을 이것 저것 넣게 되면 나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양념  
맛으로 먹는 거라잖아요?”

국태성은 어깨 너머로 들은 대로 말하고 있어서 과연 옳은 얘기인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다. 국태성이 창출을 끓는 물에 넣고 버너의 가스 불을 끄고

데친 창출을 꺼내서 찬물에 담그고 하는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식사때에 맞춰서 소금 좀 넣고 버무릴테니까 그때 민아씨가 간을 봐 주는 겁니다.”

“주방 검열은 합격하신 걸로 해요. 다음은 지하광 검열 차례인데 그것도 합격하신 걸로 쳐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하하.”

“이제는 태성씨가 지으신 시에 곡을 붙여야죠?”

“그런가요?”

국태성으로서는 시구에 곡을 붙인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다. 자신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며 오민아도 짐작은 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지금 작곡 얘기를 꺼낸다. 그러니 주방이랑 지하광이랑은 검열을 끝낸 것이나 진배없는데 작곡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부닥뜨리게 되었다. 어쨌든지 응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작곡이라는게 나한테는 오밤중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그 노랫말을 저에게 주세요.”

오민아에게 방법이 있다니 국태성은 얼른 시구 적은 것을 꺼내서 오민아에게 준다.

“여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생이 저희 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 얘기로는 웬만한 작곡은 자신이 있대요. 가사를 짓기는 어려워도.”



국태성은 걱정거리를 내려놓게 되었다. 작곡이라고 하는 자신에게는 전혀 걸맞잖은 일감에서 벗어난다.

“제목을 달아 주세요.?”

“제목요?”

노래에 제목을 붙여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으로 봐야 옳다.

“ ‘귀농’이라고 해야죠.”

국태성은 지체함도 없이 대답한다.

“귀농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방 그런 제목을 생각해 내세요?”

“아까 그 노래 속에 ‘슬로시티 다시 찾아 두루일귀’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귀농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노래에 실어 본 구절이죠.”

귀농이라는 두 글자는 국태성이 진작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소중한 낱말이었다. 봉수산을 등에 업고 앞에는 예당호를 안고 있는 이 부락을 다시 옛날 분들이 대물려 오던 그 시절 그 농촌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 부락에 몸을 담은 뒤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은 말할 것도 없고 부락 전체에 대한 애착이 날로 커 가고 있다.

“그렇군요. 제목이 맘에 들어요. 제 맘에도.”

오민아는 펜을 찾아서 국태성으로부터 받은 시구 첫머리에 ‘귀농’이라는 제목을 적은 다음에 두 번 접혔던 대로 도로 접어서 옷도리 주머니에 넣은 다음 주머니를 단추로 채워 여민다.

벽에 걸려있던 패종이 3시를 친다. 요즘에는 들어보기 쉽지 않은 패종 소리, 그 소리가 좁지도 넓지도 않은 공간에 잔잔히 퍼졌다. 오민아의 기억으로는 황보 여사의 집에도 패종이 하나 걸려 있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리고 나중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일상 속의 옛것들이 잘 간직 되어 온 것이어서 멋스러움이 있어 보인다. 시골의 옛 정취들이 담겨 있다. 양쪽 집에 비슷한 점이 꽤 있다.

“창출 나물 맛이 어떨는지 궁금해요.”

“지금 무쳐 볼까요, 민아씨? 저녁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일찍 무쳐 놔 두면 한두 시간 숙성될 테니 괜찮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 보기로 하죠.”

국태성이 창출 데친 것을 뭉쳐서 찐다. 그런 다음에 소금 그릇과 병 하나를 꺼낸다.

“이 병에 든 건 뭐여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만 한 가지 더 넣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부드러울겠어요. 맛도 나고요.”

“민아씨가 무쳐 보시겠습니까?”

“그래 볼까요?”

오민아가 국태성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엌칼 어디 있어요?”

오민아가 묻는다.

“칼은 왜요?”

“버무리기 전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두어번 썰어 줘야죠.”

“그런가요?”

국태성이 부엌칼을 꺼내서 준다. 오민아의 모습을 볼 때 아주 신출내기는 아니어 보인다. 대충 본 손의 움직임이 그랬다. 잘 해낼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지만 아니었다.

“이제 먼저 소금에 버무리야죠?”

오민아가 국태성을 바라보며 묻는다. 알면서도 묻는 것 같다. 국태성으로 서야 그저 고개나 그덕여서 그러면 좋겠다고 대답해 준다.

이렇게 해서 오민아는 저녁 찬으로 나물 무침을 잠깐 만에 만들어 낸다. 오민아로서는 자신을 돌아볼 적에 여자지만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자기 손으로 나물을 무쳐 내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더군다나 국태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해냈으니 대단치는 않은 일이지만 혼자서 으쓱해지는 기분마저 느끼기도 한다. 이제는 시식을 해 볼 차례다.

“간 좀 봐 주세요.”

오민아가 나물 무침을 접시에 나눠서 국태성에게로 가져갔다. 자신이 두어번 맛을 먼저 보고 간을 맞춘 다음이다.

“그럴까요? 간 보는 건 내 몫이니까.”

대답은 해 놓고 국태성은 머무적 머무적하고 있다.

“제가 태성씨 입 안에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국태성은 입을 벌린다. 말대답 대신 입을 벌려 준다. 입을 벌린다는 것이 좀 축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입으로 받아서 간보기를 했다.

“어떻게요?”

오민아가 묻는다.

“내 입맛에 딱 맞습니다.”

국태성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그럼 이제 뚜껑을 덮고 숙성을 시켜야겠어요.”

“내가 무쳐서 대접한다고 했더니만…”

“누가 무치느냐가 뭐 그리 문제겠어요?”

오민아는 나물 그릇을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놔 둔다. 결국은 여자의 손끝에서 나물 무침은 끝을 냈다.

저녁 반찬으로 창출 나물을 무쳐 놓고 나서 두 사람은 산나물 건조장으로 갔다. 농장의 산나물 건조 작업은 일 년 동안 쉬 없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데치는 증기시설에서부터 건조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를 국태성은 언제나 하듯이 살펴본다. 오늘따라 오민아는 옆에 바짝 따라다닌다. 팔짱까지 끼고 서다.

“여기 있는 것들 이름이 뭐예요?”

“창출, 곰취, 그리고 머위입니다.”

“방금 무쳤던 것도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쪽 끝에 있습니다.”

“꽤 넓네요, 말리는 데가.”

“백 평은 조금 넘죠.”

“그렇군요.”

이때 황보 여사의 기척이 들렸다. 이리로 오고 있는 소리다. 오민아는 끼고 있던 팔짱을 국태성의 팔에서 푼다. 황보 여사의 눈에 띄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팔을 뺐다.

“오늘은 산채들이 더욱 소담스럽군요.”

황보 여사는 산나물들을 보면서 산채라고 부르고 있다.

“남겨 놓으셨던 일 모두 마치고습니까?”

국태성이 묻는다.

“끝내고 왔습니다. 두 분은 뭘 하고들 계셨습니까?”

두 사람이 팔짱을 낄 만큼 가까워졌음을 알겠노라는 표정이 황보 여사의 눈빛에 나타난다. 오민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렇지만 황보 여사가 그렇게 느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일은 선남선녀의 교제 같은 것이어서 책할 바도 또 흥이 될 일도 아니겠고 하니 세 사람이 웃음 뿜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방금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있었답니다.”

국태성이 말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을 고한다. 둘의 정이 깊어가고 있음을 은근 슬쩍 고백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서 국태성은 오민아의 팔을 잡아 당겨서 팔짱을 낀다. 다시 꺼 보았다. 일부러 여봐란듯이 그렇게 해보이고 있다. 황보 여사는 빙긋이 웃어 준다. 오민아와 국태성의 팔짱 끼기가 황보 여사 앞에서는 이제부터 거리낌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 선생.”

황보 여사가 오민아를 불렀다. 오민아가 황보 여사를 바라본다. 대답은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오 선생 학교 개학이 언젠가?”

“이달 19일이어요.”

“광복절 지나서구먼.”

“대개는 광복절 다음날이었는데 올해는 토요일이어서 날짜가 늦춰졌어요.”

“개학 날이 가까이 다가와야 올라가겠지?”

오민아는 머뭇머뭇한다. 서울로 올라갈 일은 생각해 두지를 앓아서다. 여기로 오는 것만 생각했었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문제는 생각 밖이었다. 그런데 지금 황보 여사가 묻는다.

“오늘이 팔월 초 하루니까 개학날까지 보름은 남았네?”

황보 여사가 또 물었다. 오늘은 양력으로 1일인데 황보 여사는 음력에서나 흔히 쓰는 초하루라는 말을 양력 날짜에다 썼다.

“그럼 그때까지 나하고 함께 있어볼까, 오 선생?”

있으라는 건지 있겠느냐고 묻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된다. 대답을 하자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황보 여사는 그럴 겨를은 주지 않고 혼자서만 말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해 봐요,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는 오민아에게 생각할 여유를 준다. 그런데 생각해 보나마나 오민아로서는 남은 방학 동안을 이곳에서 보람있게 보내자고 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빨리 돌아가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다. 그렇기는 해도 자기와 지내자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오민아는 엉거주춤하고 있다.

“일 좀 거들어 줘요.”

“...?”

“단무지 알죠? 오 선생.”

여자 나이 스무 살 넘겼다면 단무지를 모를 리가 없을텐데 황보 여사는 묻는다. 오민아는 대답 대신 황보 여사의 눈만 바라본다. 다음 말을 기다린다.

“작년 가을에 매달아 널어서 겨우내 여름내 말려놓은 무가 있는데 단무지 좀 함께 담급시다.”

귀가 솔깃해진다. 살림을 익히게 되는 일감이니 배워야겠다 싶어서 오민아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오민아는 알겠다는 말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다. 이런 계제가 아니라면 누구에게서 그런 일감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알겠다는 말로 대답을 한다.

오민아에게 겸사겸사라는 말이 생각난다. 일손도 돕고 살림도 배우게 되니 이것이 바로 겸사겸사로구나 싶다. 오민아가 여기 올 때는 국태성의 농장이 목적지였는데 오면서 바로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기야 예나 계나 아무데면 어떻겠는가, 거기가 거기 아닌가.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곳이니 국태성한테서 아주 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거야 납치가 아닙니까?”

국태성이 대뜸 항의한다. 그런 모습을 지어 보인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 집하고 여기는 누우면 코 닿을 데에 있으니 정히

보고 싶으면 찾아오면 되잖나요?”

황보 여사의 얘기도 맞는 말이니 국태성도 더는 할 말이 없다. 마음은 허전하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국태성은 창출 무침이 생각났다.

“민아씨.”

“네?”

“창출 무침을 놔 거를 나 혼자 먹기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러세요?”

오민아가 잠시 생각을 한다.

“조금 가져가야겠어요.”

오민아는 관리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나물 무침을 나눠 가지고 나온다.

“가져갈 것이 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국태성도 관리채로 간다. 이번에는 지하광이다. 국태성이 가져온 것은 산나물이었다. 유리 하우스에서 수확해다가 났던 것을 털어서 보자기에 싸 가지고 나온다.

“이것들은 곰취입니다. 곤달비라고도 하지요. 상추쌈처럼 밥을 싸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삶아 가지고 국거리나 볶음이나 찌개감으로도 쓰고요.”

국태성은 나물 보자기를 도로 묶어서 오민아에게 넘겨준다. 오민아는 보자기를 받아 들고 황보 여사를 따라 떠났다.

농장에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왔다. 오늘부터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자신의 거처를 민아씨가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수리하는 일이다. 뼈대는



그대로 두되 내부는 많이 손을 봐야할 것 같다. 그러자면 두레박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니 쇠빨도 단김에 빠라는 말이 있듯이 지체할 것 없이 연락을 하기로 한다.

밖을 보니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다. 보슬비가 온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인가? 그런 비도 있었던가? 일찍 조반을 마치고 건조장엘 먼저 가 본다. 역시 지붕은 덮혀 있다. 유리 온실 주변에 이어서 건조장도 우기에 대비해서 비닐 씌우기 전동 장치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별안간 소나기가 와도 저절로 씌워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를 직접 맞지는 않는다 해도 너무 오래 이렇게 놔두면 축축해질 수가 있어서 널어논 것들을 오늘은 모으기로 한다.

창출, 곰취, 그리고 머위 등 건조장의 것들을 한데 모아놓고 난 국태성은 이제 관리체로 갔다. 두레박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다. 연락은 전화로 하되 문서로도 보낼 생각이다. 전화로만 연락하고 놔 두면 상대방 쪽에서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에 문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회원 관련 문건 상자를 갖다 놓고 회원들에게 보낼 통지서 작성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집수리 날짜를 정해야 했다. 너무 촉박하지도 않아야겠고 또 멀리 잡아서도 좋지 않다. 그리고 경험상으로 보면 공휴일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편이 좋은데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월 12일이 화요일이니 그날이 좋겠다. 오늘이 1일 이니까 그다지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휴일을 피하면서 그리고 읍내와 역전의 장날도 아니니 적절하다고 본다. 날짜를 잡았으니 다음은 통지서 작성 차례다. 통지서에는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아야 하겠지만 두레박에서는 그대로 소집 통지서라고 하면 된다. 회원들 간에 이런 협력은 자주 있어 온 일이고 그때마다 그렇게 해왔다.

소집 통지서는 소집 목적, 일자와 시각, 모이는 장소, 준비물, 회원 명부 순으로 작성했다. 회원 명부는 으레 맨 뒤에 덧붙인다. 통지서 작성과 우편으로 부칠 준비를 끝낸 국태성은 이어서 전화 연락을 시작했다. 전화 거는 일을 미뤄서는 안된다.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 전화는 되도록 피하고 집전화로 했다. 전화요금을 줄이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면서도 그렇게 해왔다. 이쪽 것도 그리고 상대방 쪽 것도 집 전화를 사용해 왔다. 편리하다 해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일은 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국태성은 바깥을 살핀다. 오다말다하던 빗방울이 멈췄다. 이제는 움직일 차례다. 집에는 복사기가 없으니 자전거를 타고 면사무소로 갔다. 거기 가서 소집 통지서를 회원 수 만큼 복사해 오기로 한다. 걸봉을 쓰는 일은 시간 나는대로 할 생각이다. 어두워진 후의 일로 미루기로 했다.

면사무소에서는 기꺼이 복사를 해 준다. 복사용지를 가지고 가거나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수량이 적으니 이번 것은 대금은 받지 않고 기록만 해 놓는다고 했다.

면사무소 일을 마치고 다시 관리채로 온 국태성은 못 다한 전화 거는 일을 마저 끝낸다. 자신을 뺀 회원 22명 중 전화를 받지 않는 5명은 하는 수 없이 휴대 전화에다 걸었다. 이제는 일과 후에 걸봉을 써서 부치는 일만 남았다.

국태성은 다시 다음 일을 생각한다. 집수리를 하자니 거처로 가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적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관리채를 나왔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어선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맑아져 있다. 빗 기운은 땅 위도 하늘도 모두 말끔히 가셨다. 모아 났던 건조장의 산나물을 다시 낸 국태성은 거처가 있는 원흥장 마을을 향해서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는다.

거처에 오자 누렁이가 문밖에서 반긴다. 새끼를 낳았지만 어미만 나와 있었다. 바깥쪽을 한 번 둘러본다. 굴피 지붕은 언제 봐도 농장의 징표요 자랑거리라 하겠고 다만 그 아래의 토방, 그리고 배수로와 울타리가 눈에 거슬린다. 밖은 그렇고 안쪽을 살펴보니 내부는 제법 시원하면서 아늑하기도 했다. 둘러볼 때 바깥 초입의 토방과 배수로를 좀 더 탄탄히 손보고 내부는 도배를 새로 한 다음 필요한 세간살이를 요즘 것으로 들여 놓으면 될 듯 싶다. 전기배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회원들이 도우러 오는 날에 때맞춰서 전기 기술자를 불러다가 손질하면 되겠다. 전깃줄은 안전하면서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나란히 두 줄로 설치하기로 한다.

국태성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적은 후 다시 밖으로 나왔다. 울타리는 경계를 따라 두 겹으로 철망을 설치해서 바깥 울타리와 안쪽 울타리 사이에 5미터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곳에다가 소일거리 삼아서 약초나 목화 같은 것들을 재배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텃밭도 생기고 밭의 넓이 또한 그 정도면 좁잖을 것이니 그걸 경작하려면 오선생에게나 때로는 자신에게도

소일거리 치고는 꽤 바쁜 일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작물 재배라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렁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이놈 저놈과 눈인사도 나눈 다음 되돌아선다. 늘 풀어 놔 두는 어미 개가 이번에도 따라오는 것을 쫓고 다시 쫓아 버리고 해서 겨우 수컷이 묶여 있는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뒤쫓아오려는 암놈과의 실랑이가 또 한번 되풀이 된다.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의좋은형제마을 마을회관 앞을 지나면서 국태성은 자전거를 세워 놓고 메모지를 꺼내서 펴 본다. 오늘과 내일의 할 일을 적은 종이 쪽지다. 내일은 읍내 나들이를 한다고 적혀있다. 지금 쓰고 있는 처소가 얼마 동안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민아씨의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도구와 경대, 그리고 옷걸이 정도라도 거기에 들여 놔야겠고 그래서 우선 혼자서 읍내 가게들을 답사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민아씨와 동행할 생각이다. 어떤 물품을 고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물품에다 더 보탬지 뺄지는 민아씨의 생각에 맡길 일이다.

그래서 다음 날 국태성은 아침 일찍 읍내로 나가는 시내버스를 탔다. 국태성이 읍내로 향하고 있을 즈음에 황보여사의 집에서는 단무지 담그는 일이 한창이다. 황보 여사가 방 한 쪽에 얇은 송판으로 만든 큼직한 상자를 갖다 놓고 상자 바닥에 한지를 깔 다음 그 위에 소금과 버무린 등겨를 두툼하게 편 후에 단무지무를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나란히 늘어놓고 그 위를 소금과

버무린 등겨로 덮는다.

그리고 또 다시 단무지무를 늘어놓고 나서 부터는 오민아가 맡아서 같은 방법을 예닐곱차례 반복했고 그렇게 해서 상자가 그들먹하도록 채워지면서 단무지 담그는 일을 마친다. 단무지 담글 때 쓰는 길쭉막한 무는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보 여사는 직접 자기 손으로 재배를 해서 말려 까지 냈고 소금도 천일염을 몇 해 전에 염전 쪽에다가 직접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은 다음 간수 빼는 일까지 끝내 뒀었다.

일을 마무리하고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나니 오민아로서는 보람을 느낀다. 살림 한 가지를 배워뒀다는 즐거움 같은 것이 바로 그 보람이었다.

“민아씨의 몫은 잘 익은 다음에 나눠가도록 합시다.”

황보 여사의 얘기다. 잘 익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본 단무지를 오래잖아서 맛도 보고 나눠 갈 것 같다.

“오 선생.”

황보 여사가 단무지 상자를 함께 들어 간수해 놓고 와서 오민아를 불렀다. 마주서서 부른다. 오민아는 대답 대신 황보 여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황보 여사와 오민아의 시선이 부딪쳤다.

“이제부터 우리 여형제 맺을까?”

“네?”

“우리 둘이서 자매 결연을 하는 것이지, 어때?”

오민아는 황보 여사가 내놓은 갑작스런 말에 선뜻 대답하지를 못했다. 잠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뭐있겠는가.’

“맞아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겠어요, 지금부터.”

오민아의 대답은 시원시원했다. 진작부터 기다렸다는 듯 대답한다. 둘은 서로를 다가선다. 황보 여사 쪽에서 먼저 바싹 다가섰다. 그리고 끌어안는다. 황보 여사가 두 팔로 오민아를 당겨 안았다. 둘이서는 격식도 필요 없이 그러나 끌어안고 안겨가며 흔치는 않은 자매결연의 정분을 나눈다.

“동생.”

황보 여사가 오민아를 불렀다. 끌어안았던 손을 풀어서 이번에는 두 손으로 오민아의 양쪽 손목을 잡으며 부른다. 동생이라는 말로 처음 불러 본다.

“네, 언니.”

오민아의 대답도 언니였다. 서로 처음으로 언니, 그리고 동생하면서 정을 확인한다. 정다움도 나눈다. 눈빛으로 나눴다.

“태성 씨하고는 어디까지 가 있나?”

서로 자매결연의 연분을 맺고 스스럼없는 사이로 바뀌면서 처음 주고 받는 대화 거리는 오민아와 국태성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느냐가 되었다. 그래서 오민아가 대답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지금 둘 사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을 여기서 언니한테 해 주자면 빨리 판단을 해야한다. 어디까지 갔는지를 생각해 본다. 태성씨쪽 생각은 들어 볼 수도 그리고 방법도 없이 둘 사이의 관계를 혼자서 대답해야한다.

“관계라니 무슨 관계 말씀이세요?”

나름대로 대답한다. 그렇게 밖에 달리 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얼마나 서로 사모하고 있느냐는 얘가지.”

오민아는 대답할 말을 역시 찾지 못한다. 굳이 대답하자면 손을 잡았다는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하기싫은 말이니 간직만 해 뒀야 한다. 사모한다는 말로 언니는 표현했는데 그 말도 애매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모인지,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 경계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면 눈빛에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눈치로도 들키고 싶지 않다. 들킬래야 들킬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언니의 시선을 피하려고 오민아는 언니의 손을 벗어나서 주방으로 얼른 갔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공연히 물을 틀어놓고 손에 물만 적시면서다.

‘언니한테 털어놓는다? 하지만 털어 놓는다 해도 뭐라고 털어 놓겠어? 표현할 말도 없고 설명할 얘기도 없는데...’

오민아는 손만 씻고, 씻을 것도 없는데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돌아온다. 언니는 앉아있었다. 오민아도 언니와 마주해서 앉았다.

“내가 대신 말해줄까?”

이건 또 무슨 얘긴가, 언니는 끈질기다.

“그것이 왠 사랑이라는 거지.”

언니는 ‘왠’이라는 낱말을 썼다. 들어본 낱말이다. 뜻도 이해가 된다.

“사랑이란 그저 좋은 것이야.”

언니는 사모한다는 말을 한 단계 발전시켰는지 사랑이란 말로 바꿔 놓는다. 그리고 사랑을 해본 것처럼 얘기한다. ‘언니는 사랑을 해봤나 보죠?’ 라고

묻고 싶어진다. 생각해 볼 때 언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 같지가 않다. 눈망울에서 그런 느낌이 읽힌다. 그리고 언니는 지금 나와 태성씨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 -, 이제 장아찌를 담가야지.”

황보 여사가 일어섰다. 태성씨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는 것 같다.

“무슨 장아찌인가요?”

오민아가 황보 여사를 따라 함께 일어서며 묻는다.

“무말랭이 장아찌 알지?”

“어렸을 때 몇차례 먹어본 기억이 나요.”

황보 여사가 단무지 상자를 놔 둔 쪽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오더니 적어 놔던 쪽지를 꺼내서 품목을 확인해 나간다. 오민아가 보니 재료들의 가지 수가 많다. 두 세가지는 이름을 물어봐야했다. 고춧잎 말린 것, 찹쌀 가루, 엿기름 가루, 조청, 멸치젓, 마늘, 고춧가루, 실파, 생강, 통깨, 소금, 그리고 무말랭이 등등 생각보다 적잖은 가지 수다.

장아찌를 담그는 것도 눈썰미가 꽤 있어야만 그 순서나 요령을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황보 여사는 담그고 오민아는 옆에서 간간이 거들고 하면서 장아찌 담그기는 생각보다 빨리 똑딱 끝을 냈다.

“이 단지 하나는 동생이 가지고 가서 태성씨랑 같이 먹도록 하지.”

황보 여사가 장아찌를 단지 둘에다 채워 담더니 끝판에 가서 하나는 오민아에게 준다. 단무지와는 달리 장아찌는 담그자마자 쫘다. 너무 후한 인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다할 수는 없는 형편이니 오민아는 받아야 했지만



왜 거기다가 태성 씨를 연결 짓는 지를 모르겠다. 함께란 말까지 넣어서 말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청국장을 만들자고.”

언니는 다음번 일감까지 걱정해 놓는다.

청국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서울집에서 가끔가다가 그 청국장의 반대기를 사서 두부찌개를 끓여 먹었을 때의 그 특별했던 맛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런데 그 청국장을 다음번엔 언니가 만들겠다. 이 또한 오민아에게는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시각에 국태성은 읍내에서 되돌아오는 시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두 달쯤 전에는 예산역 근처에서 시내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예산읍내 분수대앞 변화가에서 타게 되었다. 국태성의 손에는 카탈로그가 여럿 들려 있다. 읍내의 가게 네 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해가며 모은 상품 목록들이다. 주방 도구, 경대, 옷걸이 등 사들여야잖나 싶은 것들을 모두 골랐다. 각각 두 벌씩을 가게 주인의 명함과 함께 받아왔다.

국태성이 시내 버스를 타고 다시 자전거로 바꿔타고 해서 농장에 왔을 때 오민아는 역시 보이지 않았다. 거처에 와서 점심 요기를 간단히 하고나서 카탈로그 두 벌중 한 벌을 자전거에 얹고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갔다. 오민아는 황보 여사와 장아찌 담그는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새를 못참고 오셨군요.”

황보 여사가 국태성을 보자 하는 말이다.

“자전거란 녀석이 이리로 방향을 잡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와야죠.”

국태성의 대꾸다. 미소를 띄며 하는 말이다.

“동생이 태성 씨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보 여사가 민아 씨를 동생이라고 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국태성은 생각한다. 그리고 민아씨가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설사 민아씨가 기다렸다고 해도 황보 여사에게 내색했을 리는 만무하니 황보 여사의 짓궂음이라는 것을 국태성은 물론 알고 있다. 자전거에 얹어 온 카탈로그는 민아씨와 둘이 있을 때 보여주기로 한다. 국태성은 생각을 해 본다.

‘황보 여사의 말처럼 민아씨가 보고 싶어서 그 새를 못 참고 여기에 지금 내가 와 있는가? 그게 아니고 누구나 예사로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국태성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어쩔든 간에 왔으니 한 자리 차지하고 앉는다.

“태성씨.”

황보 여사가 국태성을 불렀다. 오늘은 태성씨라고 부른다. 국선생이 아닌 태성씨가 되고 보니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 졌음을 느끼게 한다.

“예?”

국태성이 대답했다. 황보 여사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민아 양이랑 내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세요? 잘 하셨네요.”

“그렇다면 태성씨가 나더러 뭐라 불러야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뭐라 불러야 좋을지를.”

국태성과 오민아의 시선이 부딪는다. 말 속에 말이 들었다더니 황보 여사의 지금 그 말 속에 말이 들어 있음을 국태성은 안다. 민아씨인들 어찌 못 알아들었으랴 싶다.

“잘 알겠습니다.”

국태성은 오래 지체하지 않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일어섰다. 한번 들러서 얼굴도 비쳤으니 이곳 불일은 다 본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시려고요?”

황보 여사가 묻는다.

“농장 쪽에 벌여 논 일이 많아서요.”

용무 반 핑계 반으로 대답하고 국태성은 황보 여사의 집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온 국태성은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잡아 보다가 우선 농장의 유리 하우스에 가보기로 하고 카탈로그를 도로 자전거 앞쪽 바구니에 실었다. 그리고 페달을 힘껏 밟는다.

유리 하우스 안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보인다. 햇빛과 내부의 습한 정도나 온도, 그리고 공기의 드나듦, 모든 것이 적당하다.

## 오민아와 그리고 국태성

### 이들 두 사람의 짧은 농장 체류 생활

그후 농장에 열흘이 지나고 받아 났던 날이 왔다. 8월 12일, 국태성의 거처를 오민아의 생활에 맞도록 수리하는 날이다. 농장쪽 먼저 새벽에 한차례 다녀온다. 두레박 회원들에게는 연락이 닿아 있으니 모두들 일찍 올 것이고 민아씨도 오늘은 황보 여사의 집에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태성은 혼자 공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제 수리를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곳이 민아씨의 생활 공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카탈로그의 물품들과 현장을 대조하고 있는데 오민아가 도착했다. 황보 여사와 함께다.

“많이 기다리셨죠?”

황보 여사가 인사를 먼저 한다.

“긴긴 세월 같았습니다.”

국태성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러셨겠어요, 너무 오래 동생을 붙잡아 뒀으니.”

황보 여사도 빙그레 웃어 보인다.

오민아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다. 국태성이 그것을 받는다. 왼손에 카탈로그 봉투를 들고 있어서 오른편 손으로 받아든다.

“꽤 묵직한데 이게 뭐니까?”

국태성이 오민아를 보며 묻는다.

“동생이 한몫 챙겨 온 거랍니다.”

오민아에게 국태성은 물었는데 대답은 황보 여사가 했다.

“무말랭이 장아찌를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오민아가 내용물을 일러줬다.

“집 단장을 하신다기에 나도 힘을 보탤 일이 있을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황보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민아와 황보 여사가 도착하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두레박 회원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회원들이 모두 모이면서 토방과 배수로 작업, 도배, 장판 바르기가 시작되고 잇따라 전기 기술자와 수도, 그리고 철조망 올타리 업자가 와서 그들대로의 일감을 찾아 움직였다.

“내가 읍내에 나가서 골라본 것들입니다.”

국태성이 카탈로그 봉투를 오민아에게 보여준다.

“꽤 많네요. 가지수가?”

“그 카탈로그에 치수도 적어왔고 봉투 속에 줄자도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골라 보세요.”

오민아는 카탈로그를 꺼내서 잠시 보더니 다시 봉투에 넣는다. 국태성은 무말랭이 장아찌라는 것의 보자기를 풀어서 단지 뚜껑을 한 번 열어서까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도로 묶는다.

“동생, 이리 와 봐.”

작업장 뒤편 쪽에서 굴피지붕 너머로 황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민아가 황보 여사쪽으로 가고 난 뒤 국태성은 무말랭이 보따리를 자전거에 얹어 놓은 다음 작업 현장으로 갔다. 전기 시설의 경우 두꺼비집 등은 그전에 들 썼던 옛것의 멋을 느껴볼 수 있는 골동품류를 구해다가 그것을 쓰도록 일러 냈는데 실지로 잘 설치되고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철망 울타리 작업을 가본다. 안팎으로 해서 이중으로 두를 울타리 중에서 먼저 바깥쪽 것이 설치되고 있다. 거지반 끝나가고 있었다. 작업의 진도가 더디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철망 공사와 전기 공사는 업자들을 불러 들인 것이어서 그것 먼저 살펴봤고 이제 황보 여사와 오민아가 있는 뒤편으로 간다.

뒤편은 앞뜰의 일여덟 곱절이 훨씬 넘는 마당이다. 그곳에는 누렁이 수컷 한 마리가 묶여 있고 다른 한 마리 암컷이 새끼들을 데리고 있다. 와서 보니 오민아와 황보 여사는 강아지들 구경에 빠져 있었다.

“내가 오늘은 이 녀석들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어미의 곁에서 움직이는 강아지들, 그것도 여섯 마리나 이젠 제법 걸음마 연습 중이니 황보 여사가 감탄할 만도 했다.

“한 마리는 묶여 있네요?”

저쪽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는 놈을 보면서 오민아가 하는 말이다.

“저 녀석은 요것들의 말하자면 아버지한테 묶어 뒀야죠.”

국태성의 얘기다.

“함께 어울리고 싶을텐데...”

“아닙니다. 수컷은 풀어 놓으면 밖으로만 쏘다닙니다.”

“...”

“동생, 안으로 들어가 볼까?”

황보 여사와 오민아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국태성도 뒤를 따른다.

국태성은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착수 시켜 놓은 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오민아는 봉지에서 카탈로그를 꺼내서 줄자로 가구와 방의 규격을 맞춰가며 들여 놓을 것들을 고른다. 카탈로그 속에서 골라내고 있다. 국태성은 곁에 있기만 한다. 따라만 다녔다. 오민아가 카탈로그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그것들의 용도와 자신의 안목과를 맞춰보고 하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게 들여놓을 물건들이어요, 언니.”

오민아는 골라낸 것들을 카탈로그에 동그라미 쳐서 국태성이 아닌 황보 여사에게 보인다. 그리고 황보 여사를 바라본다.

“살림살이가 아주 단출하군.”

카탈로그를 보고 난 황보 여사의 말이다.

“꼭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하기야 살림이 많으면 번거롭기만 하지.”

“이거면 충분해요 저는.”

오민아는 이 말 끝에 이번에는 국태성을 바라본다.

국태성이 카탈로그를 받아서 사들여야할 물품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하나씩 읽기까지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해당되는 카탈로그를 따로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다. 두레박 회원들이 도맡아서 공사가 끝나갈 즈음 그 마무리를 살필 겸 오민아와 국태성, 그리고 황보 여사 세 사람은 안팎 울타리 사이의 공터를 걷고 있다. 철망 공사는 바깥쪽 것은 이미 끝냈고 안쪽 것도 거의 다 끝나 가고 있다. 울타리 공사도 이제 끝맺음 되는 단계다.

“구멍이 나있네?”

울타리 밑이 뚫린 것을 본 오민아가 궁금해 한다.

“암캐랑 강아지들을 위해서 뚫어 놨습니다.”

국태성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구멍이란 것이군.”

황보 여사의 말이다.

“안쪽 울타리에만 서너 곳 만들어 놨습니다. 열어 놨다가 다시 잠갔다가 할 수 있게.”

오민아는 말로만 들던 그 개구멍을 지금 처음으로 이곳에서 보게 되었다. 그것도 일부러 만들어 놓 소위 개폐식 개구멍이다.

“민아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부른다. 오민아와 국태성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세간살이를 사러 가야죠?”



국태성의 말이다.

“세간살이요?”

오민아가 묻는다.

“그야 동생 세간이 아니겠어? 이 집에서 살아갈 세간살이.”

황보 여사가 끼어들어 대답을 했다. 오민아야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내일 함께 가지죠. 평일이니 가게 문들도 모두 열어 놓을 테고요.”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말했다.

“저도 함께요?”

당연한 것을 오민아는 묻는다. 물으나 마나 함께 가야한다. 한 사람은 가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또 한 사람은 물건들을 고를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가 미리 봐 뒀던 가게로 민아씨를 안내하면 민아씨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계제의 읍내 구경도 하고요.”

“구경도요?”

“그래야죠. 우리나라 안에서 으뜸 간다는 갈비 맛도 좀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맞아요. 소문난 갈비집이 있다는 말은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언니도 함께 가요.”

오민아는 옆에 있는 황보 여사를 바라보면서 손목까지 붙잡는다. 황보 여사는 대답은 없이 들은 척만 해 두는 모습이다.

이날의 집 수리 공사는 오후 서너 시 쯤에 끝이 나고 오민아가 황보 여사를 따라 돌아간 뒤 국태성은 방에 균불을 지폈다. 삭정이를 나무 넣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밑불 삼아서 통나무 서넛을 얹어 둔다. 벽과 장판의

녹녹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태성은 이 거처에 별채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의좋은형제마을농장의 별채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꼬박 이곳에 썼는데 이제는 약속도 있고 하니 농장으로 갈 시각이다. 그래서 국태성은 자전거에 올랐다. 농장에는 약속대로 손님이 관리채 앞에 이미 와 있었다.

“국 사장님이십니까?”

손님은 국태성을 사장이라고 불렀다.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세상이라 선지 이 손님도 그렇게 부른다.

“예, 제가 국태성입니다.”

국태성은 무슨 일로 온 누구인지를 묻지를 않는다.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록수 말씀하신 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국태성에게 상록수 두 그루가 쓸 일이 생겨서 사나흘 전에 업자에게 사진을 요구했었다. 이쪽에서는 견본사진을 부쳐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선 직접 사진첩을 가지고 사람이 왔다. 사진들은 매수가 적잖았고 거래처를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그루만 필요하신 건가요?”

업자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수목장에 쓰려고요.”

용도는 묻지를 않았지만 국태성은 곁들여서 대답했다.

“수목장요?”

업자는 물으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곧 알아챘다는 눈빛을 보낸다.

사진 속의 나무 농장은 무척 규모가 있어 보였고 여러 모양과 크기와 종류의 나무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국태성은 그것들 속에서 마음에 쏠리는 것으로 돌을 고른다. 암수가 있는 상록수로 한 쌍을 택했다. 왜 암수가 있는 것을 골랐는지는 자신도 모른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시켰다.

업자는 국태성이 골라낸 사진 속 나무의 번호를 확인하더니 수첩에 적는다. 국태성과 업자는 나무를 옮겨 심을 날짜와 위치까지 결정을 했고 값을 흥정하는 일도 마친다. 그리고 업자 측에서 나무를 운반해다가 심어주고 그날로 대금을 지불하되 나무가 새 뿌리를 내릴 것까지를 그쪽이 보장해 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서도 작성했다. 국태성은 업자에게 저녁 대접을 하겠다고 했지만 업자는 사양하고 바쁜 걸음으로 돌아간다.

어느새 서녘 하늘의 해는 기울어 갔다. 국태성은 관리채 안으로 들어와서 작부 일지를 편다. 일과 후에 작성을 하지만 이따금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다음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시로 작부 일지를 펴 보는 것은 국태성에게는 일상의 일이 되어 있다.

한편으로 황보 여사의 집에서는 이날도 오민아가 살림을 배우고 있다. 배우고 싶어하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황보 여사의 집에만 오면 늘 그렇게 되어간다. 오늘은 청국장 담그는 일이 시작되었다. 열흘쯤 전에 무말랭이 장아찌를 만든 다음 정해논 그 일감이다. 황보 여사는 준비를 해 놨던 듯이 움직였다. 재료며 도구들을 척척 가져다 놓고 있다.

“내가 진작에 콩은 불러 냈지.”

황보 여사는 누가 거들 것도 없이 서너 말 들이 함지박 하나를 들고 온다. 그 안에 불린 콩이 반의 반쯤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두지 대두 콩.”

황보 여사는 다시 가더니 이번에는 대짜 압력 밥솥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었다.

“이리로 와 봐, 동생.”

황보 여사는 오민아를 더 가까이 부르더니 압력 밥솥에 불린 콩을 넣게 하고 물을 붓게 하고 덜어내게도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전원에 연결하도록 시킨다.

“압력 밥솥을 쓰면 영양 손실이 적어서 최고야.”

황보 여사는 그 후로 입으로는 말해가며 몸을 움직여서 한 시간도 넘게 삶고 뜸들여 콩을 익혀 낸 후 그 삶은 콩을 삼베 보자기에 싼 다음 이제부터는 발효시킬 차례라면서 그 삼베 보따리를 비닐을 깐 나무 상자에 담더니 삶은 콩을 비집고 서너 군데에 벗짚 뭉치를 듬성듬성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나무 상자를 오민아와 맞들고 미리 정해 놓은 장소인 듯한 곳에 갖다 놓고 돌아온다.

“이제 삼사일 후면 청국장만들어 지겠지.”

황보 여사의 말이다.

오민아는 청국장 만드는 방법을 공책이나 필기구를 쓰지 않고 머리 속에 적어 놓는다. 이 정도는 이삼년 후일지라도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 개학

날짜를 다시 생각해 보니 아직 일주일은 남았다. 8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그러니 오늘 담가서 띄운 청국장 맛을 보고 가게 되었다. 그건 그렇고 2학기가 되면 정든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다시 허전해져 온다. 그런 마음을 요즘에는 한시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산과 시내, 그리고 논밭이 어우러져 있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꿈이 되어 버렸기에 도회지와 인연, 그리고 도회지 직장 여성이라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인연을 끊는 중이다. 미련 같은 것도 버렸다.

황보 여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오민아는 다음 날 국태성을 따라 읍내에 갔다. 예산읍내다. 오전 일찌감치 별채로 온 다음 국태성과 함께 시내 버스를 타고 읍내 정류장에서 내린 후에는 다시 걷고 해서 가구점 거리인듯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는 국태성의 뒤만 오민아는 따른다.

둘이서는 이런 것이 어떠냐, 저게 좋겠다면서 가구들을 골라낸 다음 가구점 주인에게 연락 전화와 도착시켜 줄 약도를 그려 주고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배달해서 정해진 자리에 놓아 줄 것까지를 부탁해 놓고 이제는 갈비집으로 갔다. 나라 안에서 으뜸이라는 그 식당이다. 일부러가 아니었는데도 점심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식당에 도착을 했고 소문난 그대로 맛깔스러운 점심을 즐겼다. 오민아는 점심 식사 후에는 근처의 상설시장에서 장보기도 했다. 적어온 쪽지를 보면서 묻고 돌아다녀 가며 필요한 것들을 샀다.

읍내 일을 마치고 농장으로 돌아올 때는 장터에서 시내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를 칠팔 분 정도,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륙 분, 그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삼 십여 분,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는 이 십분 쯤이 걸렸다.

“별채로 갈까요, 우리?”

관리채 앞에 이르러서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묻는다.

“별채요?”

“민아 씨가 사용할 집을 그렇게 부르기로 나혼자 생각해 뒀는데 어떻습니까?  
별채라는 이름이.”

오민아는 잠시 생각해 보는 것 같더니,

“마음에 들어요.”

국태성을 쳐다보며 대답한다. 국태성의 거처가 오민아에게도 별채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 불리게 되었다. 오민아와 국태성은 별채로 가고 있다.  
장 박은 물건들은 관리채에 일단 보관해 두고서다.

“태성 씨.”

오민아가 국태성을 부른다. 국태성은 말대답 대신 오민아를 바라다만 본다.  
눈끼리 부딪쳐서 눈대답을 한다.

“서울 댁에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국태성은 금방 대답한다. 왜 한 달에 한 번 씩을 꼭 가야하는지가 오민아로  
서는 궁금한데

“초등학교 동기생 모임이 매달 있어서요.”

국태성은 그 이유까지 이어서 말했다.

“이달에도 가시겠네요?”

“월말께 가야죠. 저쪽에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땐 저도 개학을 해서 서울에 있겠네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국태성은 지금 오민아의 손을 잡고 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난 후부터 잡았던 손이다. 서로 맞대서 잡은 손에서 힘이 느껴지고 있다.

별채까지 가는 길, 보는 이들도 없지만 본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서로의 관계가 그런 것을. 이제는 급기야 서로의 정이 무르익었다고 해야 옳다. 손바닥끼리 맞대서 잡은 것이 이들에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뿐더러 남녀 간의 정분 또한 더욱 두터워만 가는 중이다. 이런 정감을 둘이서는 아끼려고 한다. 다정도 병이런가 라는 말이 생겼듯이 바로 그 병의 문지방을 지금 넘을까 말까하고 있음이 아니던가. 병이라는 말은 이럴 때는 공연한 말이리라. 욕망과 자제의 물결이 부딪다가 연정을 실은 연락선이 그 위에서 일렁 거리고 있다.

오민아가 이제 미소 짓는다. 자신이 여길 떠나간다 해도 태성씨가 열 댓새 쫓으면 서울에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 물론 훗날에는 자신이 이곳으로 이사해 오다시피 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의 일이고 서울에서 태성 씨와 재회하게 된다니 마음을 설레게 한다.

“민아 씨.”

국태성이 불렀다.

“네?”

오민아는 국태성을 쳐다보며 대답한다.

“우리 서울에서 다시 만날 날짜랑 장소를 지금 정해놓을까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국태성은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국태성은 대접이란 말을 썼다. 대접한 것도 없었는데 대접이라고 한다. 한 달쯤 전에 국태성과 서울에서 만났던 일이 오민아에게 떠오른다. 그때 초라하게 접대한 일이 지금 왜 새삼 아쉬워지는지 모르겠다. 국태성이 말하는 지난 번의 그 대접이라는 것이 충무로 골목에서 파전 반대기 한 판에 쓰디쓴 잔술로 소주 두세 잔이었는데 국태성은 그것을 대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둘이서 함께 걸으며 잡고 있는 손과 손에는 온기나 냉기 같은 것을 느낄 그런 시간은 벌써 넘겼다. 두 사람의 손바닥을 통해서 둘의 체온이 이미 섞였기 때문이다. 오민아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번에도 거기로 갈까요?”

국태성이 말했다. 묻는다.

“다른 데는 없을까요?”

오민아가 되묻는다. 국태성이 말하는 거기란 바로 서울의 충무로, 충무로의 그 파전집이라는 것을 오민아는 안다.

충무로의 그집은 평일이면 직장인들이 퇴근 길에 동료들 간에 만나서 하루를 마감할 하던 먹자골목 안 부침개 집인데 지금의 오민아에게는 마음에 썩 들지를 않는다. 그때는 오민아의 안목에 맞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오민아가 말하는 다른 데가 어디에 있는지 국태성으로서는 그저 막연할 뿐이다. 그러나 오민아에게 되물을 일은 아니고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해본다. 생강



해 본들 떠오를 리 없다. 그 먹자골목이라는 곳 말고는 서울 거리에서 가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들어서 걷고 있는 저쪽의 벤치가 눈에 들어온다. 두 사람은 거기로 가서 앉는다. 잡았던 손들을 놓고 나란히 앉았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벤치가 오늘은 돌을 붙들어 앉혔다. 벤치에 앉아서도 국태성은 서울 갔을 때 오민아와 만날 장소를 생각한다. 그곳이 어디나라기 보다는 어떤 장소여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다. 민아 씨가 좋아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면 좋을텐데 자신의 주변머리로선 그러한 곳을 궁리해 낼 수가 없으니 오늘은 일단 미루어 두기로 한다.

“태성 씨.”

오민아가 국태성을 부른다. 쳐다보면서 불렀다. 국태성은 오민아를 향해 고개를 돌려 이번에도 눈만 부딪쳐 대답한다. 오민아의 부르는 소리가 나지 막해서였던지 국태성은 눈으로만 대답했다. 눈길끼리 마주쳐주고 있다.

“결혼은 언제 하세요?”

느닷없는 질문이다. 예사로이 해 온 질문이 아닌 것도 같고, 실로 중요하고 눈앞에 놓인 인생사인데..., 잠시 생각을 한다.

“민아 씨가 중매를 서 주실 때 하겠습니다.”

국태성이 생각해 낸 대답이다.

“어떤 여자를 원하시는데요?”

오민아는 묻기만 한다.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대답의

범위는 넓었다.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다. 국태성은 어떤 여자  
라야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다. 민아 씨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답을  
내놔야지 하면서 자신에게 묻는다.

“민아 씨 같은 그런 여자라면 좋겠습니다.”

국태성은 이번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답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그  
답이 금방 입에서 나와버렸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보니 오민아의 얼굴  
이 발그레해져 있다.

오민아가 생각할 때 국태성과 손까지 잡고 걷기 까지의 길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긴 여행처럼 느껴 진다. 그 여행의 어디쯤에 지금 와 있는가를 생각  
해 본다.

‘이제 그 여행의 끄트머리에 와 있음인가? 혹시 오늘이 그 여행의 끝 날이  
라면 태성 씨와 잡고 있는 손을 지금 놔야 하는 것인가?’

“민아 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불렀다. 그렇지가 않다는 듯이 부른다. 오민아는 국태  
성을 바라본다. 오민아가 고개를 돌려 국태성을 보니 국태성의 시선은 그냥  
정면에 가 있다. 오민아는 국태성의 옆모습을 본다.

“이제 가지지요.”

국태성이 일어선다. 오민아도 일어섰다. 국태성이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일어서는 것 같다고 오민아는 느끼면서 함께 일어선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별채로 걷기 시작할 때 오민아의 휴대 전화에 신호가  
왔다. 곁에 있는데도 국태성에게는 아무런 신호 같은 것이 없었고 오민아만

이 혼자 진동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윗도리 호주머니 속의 휴대 전화를 꺼내서 열어 본다.

가구들을 차에 싣고 잠시 뒤에 떠나겠다는 가구점 쪽의 문자 통지가 찍혀 있다. 별채에 도착하고 나서 멀지 않은 시각에 가구가 도착할 것 같다는 오민아의 계산이 섰다. 오민아는 국태성을 쳐다본다.

“가구점에서 온 문자겠죠?”

국태성이 묻는다. 오민아한테 문자를 보낼 만한 곳은 지금으로서는 가구점 밖에 없다는 것을 국태성은 알고 있다.

“예, 가구점이 맞아요. 우리가 별채에 가고 나면 곧 가구들도 도착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걸음의 속도를 낸다.

걸으면서 오민아는 생각한다. 방학 동안에 여러가지 배우기도 하면서 추억 속에 남을 만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보람도 있었음을 느낀다. 황보 언니와의 만남도 그렇고 더군다나 태성씨와의 인연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행복 그 자체라고 해야 옳다. 그리고 개학 후 서울에서 태성씨와 다시 만나면 그때 쯤에 상의할 일이 있다. 이쪽 지역으로 전근 오는 문제다. 퇴직이냐 그보다는 전근이냐의 문제다. 퇴직하기로 마음 먹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 속에는 전근이라는 또다른 묘책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곳 농장 가까이의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오는 편이 여러가지 형편상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태성 씨

의 생각도 물어보고 싶다.

“민아 씨.”

오민아의 생각을 제치고 국태성이 부른다.

“네?”

“지금 몇 시입니까?”

별다른 까닭도 없어 보이는데 시각을 묻는 국태성이다.

“세 시 반 좀 못 되었어요.”

오민아가 휴대 전화를 열어 보고 대답한다. 해는 서쪽 하늘의 열린 구름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두 사람이 별채에 도착해서 안팎을 한바퀴 돌아보고 있을 때 농장 편 저쪽에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 등을 볼 때 가구점 트럭이 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구가 도착하고 자리가 잡혀서 놓이고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끝을 내고 가구점 사람들은 다음 할 일 때문인 듯이 바빠 돌아간다. 오민아가 가구들을 여닫아 보고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하는 동안에 국태성은 철망 울타리 길을 따라 멍멍이 암컷·수컷과 강아지들, 그리고 철망과 사료 공급 장치를 점검한다. 사료 공급 장치는 멍멍이들이 키가 큰 어미는 어미대로 키가 작은 새끼들은 새끼들대로 사료나 물을 놈들이 먹고 싶은 만큼씩만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급식 및 급수 장치다. 오늘도 잘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저것 점검을 마친 국태성이 주방 겸용 응접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오니

먼저 들어와 있던 오민아가 방석을 내려놨다. 가구점 거리에 갔을 때 다섯을 장만해 왔다가 그중에서 둘을 장판방에 깔아놓는다. 그리고 주방쪽으로 간 오민아는 전기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플러그를 벽의 콘세트에 꽂고 커피를 탈 재료와 컵이라든지를 갖다 놓는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리저리 움직이던 오민아가 이제는 모두 끝냈구나 싶은 듯 방석 하나를 차지하고 국태성 앞에 앉았다.

“이집 주인이 민아 씨죠?”

방금 앉은 오민아를 보면서 국태성이 묻는다.

“제가 주인이라고요?”

오민아가 의아해 한다. 오민아의 눈이 국태성의 눈과 부딪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숙생이 되면 어떻겠냐는 애깁니다.”

“하숙생요?”

“그렇습니다. 하숙비를 내고 먹고자고 하는 그 하숙생 말입니다.”

생계망게한 하숙생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대꾸는 해야 하니 오민아는 잠시 생각을 한다. 그러더니 대답을 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세를 내지 않기로 했으니 그 대신에 태성 씨한테서 하숙비를 받지 않기로 해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이며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집세와 하숙비, 그리고 지난 번에도 얘기 되었던 관리비에 얽힌 계산 관계가 어떻게 셈이 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든 또 저렇게 되든 어떻겠냐는 표정들이다. 이 집의 주인은 국태성이다. 여기가 그의 거처였다. 그런

데 지금 국태성이 여기서 하숙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 또한 분간하기 어렵다.  
요지경 속이다.

그건 그렇고 한 지붕 아래서 남남간에 거기에다 젊은 남녀가 함께 살아가려는 문제는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하다. 아무리 장성했다고 해도 양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양쪽 부모님을 여기까지 모셔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서울에 다녀오면서 차츰차츰 결정짓기로 하고 국태성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생각을 끝낸다.

“서울엔 언제 가시나요, 민아 씨.”

국태성은 대화의 방향을 돌려 잡았다.

“개학일을 이삼 일 앞두고 가면 되겠어요.”

“나도 월말께 동기생 모임 날짜에 맞춰서 가야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용산역에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는 용산역이 우리에게만 만남의 장소가 되었나 봅니다.  
하기야 용산역이 장항선 종점이니까 안성맞춤이죠.”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날 장소를 이번에도 용산역으로 정한다. 만난 다음에 갈 곳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까지는 두 사람 모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주전자의 물이 저 혼자 끓는 소리를 내다가 멈췄다. 오민아가 커피를 탄다. 국태성의 커피 취향이야 이미 알고 있으니 물어볼 것도 없이 물을 먼저 컵에 부은 다음 재료들을 넣어 짓고해서 둘 앞에 한 컵씩 놓는다.

“태성 씨.”

국태성이 커피 잔을 비우는 때를 기다려서 오민아가 국태성을 불렀다.  
국태성은 자주 그렇듯이 오민아에게 눈을 부딪쳐서 대답한다.

“중매를 서 달라고 하셨죠? 저한테?”

“내가 그랬던가요?”

“제가 중매를 서드리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잖나요?”

“맞아요, 민아 씨와 같은 그런 여자면 좋겠다고 했었죠.”

“저와 같은 그런 여자라면 저도 포함되는 거네요?”

국태성은 눈만 깜빡인다. 대답은 없이 눈만 깜박이는 국태성의 그 눈에 담겨 있는 대답을 오민아는 읽으려고 한다.

“국 선생께서 댁에 계신 것 같은데?”

이때 황보 여사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황보 여사는 기척도 없이 언제 현관과 그리고 주방, 응접실을 지나서 왔는지 미닫이 문을 스르르 열고 있었다.

“오셨어요, 언니?”

오민아가 반가이 인사를 한다. 일어서면서 했다.

“여기가 동생의 집이 되었군. 동생이 날 맞아주는 걸 보니.”

안방으로 들어서는 황보 여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숙을 들기로 했습니다.”

대답은 국태성이 했다.

“참 잘 되었네요, 자취보다는 하숙이 낫죠.”

황보 여사는 판전을 부려서 말한다. 그리고 웃어까지 준다.

“내일 옆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는데 동생더러 구경 가져고 왔지.”

황보 여사가 오민아를 보며 말했다.

“혼례식이라고 하셨어요?”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네, 동생이?”

“혼례식을 예식장이 아니고 마을에서 한다고요?”

국태성이 묻는다.

“예, 신부네 집 앞마당에서 치르는 전통 혼례라니 동생이랑 구경 좀 해 볼까 싶어서요.”

“어느 마을인가요?”

국태성이 거듭 묻는다.

“향교 마을입니다.”

향교 마을은 이 동리에서 황보 여사의 집이 있는 근처를 지나 예당호를 오른 편으로 바라보면서 읍내쪽으로 가자면 왼편으로 부딪치는 첫 번째 마을이다.

“저의 집으로들 가지지요.”

황보 여사가 앉지도 않고 말했다. 오민아와 국태성은 갑작스런 황보 여사의 얘기지만 일어선다. 아침에 황보 여사의 집에서 나온 오민아는 저녁이 되어가니 어차피 돌아가야했고 국태성은 외출 삼아 따라 나선다.

황보 여사의 집에 국태성과 오민아가 도착하니 거기에는 여인네들 대여섯이 있었다. 고희는 되어 보이는 노년층들이다. 내일 옆 마을에서 있을 혼례식에 참석하려고 모인 노친네들이라고 황보 여사가 귀뜸해 준다. 혼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앞당겨서 하루 전에 왔으니 꽤 거리가 있는 데서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성의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게하는 할머니처럼 보이는 아주머니들이다. 혼인집에는 손님이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탄 동네에 떨어져 있는 황보 여사의 집에까지 와서 묵는다니 그것도 흔치는 않은 일 같아 보인다. 그건 그렇고 국태성은 지금 돌아서는 편이 나을 성싶다는 생각을 한다. 올 때는 별 생각없이 따라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 오래 머무를 사정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오민아와 국태성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민아도 국태성의 마음을 읽는다.

국태성은 발길을 돌린다. 오민아에게는 눈빛으로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돌아선다. 오민아를 데려다 놓고 가는 셈이 되었다.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어 느새 다가왔다.

“내일 다시 오시겠네요?”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묻는다. 국태성이 생각해 보니 오민아의 말마따나 내일 또 와야한다. 전통혼례식을 구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부네 집 앞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혼례라니 꼭 한번 봐 둘 만한 구경거리라고 할 수 있다.

황보 여사는 지금 그쪽 편 손님들과 함께 있으니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것 없이 국태성은 오민아만 남겨 놓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국태성은 생각한다. 멀지 않아 저쪽 별채에서 하숙생이 되어 민아 씨한테 얹혀서 살겠노라고 해 뵈는데 꺼림칙한 면이 있다.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왜인지 그렇다. 물론 그때 가서 민아씨

혼자 별채에 있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외딴 곳에 여자 혼자서 라는 것도 떨떠름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처녀 주인집에 총각 하숙생이라고 해서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도리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이 정도에서 생각을 접는다.

요 며칠 전에 거처였던 별채에서 자작시 한 수를 낭송하고 그런 다음에 이곳 관리채에 와서 민아씨에게 작곡을 맡겼던 일이 생각난다. 맡겼던 게 아니라 민아 씨가 맡겼다고 했었다. 국태성은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시 한 수를 다시 지어서 적어 본다.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귀농이라는 제목을 먼저 단다. 제목이 불현듯이 생각나니 제목부터 쓴다.

## 귀농

귀농이란 이 낱말 중  
귀를 풀이하어  
돌아가란 말일거나  
곧 그말이 아님이고.

귀농이란 말이르되  
귀를 일컬어서  
다름아닌 그곳으로  
가려하는 욕구이니.

귀농이란 두 날자를  
연방 새겨보매  
선대 산야 이곳에 다시 앉혀  
어우르곤 함이로세

국태성은 일어선다. 지은 시는 접어서 주머니에 잘 넣고 관리채에서 나왔다. 그리고 유리 하우스로 간다. 유리 하우스에는 하루에 몇 차례, 많을 땐 일여덟 차례씩 들른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간다지만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가느냐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나물들이 너무 뵈서 옷자라거나 또는 수확할 날짜를 놓쳐서 익세지는 일이 없도록 매일 매시 살피면서 수확 시기와 방법을 맞춰가며 숙아내거나 뽑거나 자르고 하자니 한날 한시도 손을 땠 수가 없다.

유리 하우스를 살피고 났으니 이제는 별채 쪽으로 가 보기로 한다.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해를 안고 국태성은 자전거에 올라 별채로 왔다. 오민아는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가 버렸으니 이제는 혼자가 되었다. 불과 한 시간쯤 전에 오민아와 나눴던 말들이 생각난다.

오민아가 중매를 서 주는 여자라면 결혼하겠다는 말, 오민아와 같은 그런 여자라면 좋겠다고 한 말, 그리고 오민아가 ‘저와 같은 여자라면 저도 포함 되네요?’라고 묻던 말이 생각난다. 이말 저말 엮어보면 오민아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속심을 결국 오민아에게 내비친 셈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 실제 마음은 어떤가. 지금으로서는 이렇다라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속제

로 남겨 놓고 만다.

별채에서 하룻밤을 보낸 국태성은 다음 날 혼례식이 있는 마을로 곧장 향했다. 혼례식장으로 가서 신부 신랑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서 전통 혼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경도 해야하니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예식장에 갔을 때는 벌써 그곳은 준비를 모두 끝내고 혼례식이 곧 치러질 듯이 보였다.

팜플릿도 준비 되어 있어서 펴 보니 신랑과 신부가 마주 서서 혼례를 치르는 장소를 가리켜서 초례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놓인 다리가 꽤 긴 상을 초례상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위에 촛대, 솔가지와 대나무, 밤, 대추 같은 것을 올려놓은 사진을 담아서 천연색으로 인쇄를 했는데 꽤 짹짹하게 준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안채 앞뜰에 있는 초례청이라는 데를 가서 보니 돛자리를 깎 그 위에 초례상이 놓여 있는데 한쪽편을 병풍으로 두르고 위쪽은 얇고 하얀 천으로 된 차일을 쳐서 하늘쪽이 가려지도록 해 놨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혼례식은 사회 단체에서 우리 민속을 되살려 보자는 뜻에서 주선하는 연례 행사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랑이 초례청으로 나오고 두 남자가 신랑의 뒤를 따라와서 신랑 좌우 양편 뒤쪽에 선다. 그런 후 곧 신부가 두 여인의 결부축을 받으며 입장해서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신랑과 마주 보며 섰다. 그런데 바로 신부가 입장하는 쪽의 하객들 속에서 오민아가 황보 여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국태성의 눈에 들어온다.

국태성은 오민아가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오민아의 옆에 다가가서 선다. 장소에 비해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아서 비좁으니 틈새를 비집으면서 서로들 바싹바싹 붙어서 서게 되었다. 국태성이 오민아의 손을 잡는다. 일부러인지 아닌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겨난 일이다. 오민아야 그저 가만히 있다. 혼례식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할아버지 적까지라고 할까,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치러오던 혼례식이 과연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 되느냐는 것이 관심 거리였는데 와서 보니 오민아와 함께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생각에 국태성은 오민아의 손을 힘을 더 줘서 움켜잡아 본다. 예식은 시간이 길게 걸리지는 않았다. 짧지는 않구나 할 정도의 시간에 조출하면서도 보매 성황리에, 그리고 구성지게 끝을 맺었다.

“민아 씨.”

국태성은 오민아를 불렀다. 작은 소리로 살짝 부른다. 오민아는 눈으로만 대답한다. 말대답 대신 국태성을 쳐다본다.

“나는 이제 가야겠습니다.”

국태성의 말이다.

“나도 가요.”

오민아는 이제는 손을 국태성의 팔에 끼워서 잡는다. 국태성과 오민아는 혼례식장의 사람들 속에서 빠져 나왔다. 황보 여사에게는 둘이서 같이 가겠다는 눈인사를 해보인다. 향교 마을을 벗어나서 황보 여사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을 지나 농장에 와서 오민아만 별채로 보낸 국태성은 농장쪽을 돌아본다.

유리 하우스 내부는 그제나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변함은 없다. 정성을 들인 만큼 거두는 농사의 연속이다. 관리채로 간다. 찬장을 뒤적여서 점심 거리 먼저 준비해 놓고 난 다음 관리채와 유리 하우스쪽을 오가면서 부족한 것 보충하고 수확할 것 거두어 들이고 대줄 것은 대주고 늘 하던 대로 남김이나 빠짐이 없도록 이곳 저곳 점검을 해 간다.

점심 시간을 넘겨 가며 농장을 둘러본 국태성은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오민아가 읍내에서 장보기 해 온 먹을 거리 재료라든지를 모두 챙겨서 별채로 왔다. 별채에 온 국태성이 먼저 함실 아궁이로 가서 방바닥의 냉기가 가실 정도로 장작불을 지펴 놓고 안방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 오민아의 개학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다. 세월이 빠른 건지 아니면 시간들을 바쁘게 보낸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때 주방 쪽에서 움직이던 오민아가 들어왔다. 쟁반에 무엇인가를 얹어 가지고 와서 국태성 앞에 앉는다. 국태성이 보니 쟁반 위에는 밤, 호두, 은행이 담긴 나무 접시가 올려져 있다. 2홉들이 소주 병과 함께였다. 오민아는 병마개를 돌려 열어서 잔에 소주를 따른다. 작디 작은 잔이니 가득 채우려는 것 같아 보인다.

“민아 씨.”

잔이 채워질 때까지 말없이 보고만 있던 국태성이 오민아를 불렀다.

“네?”

오민아와 국태성의 눈길이 마주친다.

“민아 씨의 개학 날짜가 다가왔죠?”

국태성이 묻는다. 진작부터 알고 있는 것을 국태성이 왜 굳이 지금 확인해 묻는지 모르겠다고 오민아는 생각한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모레쯤엔 서울로 올라가야 될까요요.”

어쨌든 오민아는 대답했다.

국태성은 쟁반쪽으로 눈을 돌려 소주 잔을 들어서 단번에 비우더니 밤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는다. 아드득 아드득하는 소리가 입 밖까지 새어 나왔다. 국태성의 낱밤 깨무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오민아는 그 비운 잔을 소주로 다시 채운다.

“민아 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부른다. 또 불렀다. 두번째 잔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부른다.

“네?”

오민아는 이번에도 국태성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민아 씨가 떠난다니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국태성과 오민아의 눈길이 부딪는다. 애뜻한 눈빛이 교환된다.

“서울에 가서 있게 되면 매일 매일을 하루 같이 태성씨 오기만을 제가 기다리게 되겠죠?”

매일을 하루 같이, 그러니 거의 날마다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도 여기서 묵어야 되겠습니다. 하숙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국태성이 대화의 방향을 슬쩍 바꾼다. 오민아의 눈이 반짝이면서 얼굴은

발그레해진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밥을 지어야겠어요. 하숙생께 드릴 저녁 진지를.”

오민아는 일어선다. 국태성에게 빙긋 웃어 보이며 일어섰다. 국태성은 채워진 소주 잔을 또 비운 후에 이번 안주로는 호두 깐 것을 엄지 검지로 집는다. 국태성에게 소주가 이렇게 맛있기는 처음이다.

일어서던 오민아가 세 번째 잔을 또 채우더니 텔레비전을 켜서 채널과 볼륨을 나뉠대로 맞춰 놓고 안방을 나간다. 주방쪽으로 갔다. 국태성은 오민아의 뒷모습을 본다. 술인심 또한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혼자가 된 국태성은 먼저 깐 호두를 왼손에 한줌 쥐고 오른 손으로는 소주 잔을 든다. 국태성이 잔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오민아의 정도 함께 담겨 있어 보인다. 잔은 작지만 무게감이 느껴진다.

국태성은 잔을 비운다.

분명 쓴 맛일텐데 쓰기는 커녕 달게 마셨다. 그리고 호두 깐 것을 입 안에 모두 넣고 곱게 부순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소주의 쓴 맛을 잡아주고 있다. 거둬 마신 세 잔 술에 취한 기운이 온몸을 돈다. 오민아의 정에 취하는 것일까? 이런 정도의 기분 그대로를 얼마간은 지니고 있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에서는 시골 풍경이 나온다. 시골의 풍경은 언제 봐도 편안하다. 마음도 편안하고 눈 역시 편안하다. 그런데 눈길은 텔레비로 향했지만 어느새 생각은 민아씨에게로 다시 간다. 멀지 않은 날에 민아씨와 이 고을의 하늘 아래서 함께 지낸다는 것은 꿈만 같다. 꿈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꿈이다. 그 꿈 같은 날이 다음 달이 되든 아니면 다음다음 달이 되든 상관 없다. 그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된다. 어찌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 준 천생연분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머리에 걸리는 점은 있다. 양가의 양해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런 점은 별반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민아씨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태성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여기서 접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시골 풍경이나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오민아가 들어왔다. 오민아의 양손에 밥상이 들려 있다. 국태성은 일어선다. 순간 일어섰다. 앉아서 받을 수 만은 없으니 일어서서 밥상을 마주 든다. 크지는 않은 상이지만 맞잡고 내려놓는다. 오민아와 함께 이런 식으로 밥상을 대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밥상을 받아 본 적은 없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숙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태성과 마주앉은 오민아가 국태성의 밥그릇 뚜껑을 열어 주면서 묻는다. 국태성이 생각해 보니 하숙 생활은 해본 적이 없고 하숙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

“오늘 처음으로 하숙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태성의 대답이다.

“저도 하숙집 주인 노릇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참으로 어여쁘신 처녀 하숙집 주인을 만나서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그렇게도 반가우세요?”

“반갑다 뿐이겠습니까.”

국태성은 내심 오민아의 얼굴을 요모조모 훑쳐본다. 국태성의 기억으로는 뚜껑까지 덮힌 밥그릇을 받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민아의 어떤 부분에 그런 야무진 데가 있는지 지금 얼굴에서 찾아 보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게 왜 얼굴을 그렇게 보셔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랍니다.”

“제 얼굴이 어디가 잘못 되었나요?”

국태성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은 없이 빙긋이 웃어만 보이고 시선을 밥상으로 가져갔다.

“드셔보셔요.”

오민아는 숟가락을 집어서 국태성에게 준다.

국태성은 숟가락을 받았다. 떠먹여 주기까지 하려는 낌새가 보여서 빨리 받는다. 밥상에서도 오민아의 정이 느껴진다. 어제 읍내에서 장봐온 해물들이 먹음직스럽게 상위에 올려져 있다. 국태성은 숟가락은 잡았지만 음식을 뜨지는 않고 오민아를 바라본다. 오민아쪽에는 수저가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셔요?”

오민아가 묻는다.

“이건 독상이네요?”

“나는 남기신 것을 먹으려고요.”

“그건 불공평하잖습니까?”

“태성씨와 저 사이에 공평 불공평 같은 거 생각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도 마주 보면서 먹고 싶어요.”

오민아는 일어섰다. 그리고 국말이밥과 수저를 가지고 와서 앉았다. 그제야 국태성은 음식으로 숟가락을 가져갔다. 국물 먼저 한 숟갈 뜬다.

“태성 씨.”

국물 한 모금을 함께 맛보고 난 오민아가 국태성을 부른다. 바라보며 불렀다. 국태성은 이번에도 눈만 마주쳐 눈으로 대답한다.

“우리도 전통 혼례를 치르면 좋겠죠?”

오민아가 물었다.

“우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태성 씨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냐는 거죠.”

“나도 그렇게 전통 혼례를 치르고 싶긴 하군요.”

“저도요. 아빠 엄마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만 앓는다면요.”

“남편 될 분과 먼저 뜻을 맞춰야겠죠?”

“...”

오민아와 국태성의 시선이 또 마주쳤다. 그러다가 다시 음식한테로 시선을 가져간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오민아가 주방쪽으로 갔다. 국태성은 생각한다. 저녁 식사후에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오후 해가 짧지는 않으니 해가 있을 때 봉수산 산기슭까지 바람이나 좀 쐬면 좋을 듯싶다. 민아씨가 싫어하지 않는

다면 그녀한테 다른 볼일이 없다면 둘이서 함께 산책할 시간은 넉넉해 보인다.

잠시 후 오민아가 송늬를 가지고 들어왔다. 민아씨가 만들어 온 송늬, 오랜만에 마셔보는 송늬의 맛이 구수하다. 높은 밥의 밥풀 몇 낱알이 동동 뜨는 송늬를 마셨던 옛날 기억이 새롭다.

“이젠 산보 가श्य요, 네?”

산책하자는 얘기를 민아씨가 해 온다. 이심전심이라고 해야하나? 민아씨가 내 마음을 읽는 것 같다.

“그러시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섰을 때 해는 서쪽 하늘 저만치에서 기울어가고 있었다. 긴긴 팔월의 햇살이 아직은 다사롭게 느껴진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들길을 걸으면서 어느새 오민아는 국태성의 팔에 팔짱을 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팔에 힘을 주고 있다.

봉수산 쪽으로 나아 있는 길이 오민아에게는 낮이 익고 수세미외가 주렁 주렁 여물어가고 있는 모습은 느낌이 새롭다. 두 사람은 수세미외 터널 안을 한 번 들여다보기만 하고 되돌아섰다. 늦여름의 긴긴해, 이제 그 해는 봉수산 뒤로 넘어가고 있는 시각에 서산쪽 저 멀리의 누런 듯 벌건 듯 저녁 노을을 등뒤로 하면서 오민아와 국태성은 돌아온다. 별채로 향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산책의 시간을 둘이서는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다.

“민아 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불렀다.

“네?”

오민아가 대답한다. 끼고 있는 팔에 힘을 더 주면서다. 국태성은 오민아를 불러만 놓고 다음 말에는 뜬을 들인다. 오민아의 시선이 국태성한테로 가 있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국태성을 쳐다본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자야 되는 거죠?”

국태성의 말이다. 오민아를 보면서 하는 말이다.

“함께 잔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자야 할지 아니면 민아씨만 놔두고 나는 관리채로 가서 자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나 마나예요.”

“왜요?”

“저는 무서워서 이런 데서 혼자서 못 자거든요?”

오민아는 그러니 어찌면 좋으냐는 눈빛이다. 그런 눈으로 국태성을 쳐다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아씨에게 알맞는 방법을 궁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국태성에게 쉽잖은 숙제 하나가 안겨졌다. 별채의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둘은 팔짱을 꼈다.

팔짱이 풀리면서 서로는 바라본다. 정겨운 눈빛을 주고 받는다. 지금 둘이 서는 끌어안을 수도 있음을 눈빛에서 서로가 읽는다. 그런데 그런 계제라지만 이 계제를 그냥 넘기기로 한다. 두 사람은 지금은 참자고 눈끼리 얘기를 한다. 아쉽지만 아끼려고 그냥 그 찰나를 넘긴다.

그래도 팔짱만은 다시 낀다. 응접실 내의 짧은 이동공간에서도 오민아가

국태성의 팔을 껴잡고 움직이고 있다. 애절한 감정이 솟는 이 순간을 그대로 보내는 아쉬움도 어쩔 수 없고 그 대신에 나란히 소파에 앉는다. 몸을 꼭 대어 앉고 있다. 몸끼리 부딪지만 앓을 만큼 바싹 대어 앉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들 앉았다.

둘이서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면서 껴안을까 말까 갈피를 못 잡는 마음들을 어렵게 또 가라앉힌다.

“혼자서는 정말 못 자겠다고요?”

국태성이 말했다. 오민아에게 묻는다. 다시 물었다.

“나는 정말로 이런데서 혼자서는 무섭다니까요?”

오민아의 대답이 빨랐다. 국태성은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인다.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다. 사정이 이러니 국태성은 오민아가 무섭지 않도록 해 줄 방법을 어서 짜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쉽게 나오질 않는다. 자신이 오민아의 곁에 있어 주는 방법이라면 모르겠으나 달리 방법이 없다.

“태성 씨.”

“예?”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오민아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방금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 방법을 얘기할 모양이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만 본다.

“이부자리가 하나 뿐이니까 교대로 자면 되겠어요.”

이부자리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민아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대로요?”

국태성이 묻는다. 그 방법이 궁금하다.

“태성씨가 주무실 때는 내가 지켜봐 드리고 내가 잘 때에는 태성씨가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한 시간씩 교대로.”

오민아가 말했듯이 이부자리는 국태성 자신이 쓰고 있는 것 하나 뿐이다. 그러니 교대로 잠을 자자는 얘기가. 그것도 한 시간씩 교대하자고 한다.

국태성으로서는 오민아의 그 생각에 맞추는 쪽으로 이 숙제를 풀어 갈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오민아가 답을 내놨다.

“누가 먼저 잠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가위바위보로 지금 정하기로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쪽이 먼저 잠자리에 들자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게 하죠, 그럼.”

국태성은 오민아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결국 함께 있어주는 방법이 채택된 셈이다.

응접실 바닥의 다스함이 양말을 통해서 발바닥에 닿는다. 밖은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실내의 온기가 몸에 느껴진다. 함실 아궁이의 장작불이 그 사이에 구들을 데워 준 것 같다. 오민아와 국태성은 이제 가위바위보에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일어서서 등을 대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함께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그대로 돌아서서 승부를 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두 번을 연습해 본다. 그런 다음에 실지로 가위바위보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국태성은 바위, 그리고 오민아는 보를 내서 오민아가 승리를 한다.

오민아가 국태성을 보며 활짝 웃는다. 그런 얼굴 빛을 띤다. 이겼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먼저 자고 나중에 자는 것은 그 중에 어느 쪽이 웃을 일인지 가늠하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그렇죠?”

오민아의 말이다. 이긴 사람이 먼저 잠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오민아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하하.”

국태성이 크게 웃었다.

“왜 웃으세요?”

“민아씨의 잠자는 모습이 벌써부터 머리에 떠올라서 랍니다.”

“제가 잠자는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성씨는 보통 몇 시 쯤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건 왜 묻죠?”

“이제 이부자리를 펴려고요.”

국태성은 벽시계를 바라본다. 8시를 벌써넘긴 시각이다.

일상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잠자리에 들기에 이르지 않은 시각이다. 자신에게는 그렇다. 시계를 보고 난 국태성의 눈빛을 읽은 오민아가 안방으로 건너 간다. 이부자리는 자신이 펼 모양이다. 국태성은 그냥 있다.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그대로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다. 안방으로 간 오민아가 돌아오면 그녀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지 않겠는가 생각될 뿐이다.



오민아가 온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돌아왔다. 돌아온 오민아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국태성은 기다린다.

“이제 자리 가요, 우리.”

오민아는 국태성의 손을 잡아서 당긴다. 자리 가자는 말이 오민아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다. 국태성은 순간 잡힌 손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오민아는 어떤지 몰라도 국태성은 그렇다. 아랫도리에서도 허리에서도 힘이 빠지면서 삭신이 죄다 떨어진다. 언감생심이라고 해야하나? 생각도 할 수 없는 호사를 지금 이 꿍디꿍은 여자한테서 누리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국태성은 몸을 일으킨다. 오민아의 당기는 힘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했다. 그러면서 안방으로 갔다. 오민아가 그리로 가자고 이끄니 따라간다. 안방으로 가니 거기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다. 깨끗하고 보드랍고 포근해 보이는 이부자리의 무늬 속에서 묘한 설렘이 인다. 쿵쿵-쿵쿵 흥분 같은 것이 지레 가슴을 두드린다. 방망이질 쳐 온다. 그러면서 오민아의 다음 행동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다.

국태성은 이 여자가 늙게 되면 자신이 지켜 주기로 했던 가위바위보 약속을 다시금 머리에 떠올린다.

“제가 잠자리에 들어야 하니까 돌아서서 계세요.”

오민아가 국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다분히 명령투였다. 국태성은 군말 없이 이부자리를 등지고 선다.

“이제 눈을 가리세요.”

하라는 대로 국태성은 눈을 가린다. 두 손으로 가린 채 ‘지금이 몇 시인가? 이제는 밤이 다가왔는가?’ 생각을 하면서 서 있다 그리고 있는데 이때 뒤에서 허리를 껴안는다. ‘민아씨 이거니’ 느끼는 순간에 국태성은 뒤에서 껴안은 손을 잡아서 내리고 돌아서면서 그대로 자신이 오민아를 와락 껴안아 버렸다.

부지불식간에 저질러 진, 그것도 둘이서 처음으로 하는 포옹이다. 바로 이거였다라는 듯이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게 둘은 서로 껴안고 안겼다. 국태성도 오민아도 포옹까지를 욕심 낼 수는 없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의 이 포옹은 실로 엄청난 소득인지라 서로들 그저 좋아라 하면서 이 포옹을 얼마 동안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생각을 앓고들 있다. 거기에서 둘은 포옹까지로 만족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금 이 순간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황보 여사의 집에는 이날 늦은 오후에 멍 영감이 들렀다. 어디엔가 다녀오는 옷차림이다.

“어서 오세요.”

황보 여사는 하던 일을 멈추면서 멍 영감을 맞는다.

“제가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앉으세요.”

멍 영감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황보 여사와 마주해서 앉는다.

“이건 무말랭이가 아닙니까?”

멍 영감이 묻는다.

“작년에 말려 뒀던 건데 쓸 곳이 생겨서요.”

“꽤 오랜 만에 보는 귀한 음식입니다. 한 점 먹어봐도 될까요?”

“그러시겠어요?”

황보 여사는 젓가락을 가져다가 식탁 위의 무말랭이 무친 것 한 점을 집어서 왼손으로 받쳐가면서 맹 영감의 입에 넣어준다.

“베리 굿입니다.”

무말랭이 무침을 맛보고 난 맹 영감의 말이다.

“영어를 쓰시네요?”

“아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고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동생이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갖다 주려고요.”

“동생분이 살림을요?”

“자매결연을 맺은 동생이 저쪽 마을에 혼자서 사는데 반찬 좀 보태 주려고요.”

황보 여사는 이내 내용을 고쳐서 말했다. 살림을 차린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반찬은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군요.”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줘야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의 솜씨가 우리보다 도리어 낫죠.”

황보 여사는 무말랭이 무치는 일을 마저 끝내고 차 한잔 끓여오겠다면서 일어선다.

“아닙니다, 해 저물기 전에 가야겠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에 들러 본 겁니다.”

맹 영감은 황보 여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밖으로 향해 버렸다.

황보 여사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동생 뒷바라지 뿐이라는 생각에 다음 해야 할 일을 찾아 움직인다.

다음 날 동이 트고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농장쪽에서는 별채에서 이부자리한 채를 가지고 국태성과 돌이서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지난 밤의 일들로 무엇에 홀린 듯 취한 듯 오민아의 가슴이 방아를 찧는다. 아쉬움 같은 것이 있다. 무엇이 아쉽다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아쉬운 건 사실이다.

오민아는 지금 응접실에 와 있다. 국태성은 이시각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신만 이곳에 와서 서있다. 어제 저녁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또다시 되살아난다. 태성씨에게 안겼던 일, 아니 그보다도 태성씨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던 기억이 먼저 확 다가온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몸이 바르르 떨리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있는데 떠는 가슴을 가라앉혀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국태성이 응접실로 왔다.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걸어 들어온다. 오민아의 발걸음이 국태성한테로 옮겨간다. 국태성은 더 빠른 걸음으로 오민아에게 온다. 서로는 물어볼 것 없이 눈치 볼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그리고 안겼다. 어느새에 생긴 일인지 모를 일이다.

“태성 씨.”

오민아가 안긴 채 국태성을 쳐다보며 불렀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

본다. 눈을 크게 떠 보인다.

“제가 서울로 가면 보름은 지나야 만날 수 있겠네요?”

오민아가 겨우 생각해 낸 말이다.

“29일에 모임이 있으니 하루 전에 올라가면 앞으로 십 삼일 후가 되겠군요.”

국태성은 머릿속에 미리 계산해 뒀던 것처럼 대답한다.

“그동안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죠?”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지내요. 나도 자기도.”

“그거야 누가 모르나요?”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요?”

“아침 저녁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글쓰기가 서툴러서…”

“편지야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서툴고 말고가 없어요. 한글을 쓸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쓰겠어요.”

“나 잠시 하우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무슨 생각이 났는지 국태성이 꺼안고 있던 팔을 먼저 푼다. 그리고 밖으로 향했다. 오민아는 이제 안방으로 간다. 이부자리 먼저 개키고 나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마음 먹고 안방으로 건너왔다. 이부자리 앞에 오니

가슴이 또 뛰다. 물결까지 일으킨다. 그러면서 태성씨의 그 체취 같은 것이 몸속으로 사정없이 스며든다. 이럴 적에는 어찌 감당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힘이 쪽 빠지는 것 같은 양 어깻죽지를 가다듬고 이부자리를 접는다.

그리고 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신명이 솟아난다. 어째서 이리도 신명이 난다는 말인가. 그냥 즐거워진다. 마음이 상쾌해 온다. 몸이 날렵하게 움직여진다.

태성씨가 보고 싶다. 태성씨가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발머리 없는 생각인 줄은 알면서도 그런 생각 속에서 날듯이 가분가분히 안방 일을 마친다. 몸이 그렇게 움직여 줬다.

이제는 부엌으로 갔다. 부엌 일이 기다린다. 태성씨가 오면 좋아할 음식을 어서 마련해야 한다. 반주랑 안주 거리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국태성은 이 시각에 농장의 관리채와 지하광을 오가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도 명절용으로 수확해서 보관해 놓은 산나물들을 실려 보낼 준비를 해야한다. 우선 보내야 할 물품들의 품목별 수량과 금액을 지정해서 장부에 적는다. 그리고 장부와 현품의 수량을 대조하여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짐꾸리기와 실어 보내는 일이 남았다. 그 일은 항상 해 오듯이 두레박의 품앗이 사업으로 해내면 된다. 그러자면 우선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을 문서 통지가 아닌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어가기식」으로 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방식은 품앗이 사업을 희망하는 회원이 우선 회장에게 요청하면 회장이 총무에게 알려서 그때부터 연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연락 절차는 이미 정해놓은 연락망에 따라 총무가 회원 2명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은 회원들은 각각 자신에게 지정된 2명의 회원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회원들이 또 각각 2명씩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20여명 모두에게 단번에 연락이 닿는 방식을 이어가기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두레박은 사용하고 있다.

문서로 통지하느냐, 아니면 전화 등으로 이어가기식 연락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통지 내용과 형편에 따라 회장과 상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어가기식을 만들게 된 목적은 일이 생기면 회원들 간에 서로 바통을 주고 받기 식으로 친분을 쌓고 또 어려움도 나누고 하자는 데에 있었다. 만약 장거리 출타나 외유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회장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워주게 된다.

휴대폰으로 회장과 품앗이 협의를 마친 국태성은 이제는 별채로 간다. 민아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엿저녁이 생각한다. 민아씨와 자다 말다 했던 이부자리 생각이다. 관리채에서 쓰고 있는 닭털침낭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거다. 그것을 쓰면 된다.

국태성은 한쪽에 간수해 뒀던 침낭을 찾아서 아침 끼니거리와 함께 자전거에 실었다. 그리고 별채로 달린다. 이러는 동안에 별채에서는 주방으로 온 오민아가 국태성이 좋아할 반주와 안주 거리를 먼저 찾아냈다. 반주라고 해 봐야 소주면 그만이고 안주도 이거나 저거나 가리지 않으니 문제될 것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의 아침상을 차리자면 어찌해야 할지 방도가 서지를 않는다. 준비가 없어서다. 생각을 미처 못했었다. 그러니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한 형편인데 국태성이 돌아왔다.

국태성이 봉지 셋을 오민아에게 내민다. 라면 봉지다. 김치통과 함께였다. 김치통이라고 해 봐야 김치가 반쯤 남은 그리 크잖은 스테인리스 스틸 통이다.

“농장에서 가져온 건데 이따가 관리채로 다시 가서 이것저것 준비해 오기로 하고 아침엔 라면 좀 먹어봅시다, 오랜 만에.”

국태성의 말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대로 아침상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해장 먼저 하시겠어요?”

오민아가 묻는다. 반주가 아니라 해장이라고 했다. 해장이라면 지난 밤의 술기운을 푸는 것을 말하는데 오민아는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장이라고 한다. 아침 식사 전에 술 먼저 가져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다. 국태성이야 싫지는 않다.

주방으로 갔던 오민아가 금방 돌아와서 국태성 앞에 술상 먼저 봐 주고 다시 주방으로 갔다. 오민아의 뒷모습을 보는 국태성의 머리에 지난 밤의 순간 순간들이 또다시 스쳐간다. 어쨌든 오민아가 따라 놓고 간 소주잔을 들어서 단숨에 마셨다. 맛있게 마신다.

실로 지난 밤은 민아씨와 연모의 정을 나누면서 그윽한 곳으로 서서히 그리고 아련히 빠져든 하룻밤이었다. 그 시간들의 그 절절함 그대로를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혼자서 되살려 낼 수도 있을까? 그렇게도 되살리고픈 절절



함이라지만 이제는 날이 밝았음이 아닌가.

아니다, 하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러면서 국태성은 소주 한 잔을 더 따른다. 취하지는 않을 만큼 두 잔 정도면 알맞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다. 그리고 마신다. 국태성이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나자 주방쪽에서 오민아가 건너왔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면만 끓였는데.”

오민아가 상을 국태성 앞에 내려놓는다.

끓인 라면에 김치 한 가지가 더 얹힌 상이다. 이번에는 겸상을 차려 가지고 왔다. 겸상이라고 해 봐야 젓가락을 양편에 놓은 것 뿐이다.

“냄새가 훌륭하네?”

국태성의 경우 자주 대하는 라면이라지만 이 라면은 유달리 맛있어 보인다. 냄새 또한 더 구수하게 느껴졌다. 국태성은 오민아를 바라본다. 얼굴을 본다. 얼굴의 어디에 붙임성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뜯어 보고 있다.

“또 내 얼굴을 그렇게 보시네요?”

국태성은 시선을 얼른 돌려서 상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라면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본다. 그리고 나서 젓가락으로 바퀴 잡았다.

“내가 자기한테 긴히 할 말이 있거든요?”

국태성은 이 말 끝에 손으로는 라면을 집어 들면서 눈으로는 오민아를 바라본다.

국태성이 오민아한테 자기라고 했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면서도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 보였다. 오민아가 국태성을 바라본다. 할 말이 무엇인지를 기다린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내 얼굴에다 그것 한번 해 줄 수 없을까요?”

“그것이 뭔데요?”

국태성의 말에 오민아의 반응이 빠르다.

“그것이 뭔지를 자기가 잘 생각해 보고 나서 오늘 널 새로 꼭 대답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태성이 에둘러서 한 그 정도의 얘기를 오민아야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알겠어요, 생각 좀 해 보겠어요.”

국태성이 부탁한다고 까지 말하니 오민아로서는 그러겠다는 쪽으로 대답해 둔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대답을 쉽게 했지만 그런 알곳은 청을 들어 줘야 하는지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태성씨가 오늘 널 새로 대답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무턱대고 식이로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요구랄까 청이랄까를 놓고 미적미적하기 보다는 아예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기로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해 줘야 한다고 본다. 싫을 이유가 없다. 해주고 싶어 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 주기는 해 주되 이쪽에서도 피를 부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궁리 끝에 피부릴 방법을 찾아 냈다. 그것을 해 주기는 해 주되 눈을 먼저 감게 하는 것, 감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피를 부리는 첫 순서다.

그것을 해 줄 날짜를 내일까지로 태성씨는 바듯하게 잡아 줬지만 오민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다. 피를 짜냈기 때문이다. 오민아는 국태성을 바라본다.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본다.

“라면 맛이 어떠세요?”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묻는다.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번 물어본다. 말을 걸기 위해서다.

“오늘은 라면이 무척 맛있네. 자기는요?”

국태성이 오민아를 앞에 놓고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다.

“나도 라면이 참 좋아요.”

오민아는 대답하면서 피를 부릴 시점으로 지금을 택하는 것이 그런대로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태성 씨.”

“?...”

국태성은 오민아를 바라다만 본다. 입 안에 음식이 들어 있어서다.

“식사 마치시면 바로 제가 태성씨 얼굴에 태성씨가 말했던 그것이라는 것을 해 드리려고요.”

“그래요?”

국태성은 속도를 내서 식사를 마친다. 오민아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

오민아는 일단 상을 부엌에 갖다 놓고 날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모닝커피라는 것을 두 잔 만들어 왔다. 그리고 둘이서 마신다. 시간은 흐르고 커피도

마셨으니 이제는 국태성이 바라는 그것을 오민아가 해야 할 때가 왔다.

기왕 하기로 마음을 정한 바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욕심 내는 것 보다는 적당한 방법이 생각 났을 때 머뭇거림 없이 해내는 것이 낫다.

“이제는 여기 누우세요.”

찾잔을 저쪽에다 밀어 놓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누우라고 했다. 국태성은 머뭇하다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

“눈을 감으세요.”

국태성으로서는 망설일 여지도 없다.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눈을 감는다.

이제는 오민아도 망설일 수가 없기는 매일반이다. 그것이라는 것을 해 줘야 할 순서가 왔다. 그러자니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해 줘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가지 수와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마냐 뺨이냐 아니면 어디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 결정은 지금 자신의 몫이 되어 버렸고 이제와서 눈 감고 있는 국태성과 의논할 수도 없다.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지만 그것이 더 문제다. 그리고 있는데 그때 국태성이 두 팔로 오민아의 양 어깨를 끌어 당긴다. 눈을 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인지 오민아를 안는다. 누운 채로 팔을 뺨더니 덥씩 안아 버렸다.

오민아는 양 어깨를 영겹겹에 내 뒀지만 안기고 나니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대로 안겨서 있다. 오민아를 끌어안자 국태성은 오민아 더러 해 달라고 했던 그것이라는 것을 순간에 그만 자신이 오민아에게 한다.

오민아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그것을 국태성이 드디어 지금 해 주고 있다니 여기저기가 떨린다.

시간이 얼마 만큼이나 흘렀는지 모르도록 단 둘만의 황홀경에 취하다가 오민아가 빠져 나왔다. 국태성의 품안에서 무슨 수로 빠져 나왔던시간에 오민아는 어쩌면 좋아 난 몰라라며 주방쪽으로 어서 간다. 국태성도 부스스 일어선다. 비몽사몽간의 어젯밤 하며 방금까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던 순간과 순간의 꿈만 같은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오민아를 보내 버리고 홀로 되어 쓸쓸해진 이 시간을 혼자서 견뎌 나간다.

그렇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녀는 바로 옆 방에 아마도 지금 있을 텐데 쓸쓸하다는 등 외로워 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러니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은 털어 버리고 일어나 국태성은 응접실을 지나서 밖으로 향했다.

짐작한 대로 응접실에는 오민아가 있다. 싱크대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국태성은 오민아의 뒷모습만 보고 나간다. 왜 나가는지를 오민아에게 구태여 말할 것 없이 농장으로 갔다. 술 기운이 몸에 남아 있는 듯 하니 자전거는 그냥 끌고 가기로 한다.

국태성이 농장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을 때 저만치에서 집배원이 다가왔다.그러더니 우편물을 두 통이나 주고 간다. 보낸 곳을 보니 한 통은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의 편지였고 또 다른 한 통은 오민아 선생에게 보낸 강남해명여중의 서류였다.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의 편지는 집터가 있는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니 소개해 달라는 부탁의 글이었고 학교 서류는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장소

를 물색해서 교섭해 달라는 문서였다.

우편물을 안주머니에 넣어 둔 국태성은 평소처럼 하우스 내부를 살핀다. 별일 없어 보였다. 이제는 관리채로 가서 쌀이며 국수, 그리고 반찬 거리 같은 것들을 꾸러서 자전거 뒤편에 싣는다. 그리고 두레박 회원 명부를 찾아서 앞 바구니에 얹었다.

별채로 온 국태성은 먼저 음식 재료와 편지를 오민아에게 준다. 오늘따라 오민아의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고 국태성은 느꼈다. 오민아는 서류를 대강 훑어만 보고 나서 곧 음식 재료들 손질에 들어갔다. 국태성이 볼때 오민아의 움직임이 굹땀 보였지만 깜냥대로 너끈히 해낼 것 같은 모습이다.

국태성은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두레박 회원 명부를 펴서 살펴본다. 농토를 팔겠다고 내놨거나 또는 팔도록 권유할 만한 회원을 찾아본다. 집터를 끼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회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며칠 후 모임이 있을 때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알아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그 방법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있을 때 현관 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지금은 응접실에 와 있는 것 같다. 황보 여사다. 국태성은 그리로 건너갔다.

“오셨습니까?”

국태성이 먼저 인사를 한다.

“누가 이쪽을 쓰고 누가 저 방을 쓰시는가? 아니면 한 방을 쓰시나?”

황보 여사가 국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번 알아맞춰 보시죠.”

국태성의 대답이다.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요?”

그러면서 황보 여사는 들고 온 보따리를 주방 싱크대에 올려 놓더니 장판 방 바닥에 앉는다.

“저건 무말랭이 장아찌인데 동생 주려고 만들어 왔지.”

황보 여사가 오민아를 보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오민아가 싱크대 위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황보여사 앞에 앉더니 보자기를 푼다. 국태성도 함께 앉는다. 세 사람이 장아찌 보따리를 가운데에 두고 둘러앉았다.

“맛있네요. 잘 먹겠어요, 언니.”

오민아가 장아찌 한 점을 먹어 보더니 한 말이다.

“동생, 이제 개학 날이 다가왔지?”

“네, 모레 쯤 올라가려고요.”

“이건 서울 갔다가 내려온 후에 숙성시켜 가면서 먹어도 좋을 거야.”

황보 여사는 오민아가 곧 다시 내려올 것을 알고 있다. 서로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속에 있는 말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다.

## 국태성은 농장 경영을 하면서

### 그 밖의 지역 활동 전개

“서울 학교 아이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오겠다는데요?”

오민아가 대화의 방향을 돌린다. 국태성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온 편지 얘기를 꺼냈다.

“준비를 해야죠.”

국태성의 답이 금방 나왔다. 농장에서 편지를 봤기 때문이다.

“뭘 준비해 놓을까요?”

“수세미외 밭에서 체험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보름 전쯤 가 봤던 그 수세미외 밭이 오민아한테도 다시 떠오른다.

“맞아요. 그게 좋겠어요. 수세미외가 꽤 영글어 가고 있겠네요.”

“몇 명이나 오나?”

황보 여사가 묻는다.

“현장 체험 학습은 우리 학교의 경우는 대개 두 학급씩이니까 육 칠십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오민아의 대답이다.

“동생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가야지.”

황보 여사는 일어섰다.

황보 여사가 가고 나자 응접실은 오민아와 국태성 둘 만이 되었다.

“이 장아찌를 먹기 위해서라도 민아씨가 빨리 이쪽으로 전근을 오든지 해야겠습니다.”

오민아는 아무 말 없이 국태성과 눈만 마주쳐 미소지어 보이더니 장아찌 보자기를 묶어서 들고 싱크대 쪽으로 간다. 국태성은 다시 안방으로 왔다. 그리고 두레박 회원 명부를 한번 더 살핀다. 그러다가 언뜻 맹 영감이 생각 났다. 맹관영 영감한테서라면 농토며 집터며를 사들일 방법이 나올만 해서다. 괜스레 두레박 회원들에게 소문낼 것까지는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런 일은 암암리에 해 오고들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국태성이 맹 영감에게 전화를 건다.

맹 영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휴대 전화 번호를 찾아서 걸었는데 그것도 받지 않으니 시간을 좀 뺐다가 다시 걸기로 한다. 그리고 맹 영감과 만날 시각과 장소를 미리 생각해 본다. 그래서 시각은 맹 영감이 편리한 때에 그리고 장소는 이곳 별채로 정하기로 했다.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국태성은 신문이나 넘긴다. 일간지다. 정치 면은 정치를 하는 이들이 정치권에서 해 나가고 있으니 그렇고 사회 면은 관련 이야 별로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살펴본다. 경제 면은 지금으로서 는 돈이 많아서 문제이거나 모자라서 걱정인 편은 아니니 관심이 없고 문화

면은 이거로구나 하고 끌리는 내용이 눈에 띄지를 않아서 큰 제목만 읽으며 대충 훑어나 본다.

그렇게 일여덟 장의 신문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볼까 하고 있는데 전화 벨이 울린다. 받아 보니 맹 영감한테서 온 전화다. 땅 얘기를 들은 맹 영감은 지금 별채로 오겠다고 했다. 국태성은 시계를 본다. 오늘도 아침부터 꽤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시계는 이제 10시를 향하고 있다. 국태성은 오민아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 둔다. 맹 영감을 갑작스러운 손님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별채까지는 초행인 맹 영감이니 밖에서 맞아들이기 위해서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 영감이 왔다. 자동차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2톤 화물트럭에서 맹 영감이 내린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어르신.”

국태성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맹 영감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우리 만남 지가 두어 달은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봄철에 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방석 위에 앉는다. 오민아가 커피를 타 왔다. 맹 영감의 커피 식성을 국태성이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준비해 났다가 가져온다.

“서울에서 견학 온 제 후배입니다.”

국태성이 오민아를 소개했다. 후배라고 했다. 견학을 왔다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

“안녕하세요? 오민아입니다.”

오민아는 이름까지 말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예, 처음 뵙습니다.”

맹 영감 또한 마주 고개 숙여 인사를 깎듯이 한다.

“땅을 좀 사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회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맹 영감이 찻잔을 비우자 자신도 함께 잔을 비운 국태성이 용건을 이젠 꺼내 놓는다. 오민아는 커피 잔 등속을 쟁반에 얹어 가지고 나갔다.

“어떤 땅이 필요하십니까?”

맹 영감이 묻는다.

“예, 묵은 집터를 끼고 있으면 더욱 더 좋겠다고 합니다.”

“땅은 내가 좀 가지고 있지만..., 팔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데...”

국태성에게는 반가운 데가 있는 말이다. 맹 영감이 땅을 가지고 있다니 반갑기는 한데 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아쉽지만 팔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 보다도 맹 영감의 말과 표정 속에서 팔 의향도 있음이 확실히 엿보인다. 맹 영감을 먼저 만나려고 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 까지 든다. 지름길을 택한 것 같다. 맹 영감한테서 자기 땅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짐작도 못 했었다.

“땅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맹 영감이 묻는다.

“이 삼천 평이면 되겠다고 합니다.”

국태성은 땅의 평수를 넉넉히 잡아서 얘기했다. 맹 영감이 고개를 그덕인다.

“근래에 땅을 팔아 본 적도 없고 해서, 시세도 모르겠고...”

맹 영감으로부터 팔 의사가 있음을 국태성이 재차 느끼고 있는 가운데 두 세 번 더 얘기가 오고 가다가 국태성은 맹 영감으로부터 팔겠다는 결정을 받아 낸다.

땅을 매매할 금액은 요즘에 근방에서 매매 되었던 사례가 없으니 관청에서 정한 공시지가라는 것에 3할을 더한 금액으로 잡고 면적은 2천 평에서 3천 평 사이를 현지의 땅 모양에 맞춰서 분할해 내기로 했다. 공시지가에 3할을 더하려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무겁지 않도록 땅의 공시지가를 낮춰 냈으므로 팔고 살 때에는 거기에 3할을 더하면 알맞다는 세간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내친 김에 맹 영감의 집에 들러서 도면과 토지대장 등 참고할 만한 서류들을 찾아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 현장은 맹 영감의 집에서 되돌아 나와서 아스팔트 지방도로로 들어서서 좌회전 한 다음 향교 마을쪽으로 가다가 칠 팔십 미터를 지난 갈림길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사 오십 미터 거리에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맹 영감이 가리키는 땅은 산밭이었다. 평평한 야산을 일구어 놓은 밭이다. 국태성이 살펴볼 때 황토 밭의 한쪽 끝이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아주 가까이에 마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전봇대 하며 물이 졸졸 졸 흐르는 실개천도 끼어 있다. 안성맞춤이라고 할 만 했다. 집터도 근처에 텅구는 돌과 자갈이 지천이니 터를 닦으면 될 일이었다.

땅의 넓이나 공시지가도 서류에서 확인 되었으니 매매할 금액은 금방이라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제는 되었으니 부탁을 해 온 쪽에 곧 연락을 해야 겠다고 마음 먹으며 국태성은 별채로 왔다.

국태성을 별채까지 와서 내려주고 멍 영감이 돌아가자 국태성은 지체 없이 전화를 걸었다. 땅 부탁을 해 온 그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에게다. 전화를 받는 쪽은 젊은 청년 같았다.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만으로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 층이냐를 구분 짓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나 국태성은 그렇게 느꼈다.

아마도 3개월쯤 전에 농장에서 그쪽 동호회 회원들을 만났을 적에 대면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 애송이 청년이 한둘 있었지 싶기도 하다. 전화를 통해서 건너오는 저쪽의 반응은 빠르고 간단했다. 자세한 말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일 땅 있는 곳으로 가도 되겠냐고 한다. 현장을 보러 오겠다는 얘기로 들렸다. 이쪽 형편이야 내일이든 모레든 맞출 수 있으니 내일 유리 하우스 앞에서 만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점심 준비 할까요?”

주방 쪽에 있던 오민아가 건너와 묻는다. 둘 사이에 점심이라고 해 봐야 그저 요기 정도다.

국태성은 고개를 그덕여 대답했다. 눈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게 된다. 국태성이 생각하니 오늘 오전도 바빠 움직인 시간들이다. 점심을 대충 때운 두 사람은 산책 겸해서 수세미외 밭으로 갔다. 서울에서 내려올 학생들 체험 학습 자료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다.

“자기 서울 갈 차표는 내가 미리 끊어 났죠.”

“...”

“그전엔 예매를 하지 않으면 서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매가 습관이 됐어요.”

오민아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 생각을 하는 중인데 국태성은 오민아를 서울로 올려 보낼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수세미외 터널에 와서 보니 그 안에서는 수세미외들이 한창 자라고 있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느껴지는데 중앙통로만 남기고 양 옆으로 매달린 수세미외를 오민아는 저쪽으로 가면서 한 쪽을 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다른 쪽을 세고 있다.

“개수가 백은 훨씬 넘네요, 아이들 체험 자료로는 만점이에요.”

오민아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터널을 나온다.

“추석은 어디서 쇠세요?”

오민아가 별채로 되돌아오면서 국태성을 바라보며 묻는다.

“나는 재네들과 함께 쇠야겠어요, 수세미외들하고.”

“나도 올해엔 재네들하고 명절을 쇠면 어떨까?”

오민아가 말했다. 혼자서 하는 말이다. 서울에 갔다가 추석 때에는 이곳 농장에 와서 보내고 싶다는 얘기다. 국태성은 무어라 말대꾸는 없이 그냥 들어 두기만 한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다. 추석은 앞으로 50일 정도 남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일은 추석 쇠고 15일쯤 뒤일 것이다. 그 다음 얼마 후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민아가 이 지역으로 전근을 올 것이고...

“태성씨.”

국태성의 생각을 중단시키고 오민아가 부른다.

“?...”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다본다. 눈을 마주쳐서 눈으로 대답한다.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빠한 얘기를 오민아가 한다. 그리고 오민아는 별채를 가리켜 집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태성의 처소가 별채로 되었다가 이제는 국태성의 집이면서 지금으로서는 오민아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시다.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가서 보여 줄 것이 있어요.”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보여 줄 것은 다름 아닌 편지다. 아침 나절에 농장에서 받은 편지 두 통 중에 학교에서 온 것은 건네 줬지만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의 편지는 오민아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도 참고로 보여 주려는 것이다. 손님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산책 겸 현장답사를 마치고 별채로 돌아오자 국태성은 회원한테서 온 편지를 오민아에게 준다.

“김귀성이란 분이 내일 오시겠네요?”

편지를 보고 난 오민아의 말이다.

“그 청년이 아마도 우리 고장에 터를 잡을 듯 합니다.”

“?...”

“땅을 사들일 모양이니까요.”

“그럼 이제 태성씨한테 동지가 한 분 더 생기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때 현관에서 기척이 났다. 석간 신문이 배달되는 소리 같다. 오민아가 현관으로 나갔다.

“오늘 저녁엔 산나물 비빔밥 어떠세요?”

신문을 주면서 국태성에게 오민아가 묻는다. 농장에서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산나물이지만 그것들을 자신이 요리해 본 기억은 오래다. 두 달쯤 전에 책을 보면서 창출 무침을 만들어 본 기억 밖에 없다. 웬일로 오늘 오민아가 비빔밥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국태성에게는 기대 반 호기심 반이다.

“어떤 나물로 비빔 생각인데요?”

“머위 나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태성은 그러자는 눈빛을 보낸다. 어디 한 번 기대해 보겠다는 국태성의 눈빛에 오민아가 자신감 있는 눈으로 마주쳐 준다.

그리고 나서 국태성은 밖으로 나왔다. 일광소독 하려고 널어 놓 침낭을 걷어오기 위해서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고 있다. 햇벌이 아직은 다사롭다. 나온 김에 철망 울타리를 돌면서 멍멍이들과 눈이나 마주쳐 보고 그러면서 햇벌도 쪼고 한 다음 침낭을 걷어 들고 들어온다. 오늘 밤의 잠자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방으로 왔다.

안방에 와서 이제는 오늘 일과가 마감이구나 생각하면서 신문을 펼치고 있는데 휴대 전화가 왔다. 아랫주머니에서 진동으로 울린다. 받아 보니 거는 쪽에서 자기는 김귀성이라고 한다. 강남주말농장 동호회 회원이라고도 했다. 예상했던 전화다. 내일 11시 쯤에 농장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어떻냐고 물으면서 지난 봄에 와 봤으니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했다.



땅의 가격은 자기는 금새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볼 방법도 그럴 생각도 없으니 이쪽에서 가격을 알아봐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땅만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쪽한테 맡기겠다는 말도 덧붙인다. 국태성은 상경하기에 앞서 결말 지어 줘야겠다고 싶어서 맹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맹 영감쪽 대답도 시원스러웠다. 알아서 흥정을 해 주면 계약이나 하러 오겠다고 한다.

모든 일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다.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다. 이제는 땅의 매매 가격 결정만 남았다. 가격은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려고 있을 때 오민아가 상을 들고 들어왔다. 국태성은 일어난다.

“저녁 상이 꽤 이르네?”

국태성이 서서 상을 받으며 하는 말이다.

“저녁은 일찍 먹고 그리고 일찍 자야 좋대요.”

“그건 우리 민아씨의 주장인가?”

“건강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찍 먹고 일찍 잡시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는다. 머위나물 비빔밥 밥상이다.

“오늘은 어떻게 자요?”

오민아가 묻는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 가서 묻는 말이다. 그렇게 묻는 오민아의 얼굴이 붉어진다.

“누워서 눈 감고 잡시다.”

국태성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국태성은 고개를 돌려 침낭을 바라본다. 조금 전에 일광 시켜 온 그 침낭이다.

“저기서 숨어서 주무시려고요?”

오민아가 다시 물었다.

“숨다뇨?”

“저 속에 들어가서 지퍼를 잠그면 숨는 거 아닌가요?”

“숨는 게 아니고 함께 자려는 거죠.”

“함께요?”

“함께가 아닌가?”

“함께가 아니고 그건 따로 자는 거죠.”

“민아씨도 자고 나도 같은 시간에 함께 잔다는 얘기죠.”

국태성이 오민아를 바라본다. 오민아는 국태성의 시선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러나 시선을 피하여 말대꾸 대신에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리고 주방으로 건너갔다. 국태성은 침낭을 어디에 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오민아가 누울 자리 바로 옆에 대서 펴야만 좋을지 아니면 이만큼 떨어져서 펴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주방이 있는 응접실로 가서 펴야 할지가 지금의 문제라면 문제다.

그 문제는 오민아의 생각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주방에 갔던 오민아가 송농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끝이 났고 송농을 마시면서 국태성은 오민아는 안방에서 자도록 하고 자신은 침낭을 가지고 응접실로 건너가는 것으로 내심 결정을 한다. 서로 간에 상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

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이날 저녁에 들이서는 이렇다 할 불편 없이 침낭이라는 이부자리를 사용해서 따로따로 잠자리에 들어갔다.

다음 날 국태성은 첫새벽에 눈을 뜬다. 국태성이야 원래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지만 오민아가 언제부터인지 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척이 들려왔다. 국태성은 침낭에서 빠져 나온 뒤 옷가지만을 들고 슬그머니 현관 쪽 세면장으로 간다. 세면장으로 온 국태성은 거기서 옷을 입고 새벽 일과에 들어갔다.

오민아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허둥지둥 움직인 것 같다. 잘못도 없으면서 그렇게 움직였다. 세면까지를 끝낸 국태성이 응접실로 나와서 보니 오민아가 어디서 꺼내 왔는지 보를 가져다가 침낭을 싸고 있다. 국태성은 오민아와 눈이 마주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새에 안방으로 건너갔다.

안방의 책상 앞에서 국태성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메모한다. 작부일지도 펴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은 김귀성이라는 사람이 땅을 보러 오는 날이다. 만나면 알 일이지만 구면일지도 모를 초면이다. 보여줄 땅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땅의 값을 미리 매겨 놓자매 오늘 일찍 면사무소에 가든지 해서 공시지가를 알아볼 일이 남아 있다. 그런 다음 월말에는 서울을 다녀온 후에 두레박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장과 총무를 정식으로 선출하자는 의견들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들에게 통지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아씨가 서울로 올라갈 날이 내일이다. 농장 일 말고도 이렇게 서너 가지 일들이 가까이에 놓여 있다. 메모를 마쳤으니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 메모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가지씩 처리도 하고 준비도 해 나가야 한다. 국태성이 이려고 있는 동안에 주방의 오민아는 조리대와 싱크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준비를 한다. 국태성이 쓰던 재료와 도구만 가지고 그럭저럭 두 사람 몫의 조반을 준비해 내는 모양이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서울에 가면 학교는 개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전근 문제와 부딪쳐야 한다. 개학 생각만 하면 전근 문제가 함께 떠올랐다. 오민아는 아침 준비를 겨우겨우 마치고 어디에 밥상을 차려 놓을까를 생각한다. 그러다가 주방 앞 식탁에 차리기로 한다. 안방에서 태성씨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방쪽은 피하고 아예 주방을 택했다.

국태성이 이제부터 김귀성씨의 연락이나 집에서 기다릴 생각으로 일거리들을 일단 접어 두는데 오민아가 왔다.

“아침 식사 하세요, 태성 씨.”

오민아는 이 말만 건네주고 돌아간다.

오민아가 방금 하고 간 그 말이 카랑카랑하니 음식에 자신이 있다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국태성은 도무지 궁금하다. 음식 재료가 여의찮았을텐데 무엇으로 식사 준비를 했다는 것인지가 자못 궁금했다. 하여간에 응접실로 건너간다. 그런데 주방 앞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국태성은 조금은 놀랐다. 반찬은 두세 가지이지만 만두국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닌 밤중에 차시루떡이라더니 웬 만두국이 상에 올려져 있나?’

생각하며 국태성이 식탁 앞에 앉아서 수저를 들고 오민아의 얼굴을 바라

보는데

“지난 번 읍내에 갔을 때 만두를 사왔어요.”

오민아가 말했다.

그날 오민아가 만두를 사 왔다는 것을 국태성은 미처 몰랐었다. 국태성은 맛을 봐 가며 만두국을 천천히 먹는다. 맛있게 먹었다. 오민아는 국태성이 네댓 손가락 뜯 때까지 앉아서 지켜 보다가 주방쪽으로 간다. 어떤 때는 검상을 했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독상을 차려 줬다가 하는 오민아다. 워낙 갖춰진 살림살이가 아니니 그러리라는 것을 국태성도 알기에 하라는 대로 독상을 받아 놓고 그저 혼자만의 만두국 감상에 지금 빠져 보고 있다.

국태성은 식사를 하면서 김귀성씨가 도착할 때까지 서너 시간 동안 해야 할 일거리를 생각해 본다. 그 시간 동안에는 두레박 일을 하기로 한다. 두레박 일은 산나물 짐 꾸리기를 위한 품앗이 사업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일과 두레박 회장과 총무를 정식으로 선출할 회의를 소집하는 통지서 작성이다.

식사를 마친 국태성은 대흥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김귀성씨에게 소개할 땅의 공시지가를 물어서 적어 놓 다음에 맹 영감에게 전화를 했다. 휴대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집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휴대 전화를 쓸 생각이다. 맹 영감이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품앗이 사업을 위한 이어가기식 연락과 회의 소집 통지서 발송을 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그러니 이제는 짜여진 연락망에 따라 회원 세 명에게 연락을 지체 없이 했다. 자신이 총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순서인 셈이다.

국태성은 시계를 본다. 아직 서울 쪽 손님이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

으니 그 시간을 쪼개서 두레박 회의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고 주소지와 봉투도 함께 준비했다.

국태성이 회의 소집 통지서 발송 준비를 끝낼 즈음에 전화가 온다. 김귀성 씨의 전화였다. 유리하우스 있는 데로 오겠다고 한다. 예산역 근처에서 놓여촌 버스를 탈것이라고도 했다. 국태성은 버스 시간표에 맞춰서 예당호 쪽의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에 자전거를 찾아 놓는다. 그런 다음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 땅의 도면과 서류들을 들고 김귀성에게 보여 줄 산밭으로 다시 가서 경계를 한번 더 확인해 본 후에 이제는 버스가 통과하는 시각에 늦지 않게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갔다.

8월의 하늘, 토요일의 하늘이 맑다. 늦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길 위에 닿았다가 되쏘는데 예당호반의 바람결은 살랑살랑 가을을 부르고 있다. 버스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그리 통행이 잦지는 않은데 이제 시각이 거의 다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태성은 버스 정류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는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류장 벽에 붙여 놓은 시간표에 늦지 않겠다고 하는 듯이 버스가 한 대가 부지런히 달려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류장 앞에 버스가 서자 곧 내리는 단 한 명의 남자 승객, 국태성 쪽에서는 봤던 듯도 한데 상대방으로부터는 벌써 웃음을 보내고 있다. 서로가 가까워졌을 때 물을 것도 없이 양쪽이 모두 양손을 내민다. 악수를 했다.

“제가 김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태성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 먼저 해 놓고 통성명도 했다. 국태성이 보니 상대 쪽 청년

이 자신보다는 나이가 적어 보였다. 그러나 잘못 보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세 번 뜯어 봐도 나이를 물어보고 싶을 만큼 엇비슷해 보였다.

“저는 태성씨를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

김귀성 쪽은 그런가 본데 국태성은 긴가민가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장에서 서로가 처음 대면했을 때 국태성은 혼자였지만 김귀성쪽은 여러 명이었다.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은 땅 구경 먼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산밭으로 향한다.

“이 자전거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김귀성이 국태성의 자전거를 보면서 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농촌에서는 꽤 쓸모가 있는데다 이 녀석은 지금 내가 끌고 간다가 보다는 도리어 이 녀석이 나를 부축해 주고 있다고 봐야죠.”

국태성이 보여 줄 산밭은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어서 불과 수 분 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산밭에 이르러서 김귀성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리저리 살펴봤고 국태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곁들여서 설명해 준다.

“잘 봤습니다.”

사들일 땅의 경계라든지를 꼼꼼히 둘러보고 난 김귀성의 말이다. 국태성이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에 들었는데 김귀성씨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떨는지 궁금한데 묻지는 않았지만 얼굴 표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김귀성이 토지에 대해서 볼 만큼 봤다는 반응을 보이니 국태성은 김귀성을 농장쪽으로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저의 집으로 가시죠.”

“그럴까요?”

국태성의 말에 김귀성은 산밭에서는 그만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다시 걸어서 되돌아 왔다. 국태성은 김귀성을 자전거 뒤에 태워서 페달을 밟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그만두고 함께 걸어서 먼저 농장의 유리하우스 안으로 김귀성을 안내한다. 김귀성에게 수경재배를 구경 시킨 후에 관리채는 그냥 문만 열어 보인 다음 산나물 건조장으로 해서 마을 회관 앞을 지나 의좋은형제마을의 곳곳을 설명해주면서 별채로 향한다.

이 시각에 별채에서는 곧 손님이 도착할 것임을 오민아가 알고 준비하는 중이다. 준비라고 해 봐야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주변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인연이 닿는다면 태성씨의 새로운 이웃이면서 협력자가 생기게 된다.

먼저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응접실, 주방을 한번 더 보고 안방에 방석도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나자 얼마 후에 손님이 오는 것 같다. 오민아는 이제 주방 쪽으로 갔다.

“어떻습니까, 땅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방에 자리를 잡아 준 국태성이 김귀성에게 이제는 땅을 본 소감을 묻는다.



“어려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귀성은 그 말만 하고 그 다음은 말이 없다.

국태성에게 다음 할 일은 금액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토지 대장을 꺼내 놓고 오늘 전화로 알아본 공시자가를 다시 대조해 보고 김귀성이 보는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매매 금액을 계산해서 매매 금액과 땅의 넓이를 함께 적어서 김귀성 앞에 놓는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관공서에서 매겨 놓은 공시 지가에 3할을 더했음도 얘기해 준다. 그 금액을 팔 사람이 받으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 김귀성은 알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계약을 하고 가겠다고까지 했다.

국태성으로서는 좀 놀라운 일이다. 한 번쯤은 가격을 낮추려고 할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믿어 버리려는 것 같은 눈치였다. 믿어주니 고맙다는 마음이 들 정도다. 일이 여기까지 이루어지자 국태성은 맹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오겠다고 대답을 들었다.

“땅을 파실 분이 곧 이리로 도착하겠다고 하십니다.”

국태성의 말이다.

김귀성은 시계를 본다. 돌아갈 시각을 생각해 보는 모양이다. 이때 주방 쪽에서 이쪽에 관심 두는 기척이 들린다. 짙이는 데가 있어서 국태성이 오민아에게로 가 보니 차 대접과 점심 식사를 어찌 하면 좋을지를 묻는다. 맹 영감이 도착하면 이곳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해야 할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차와 달걀 라면 재료를 준비해 두는 정도로 들은 의견

을 모은다.

이리고 있는데 맹 영감의 헛기침 소리가 났다.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리다. 국태성이 현관으로 나가서 맹 영감을 맞아 들였고 맹 영감은 국태성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넨다. 계약서 용지를 준비해 온 맹 영감이었다. 국태성은 김귀성을 보면서 맹 영감에게 인사를 하도록 권했다. 김귀성이 선 채로 허리 굽혀 맹 영감에게 인사를 하자 맹 영감이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첫 대면을 끝낸 세 사람은 자리를 잡아 앉는다.

국태성이 김귀성을 가리켜 땅을 살 사람이라는 것을 맹 영감에게 말로 재차 소개하면서 매매 계약이 시작되었다. 계약은 어렵잖게 이루어졌다. 국태성이 중간에 들어서서 땅의 넓이와 매매금액의 산출 내역을 설명하고 그 설명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겠냐는 물음에 맹 영감도 김귀성도 고개나 그덕이면서 이의가 없었고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에서부터 계약금 주고 받기까지도 잠깐만에 끝을 낸다.

잔금을 주고 받는 일자는 열흘 후인 8월 26일 화요일로 짧게들 잡았다. 김귀성이 시계를 또 본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김귀성은 일어섰다. 시각을 자주 확인하는 김귀성의 일정이 빠듯해 보였다.

“그럼 잔금 날에나 다시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국태성이 말했다. 함께 따라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다.

“내 차로 가지죠.”

맹 영감도 일어섰다.

김귀성의 사정이 바빠 보이는데다가 이 지역 교통 사정도 그러니 자신의 차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맹 영감이 김귀성의 뒤를 따라 나선다. 국태성은 김귀성을 집 밖까지 배웅한 후 응접실로 돌아왔다.

## 오민아는 여름 방학 끝머리에 서울로 가고

### 국태성도 그 후 월말을 맞아 서울 본가행

때맞춰서 오민아가 커피 잔을 들고 와서 국태성과 식탁에 마주 앉는다.

“커피가 반갑네요.”

국태성이 커피잔을 들고 하는 말이다.

“커피로 한숨 돌리시라고요.”

그 말이 맞다. 오민아의 말대로 한숨 돌리려니 커피가 국태성의 입에 당긴다. 마셔 보니 짹짹 달콤함과 향긋함이 입안에 퍼진다. 분주했다면 분주했던 오전 일과도 오민아와 함께 마감 짓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민아씨는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여기 차표 있어요.”

커피 잔을 비우고 난 국태성이 지갑에서 차표를 꺼내서 오민아에게 준다. 오민아가 보니 내일 일요일 오후 1시 29분에 예산역을 출발하는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다. 7호차 43호석이라고 찍혀 있고 용산역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후 3시 21분이다.

“내일 가면 가자마자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묻는다.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쓰죠?”

“사랑의 얘기를 쓰기로 어제 얘기가 되었잖나?”

“알겠어요.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겠어요.”

이때 바깥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황보 여사가 들어오고 있다.

“내가 또 훼방 냈나?”

황보 여사가 들어오려다가 제자리에 선다.

“내가 잘못 왔군.”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는 척한다.

“아니어요, 언니. 어서 오세요.”

오민아가 황보 여사의 팔을 잡았다. 급히 일어나서 잡는다. 황보 여사가 안방으로 건너간다. 오민아와 국태성도 뒤를 따라 안방으로 갔다.

“내가 여기 온 건 내일 동생이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이지.”

황보 여사가 안방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다.

“이걸 서울 어르신들께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들고 온 보따리를 오민아에게 준다. 오민아가 받아 들었을 때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다. 보자기를 풀어서 보니 자그마한 단지다.

“그 단지 안에 무말랭이 장아찌를 넣었어. 별것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무말

랭이 같은 거 말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지.”

맞는 얘기다. 그리고 고마웠다. 2주쯤 전이던가 무말랭이 장아찌를 별채로 갖다 주더니 이제는 서울의 부모님까지 생각해서 예쁜 옹기 단지에 따로 담아 놔다가 가지고 온 언니의 얼굴을 오민아는 다시 한번 바라본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오민아는 그저 보자기를 다시 묶을 뿐이다.

“나는 이제 가야겠네.”

황보 여사가 일어섰다. 오자마자 되돌아간다. 오민아와 국태성이 뒤쫓아 나가려고 했지만 황보 여사는 현관 밖으로까지는 못 나오도록 애써 말리고 돌아갔다.

이제 오민아는 주방 쪽으로 발길을 향한다. 한 끼는 라면으로 그리고 또 한 끼는 공기밥 정도로 넘기는 그런 식사 준비를 하러 간다.

그런데 점심 식사도 하기 전인데 오민아에게는 저녁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벌써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일찌감치 잠자리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애매한 잠자리를 꾸며야 된다. 오늘도 태성씨는 침낭이라는 것을 차지하나? 그렇다면 어디에다 그 침낭을 놔야 좋은 가를 생각하니 방도가 서지를 않는다. 태성씨가 잘 곳과 내가 잘 곳을 함께 생각해 보자니 괜히 설렌다. 까닭 없이 설레 온다.

국태성이 주방으로 왔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아직 정해놓지 않고 있는 오민아 옆으로 온다. 국태성은 국수 멍치를 어디선가 찾아냈다. 둘에게는 서너 끼 분량은 충분히 되어 보인다. 오민아가 생각할 때 농장에서 가져올 적에 함께 딸려 온 것 같다.

국태성이 오민아의 옆으로 다가서서 움직인다. 물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국태성은 멸치와 소금과 계란, 그리고 양념 한두 가지만 써 가지고 똑딱 물 국수를 만들어 낸다. 이런 정도로 점심을 때우고 난 국태성은 김귀성과 만나 느라 멈췄던 두레박 회의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일에 오후 시간을 썼다.

통지서를 펜으로 써서 그것을 다시 회원 수대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자전거를 타고 면사무소에 다녀와야 했다. 그리고 편지 봉투와 회원들의 주소지는 여러 벌 마련해 뒀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다.

국태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오민아는 집안 청소를 주로 했다. 안방에서부터 응접실, 세면장, 현관, 그리고 주방까지 실내 청소를 끝낸 다음에는 현관 밖으로 나가서 손이 가는대로 움직였다. 풀뽑기도 한다. 멀지 않아 다시 오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청소를 했다. 방학동안 이곳에 머물며 태성씨와 쌓은 정분은 가슴에 간직해 두고 이제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 온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오민아와 국태성은 주방에 섰다. 다시 함께 서게 된다.

“저녁엔 비빔국수를 만듭시다.”

국태성의 식사 준비는 늘 초라했다. 오늘 저녁도 그렇다.

“비빔국수는 어떻게 만들죠?”

오민아가 국태성을 쳐다본다. 국수를 비벼내는 데는 별로 자신이 없는 오민아다.

“간단해요. 소금, 설탕, 고춧가루, 들기름 정도면 돼요.”

국태성은 자신있게 말한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양념들이

있다는 얘기다. 국태성의 비빔국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고 두 사람은 웃음을 섞어가며 맛있게 먹는다. 세끼 모두를 밀가루 음식으로 때우면서도 그래도 저녁 시간이 즐거움으로 지금 다가올 뿐이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

어둠이 깔려 오면서 오민아는 더 할 일도 없고 이대로 잠이나 청하고 싶어졌다. 태성씨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잠자리를 어떻게 펴야 좋을지가 오늘도 문제다. 태성씨의 생각이 어떤 지가 궁금하다. 어제처럼 오늘도 태성씨는 침낭을 가지고 응접실로 갈 것 같기도 하지만 그저께처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며 잔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콩닥거린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런 방법이 싫지는 않다 해도 태성씨의 생각이 중요하다. 오민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국태성은 국태성대로 생각 중이다.

침낭을 가져다 놓을 장소가 문제다. 오늘도 침낭 속에서 자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침낭은 민아씨가 가지고 있다. 아침에 보자기로 썼으니 어딘가에 놔 뒀을 것이다. 그러니 민아씨가 하는대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텔레비를 켜다. 이걸 보면서 시간이나 보내기로 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오민아가 안방으로 온 것 같다. 와서 움직인다. 국태성이 고개를 슬쩍 돌려서 보니 오민아가 이부자리를 가지고 와서 그저께 서로 번갈아가며 자던 그 자리에 지금 펴고 있다. 침낭 보따리도 함께 놓여 있다. 국태성은 고개를 다시 돌려 텔레비로 시선을 가져갔다.

“태성 씨, 오늘은 태성씨가 여기서 주무세요.”



불과 일이 분도 지나지 않아서 오민아가 말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 국태성을 뒤에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다. 국태성이 뒤돌아보니 아랫목이라고 할 만한 바로 그 곳에 이부자리와 침낭이 나란히 펼쳐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국태성은 왜 그렇게 퍼 났는지를 생각해 본다.

혼자 떨어져서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여자라고 했던 오민아의 말이 떠오른다. 국태성은 말대답은 없이 혼자서 고개만 그덕인다. 오민아의 손은 이부자리에 가 있다. 발치쪽을 매만지고 있었다. 국태성이 들을 때 오늘은 자신이 침낭을 차지해 보겠다는 얘기 같다. 국태성이야 시키는대로 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말은 없이 민아씨가 자신을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혼자 고개를 그덕여 응대를 할 뿐이다.

어쩌다가 민아씨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며 이런 곳에서 잠자리를 갖게 까지 되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태성은 계속해서 텔레비나 보자니 따분하고 이부자리쪽으로 간다고 해도 시각이 아직은 이르고 이제는 다른 할 일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민아씨가 왜 벌써부터 이부자리를 퍼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럴까 저럴까 해봐야 텔레비나 보는 쪽이 그래도 제일 낫다.

이때 이젠 모두 끝났다는 듯 오민아가 자리를 뜨는 것 같다. 잘 되었다. 어서 겹옷만 벗어 놓고 이부자리로 들어갔다. 오민아가 하라는 대로 이부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텔레비전한테로 시선을 가져갔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 국태성은 텔레비에다 시선은 뒤편이지만 머리 속으로는 오민아가 내일이면 서울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독신 생활에 익숙해 있지만 요즘은

얼마 동안은 민아씨가 있어서 좋았다.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주방으로 건너 온 오민아는 오민아대로 생각을 한다. 오늘 밤은 침낭에서 자야 하는데 태성씨가 쓰던 것이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다. 별 경험을 다 해 보는 것 같다. 시간은 어느새 지나고 밤이 다가오자 국태성과 오민아는 함께 같은 방에서 침구만 따로 하고 잠을 청했다.

서로 반대 편 쪽을 향해 모로 누워서 어설픈 잠을 잔다. 그래도 용케 잠을 설치지는 않고 누가 봐도 둘 다 곤히 자고 있다고 볼 만큼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오민아가 먼저 잠을 깨서 보니 새벽 여섯시다. 이곳에 오면서부터 아침 잠이 적어진 것이 자신이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늘 어머니에게만 의지했던 아침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일어나다니 대견스럽다고도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늘은 떠나야 한다니 쓸쓸해진다. 태성씨와 멀어지는 것이 애잔 하거니와 이렇게 맑은 새벽 공기가 그리워질 것 같다.

그렇지만 갔다가 속히 다시 오면 된다. 이쪽의 새벽 공기를 평생토록 마실 수 있게 되는 방도가 있으니 다행스럽다. 오민아는 국태성이 아직은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안방에서 빠져 나왔다. 주방으로 왔다. 새로이 하루가 시작된 의좋은형제마을농장에서는 오민아가 오후에 일찍 서울로 떠났다. 멍 영감의 도움으로 오민아를 그의 트럭 편에 태워 보내고 두레박 회의 소집 통지서 발송도 멍 영감이 맡아가지고 간 뒤 국태성이 농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황보 여사한테서 휴대 전화가 왔다. 얼마나 행하겠냐고 한다. 지금은 갔지만 다시 여기로 오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넘게 지난 이른 아침에 김귀성으로부터 국태성에게

농장으로 연락이 왔다. 오전 11시에 토지 매매 잔금을 지불하러 유리 하우스 옆 관리채로 도착하겠다는 전화다. 맹 영감에게도 자기가 연락을 해 냈고 자기 차로 농장까지 오겠다고도 했다. 장소를 지정해가며 관리채 안에서 기다리면 되겠다는 얘기도 한다.

김귀성과의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맹 영감으로부터도 전화가 왔다. 휴대 전화다. 자기는 땅 살 사람보다 조금 일찍 10시쯤에 오겠다고 한다. 자기네끼리도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한다. 맹 영감과 통화는 끝나자 금방 또 전화가 왔다. 전화기에서 손을 떼자마자 오곤 한다. 이번 전화는 황보 여사가 잠시 후 이곳 별채로 오겠다는 전화다. 늘 드나드는 황보 여사 이기는 하지만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니 잘 된 일이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익히게 된다면 일석 이조가 아니라 일석 삼조다.

국태성이 시계를 보니 여덟 시를 향하고 있다. 세 사람이 모두 여덟 시 쯤을 택해서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 해 나갈 일들을 짚어 본다. 작부 일지를 폈다. 어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썼던 내용을 다시 살폈다.

예정사항을 보니 「두레박 총회 준비」가 써여 있다. 그래서 그 준비 사항을 생각해 본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을 하기로 통지가 되어 있다. 맹 영감을 선출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지만 당사자인 맹 영감과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이제는 말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얘기를 오늘 하기로 한다. 그리고 총회 통지서가 오늘 발송이 되겠지만 통지서를 발송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씩 전화 통지를 하는 일이 꼭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전화를 한번 하고 회의가 있기 바로 전에 한번 더 해야 한다.

그래서 국태성이 전화 통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우체국 집배원이다. 편지를 전해준다. 오민아로부터 온 편지다. 오민아가 떠난 후 한번씩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또 왔다. 두 번째 편지다. 오민아가 떠난지도 오늘로 열흘이 되었다. 편지를 읽어 보니 거의 매일같이 이곳으로 전근해 오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로 채워져 있다. 만일 전근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을 해서라도 귀농하려고 한다는 말도 썼다.

오민아의 편지를 읽은 국태성도 편지를 썼다. 서울에 올라가서 오민아에게 직접 줄 깜짝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 놓는다. 이때 황보 여사가 왔다. 방으로 들어선다.

“오늘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하셨나요, 태성씨?”

황보 여사는 손에 들고 들어온 것을 내려놓더니 보자기를 푼다.

황보 여사가 가져온 것은 김밥이었다. 은박지에 나눠서 썬 것을 한 뭉치만 남겨 놓고 너댓 뭉치를 들고 주방쪽으로 건너가서 냉장고에 넣는 것 같았고 다시 그쪽에서 상을 들고 와서 남겨 놨던 것 한 뭉치를 상 위에 올려 놓는다.

“새참 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김밥 좀 말아서 가져왔어요.”

황보 여사가 은박지를 푼다. 국태성은 주저할 것도 없이 한 덩어리 집어서 입에 넣는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 간식 거리라면서 챙겨온 황보 여사의 속마음을 국태성은 읽었다. 이 김밥이 국태성에게는 아침밥이 되고 있었다.

“편지를 쓰셨나 봐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보고 황보 여사가 묻는다.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민아씨에게 썼습니다.”

“동생이 떠난지가 열흘은 넘었죠?”

황보 여사의 말이 국태성에게는 핀잔처럼 들렸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황보 여사의 꾸짖음 같은 말에서 벗어나겠다는 두 번째라는 대답이 국태성의 입에서 빨리 나왔다.

“동생한테서 편지가 왔나요?”

“예, 민아씨가 보낸 편지도 받았습시다.”

황보 여사가 좀 끈덕진 것 같으면서도 그런 꼼꼼함이 국태성에게는 얇은 정을 느끼게 한다. 황보 여사가 더는 편지 얘기는 하지 않는다.

“여사님, 농장에 가시겠어요? 거기서 맹 영감이 잔금을 받고 저쪽한테 땅을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도 괜찮겠죠?”

“괜찮다 뿐이겠습니까? 입회해 주셔야죠. 서로 안면도 익히시고요.”

국태성의 김밥 식사가 끝나면서 두 사람은 농장으로 갔다. 농장에 와서 유리 하우스를 잠시 둘러본 다음 관리채에서 자리잡고 십여 분쯤 지났을 때 맹 영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사님도 여기서 뵙게 되는군요?”

황보 여사를 보면서 맹 영감이 인사를 먼저 건넨다.

“저도 참견 좀 하려고 왔습시다.”

얼른 국태성과 함께 일어서면서 황보 여사가 인사를 했다.

“그러셔야죠. 오늘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오는데 얼굴 구경도 하셔야하고요.”

“다음 달 12일에 두레박 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회원들께 띄웠습니다.”

세 사람이 장판방에 함께 앉으면서 국태성이 맹 영감에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르신을 정식 회장님으로 모시겠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맹 영감이 국태성에게 묻는다.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한다. 국태성은 이 질문에 자신이 대답을 해야 하는지, 대답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를 잠시 생각한다. 그러다가 대답했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태성의 말을 들은 맹 영감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역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이 11시를 넘기는가 싶을 때 김귀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마터면 늦을 뻔 했습니다.”

김귀성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다.

국태성이 내려놓은 방석 위에 네 사람이 둘러 앉고 보니 황보 여사와 김귀성은 초면이어서 국태성은 두 사람간의 인사를 먼저 시켰고 이어서 잔금을 주고 받는 일도 이루어졌다. 거래 당사자는 맹 영감과 김귀성이고 중개인은 국태성, 그리고 황보 여사는 입회인이 된 셈이다.

“중개료를 드려야죠?”

맹 영감이 국태성을 보며 묻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니 중개료는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국태성의 대답이다.

“그러시다면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맹 영감의 생각이다.

“점심 식사는 저의 집으로 모시겠어요. 변변치 않지만.”

황보 여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일어선다. 국태성이나 맹 영감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황보 여사가 했다. 그렇지만 무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이 모두들 따라 일어선다. 황보 여사가 김귀성과 함께 앞에 가고 그 뒤를 국태성과 맹 영감이 따른다.

“오늘 땅을 판 돈은 두레박을 위해서 모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맹 영감이 국태성에게 말했다.

“네?”

국태성은 놀란다. 생각지도 못 했던 얘기를 지금 맹 영감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다. 눈을 크게 뜨면서 맹 영감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태성이 다시 묻는다.

“선친의 말씀을 따르는 것 뿐이죠.”

맹 영감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는다. 선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물을 수도 없다. 표정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일행은 황보 여사의 집에 도착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황보 여사가 점심을 내왔다. 점심은 뭉뭉씩 식판에 차렸는데 김밥에 맨된장국과 단무지가 함께 얹혀 있다.

“옛 생각이 나게 하는 음식입니다.”

맹 영감이 황보 여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다.

“김밥을 보니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던 생각이 납니다.”

국태성도 한마디 했다.

“점심이라는 것이 고작 김밥에 맨된장국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황보 여사가 하는 말이다.

“김밥과 된장국이 썩 잘 어울립니다.”

김귀성이 말했다.

황보 여사가 김귀성을 볼 때 지금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것을 입 모습과 눈가에서 읽을 수 있었다. 네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맨된장국은 이름처럼 물에다가 된장을 풀고 파,마늘 정도만 넣어서 만들어 낸 건더기가 없는 된장국이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 황보 여사는 승냥 맞춤으로 녹차를 가져왔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김귀성이 일어선다. 찻잔을 비우고 나자 곧 일어섰다.

“언제쯤 다시 오시겠습니까?”

국태성이 묻는다.

“특용 작물이 준비되는 대로 구시월경에 뵙겠습니다.”

“특용 작물이라면 그 중에 어떤 것인가요.”



국태성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비교해 가며 알맞은 것을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김귀성은 이렇게만 대답하고 바깥으로 향했고 황보 여사가 집 밖까지 배웅 나간다.

“오늘하고 내일은 두레박 회의 소집에 대해서 회원들과 전화 통화 좀 하고 나서 모레는 서울엘 다녀오겠습니다.”

배웅 나갔던 황보 여사가 들어오자 국태성이 맹 영감과 황보 여사에게 말했다.

“그러세요? 벌써 월말이 다가오는군요.”

맹 영감의 말이다. 매월 월말이 되면 국태성이 서울에 다녀온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모레 가셨다가 이번에는 언제 오시나요?”

황보 여사가 묻는다.

“모레는 가는 날, 글피는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글피는 돌아오는 날, 그렇게 해서 사흘 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곳이 못 미더워서 어떻게 사흘씩이나 쓰세요?”

황보 여사가 또 물었다. 사실이 그랬다. 농장 일에 매달려야 하니 황보 여사의 말처럼 국태성의 서울 나들이는 언제나 마음이 바쁘기 마련이다.

“이제 가 봐야겠습니다.”

국태성이 일어섰다.

“나도 움직이립니다.”

맹 영감도 함께 일어난다.

황보 여사의 집을 나와서 맹 영감과 헤어진 국태성은 별채로 왔다. 이제 부터는 전화를 걸기로 한다. 두레박 회의 소집 전화다. 소집 통지서는 보냈지만 그렇더라도 받았는지, 받았다면 참석할 것인지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 바통 주고 받기식 연락은 품앗이 사업에 쓰는 방법이고 회의 소집은 문서 뿐 아니라 전화 연락이 필수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 대로 열 명 남짓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가 안된 쪽은 내일 걸기로 한다.

다음은 민아씨에게 줄 깜짝 편지를 펴서 본다. 민아씨의 손에 쥐어 주기 전에 한번 더 읽는다.

「민아씨에게,

오늘은 어머니께 그리고 아버지께 민아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의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국태성으로부터.」

편지를 읽어보고 난 국태성은 혼자서 픽 웃음 짓는다. 편지를 읽은 오민아의 얼굴 표정을 상상해보면서 국태성은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잘 넣어둔다.

이튿날 국태성은 회원들에게 전화를 마저 거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래서 두레박 회의 소집을 위한 전화 연락은 모두 끝낸다. 이번 회의에서 회장과 총무를 정식으로 선출하게 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일은 서울엘 가야 하니 그 준비를 한다. 예산역에 전화로 열차표 예매를 하고 오민아에게는 자신의 용산역 도착 시각이 오후 2시 11분이라는 것을 휴대 전화에 문자로 보냈다.

이튿날 국태성은 용산행 열차를 탔다. 예산역에서 12시 33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다. 열차가 천안역을 지난 지 수삼분 후에 국태성의 휴대 전화에 진동이 울린다. 열어보니 오민아가 용산역으로 마중 나오고 있다는 문자가 올라와 있다. 국태성은 주머니에 넣어 둔 깜짝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차창 밖은 산과 들이 새 옷을 입었다. 한 달하고 열 사나흘이던가 열 대엿새던가 만에 다시 바라다보는 들판은 누런 빛을 띄어가면서 오곡백과가 알알이 익어가는 색깔로 물들었다.

국태성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열차 여행 끝에 마침내 용산역에 내려서 보니 그곳에는 오민아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오늘도 동생 민철과 함께다.

## 용산역에 도착한 국태성과 기다리던 오민아

### 국태성의 부모에 이어 오민아의 부모에게 인사

세 사람이 탄 승용차가 시가지로 들어섰을 때 국태성은 가지고 있던 깜짝 편지를 접혀진 채로 옆에 앉아 있는 오민아에게 준다. 오민아가 퍼서 본다. 국태성은 오민아의 생각은 어떤지가 조금은 궁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때 오민아는 편지를 도로 접어 쥐더니 고개를 돌려 국태성을 보면서 끄덕끄덕 했다. 눈 가장자리며 입가에 미소까지 띤다. 그러더니 운전대의 동생한테 국태성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국태성은 어느새인가 오민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승용차는 국태성의 집 앞에 멈춰 선다.

국태성의 집 안방에서는 국태성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민아는 국태성의 부모님에게 절을 했다. 세배 절을 한다. 국태성의 부모도 오민아를 향해서 맞절을 했다. 묵묵히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준다. 국태성 부모의 시선은 오민아에게로 가 있다. 절을 시작하기 전부터 절을 하고 일어난 다음까지 오민아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민아의 몸가짐을 바라보는 국태성

부모의 눈빛에서는 흐뭇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리고 국태성이 오민아를 동반해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치들이다.

국태성의 모친이 상을 가져왔다. 차와 과자가 올려진 다과상이다. 조출했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듯이 보인다. 오민아는 주저함 없이 찻잔과 과자에 손을 가져갔다. 오늘 이 자리가 국태성의 부모님과과는 첫 만남의 자리여서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는데 그럴수록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긴장을 풀고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하자니 쉽지가 않았다.

국태성의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오민아는 안방에서 물러나 이젠 국태성의 방으로 건너왔다. 처음 들어와 보는 방이다.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아 보이는 방에는 큼직하다고 느껴지는 책상 하나가 홀로 놓여있다. 검소해 보이는 방이다. 이 방도 역시 장판방인걸 보니 태성씨가 즐겨 꾸미는 장판방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아랫목이 조금 검게 그을린 듯한 장판방을 이곳 서울에서 볼수 있다니 느낌이 새롭다. 국태성은 방석을 깔아서 오민아를 앉힌다.

“이제 곧 민아씨 댁에 인사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국태성이 자신도 방석을 깔고 마주 앉으면서 하는 말이다.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옳죠.”

오민아는 아무 말이 없다. 인정하는 눈빛이다.

“내가 내일은 서울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고 모레는 서둘러서 농장에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개학하면서 바로 진출 신청을 해 봤는데 생각 했던대로 시골쪽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멀잖아서 무슨 통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이젠 파전집으로 가십시다.”

“그러시겠어요?”

두 사람은 국태성의 집을 나왔다. 그리고 오민철이 기다리고 있는 승용차에 탄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다.

어쩌다 점심 시간을 놓치게 되었지만 그래도 출출한 참에 충무로 빈대떡 집에서 늦은 점심을 새참 겸 챙겨먹을 것 같다. 시가지는 복잡하지 않고 시원스럽게 달려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해야겠습니다.”

자리를 정해서 앉으면서 국태성이 하는 말이다.

“내가 한번 더 대접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건 맞는데 오늘은 바꾸기로 하죠.”

이래서 파전 한 접시에 국태성 앞에는 소주 잔이 놓였다. 빈대떡도 주문해 봤으니 그것 역시 곧 나오게 되어있다. 오민철이 소주 병마개를 돌려서 따더니 국태성의 잔을 채웠다.

“민철씨라고 했던가요?”

국태성이 오민철에게 묻는다. 알면서도 이름을 다시 묻고 있다.

“예, 오민철입니다.”

“내가 민철씨한테 말을 놔도 괜찮겠죠?”

“예, 물론이죠. 그러셔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을 놓기로 하고 언제 민철 군네 집에 나를 한번 초청해 줄 수 없을까?”

“네?”

“나를 초청해 주면 그 계제에 민철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민철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오민아를 쳐다본다. 누나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하다는 눈빛이다.

“어서 대답을 드리렴. 그 대답은 네 몫이잖니?”

누나의 생각이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대로 대답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보는 오민철이다.

“곧 저의 집으로 모실 날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한 뒤에 내는 오민철의 대답은 신중해서 부모님의 의향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린 것 같아 보였다. 국태성은 오민철의 반응이 긍정적인 쪽임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고 답을 줘요.”

이제는 날짜를 정하는 것만 오민철의 몫으로 남는다.

점심 대용식으로 빈대떡과 파전 요기를 끝낸 세 사람은 다음 갈 곳을 오민아의 집으로 정하고 일어선다. 곧 날짜를 정하겠다던 오민철이 이심전심 오민아의 마음을 읽더니 생각을 바꿔서 지금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셋이서는 오민아 남매의 집으로 향한다.

“내가 잠시 들러 올 데가 있어요.”

국태성이 말했다. 승용차 앞에 와서 하는 말이다.

“오륙 분만 차 안에서들 기다려 줘요.”

그러더니 국태성은 어디론가 향했다. 그 후 말했던 대로 오륙 분쯤 지나서 국태성이 돌아왔다. 국태성의 손에는 천으로 된 정육점 가방과 정종병이 들려 있었다. 오민아의 집에 들고 가려는 선사품으로 보였다.

일행이 오민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민아의 부모는 집에 있었다. 국태성 으로서는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맞아 준다. 오민아는 국태성을 예산 주말 농장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국태성도 그 소개가 틀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민아가 폐를 많이 끼쳤지요?”

오민아의 아버지가 국태성을 보며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았습시다. 저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랬다면 잘한 일이네요.”

이번에는 오민아 어머니의 말이다.

“상 좀 차려 줘요.”

오민아의 아버지가 요청을 한다.

그러자 잠깐 만에 주안상이 나왔다. 오민아의 아버지와 국태성은 초면인 티라고는 별로 없이 정종 서너 잔씩을 권하거니 마시거니 한다. 여러 해 동안 스스럼없이 마주해 온 인척간이거나 선후배 사이처럼 보였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국태성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일어선다. 서운하리만큼 짧은 인사의 시간만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추석 연휴의 국태성과 오민아

### 두레박 활동과 그리고 농장 생활

오민아를 남겨두고 민철이 태워다 주는 승용차로 자기 집에 온 국태성은 남은 시간을 혼자 방에서 보낸다. 서울에서 지낼 2박 3일간의 일정을 생각해 본다. 일정이라고 해 봐야 내일은 모임에 참석하고 모레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 뿐이다.

여태까지의 국태성의 서울 일정은 그냥 다녀가는 정도였다. 하루는 오고 하루는 머물렀다가 하루는 돌아가는 것이 일정의 전부였다. 요즈음에 오민아를 만난 후부터 두 차례 충무로 파전 골목에 갔던 일이 기억에 남을 만한 시내 출입이었는데 그러다가 요번에 민아씨와 함께 나란히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일은 큰 변화요 보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일부러 계획한 것처럼 되었다.

국태성은 따스한 장판방에 누웠다가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렸다가 뒹굴뒹굴 하면서 콩담 장관 향기에 마음껏 취해 본 후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종이와 볼펜을 찾아 놓는다. 오민아 선생네 학생들의 수세미외 체험을 위한 진행

표를 만들기 위해서다.

먼저 체험 일자와 시간, 장소, 체험 종목, 그리고 필요한 수세미외의 수량, 학생의 수, 조 편성 등의 항목을 적고 그런 다음 거기에 맞춰서 표를 짰다. 오민아 선생을 대신해서 진행 계획서를 작성하자니 어려움이 조금은 따랐다. 그리고 요번이 그 학교 학생들의 두 번째 체험 학습이니 이제는 의좋은 형제마을농장이 서울에 있는 중학생들의 단골 체험 학습 농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다음 날 하루를 국태성은 서울 모임의 야유회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 농장으로 출발했다.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그리고 용산역에서는 예매해 놨던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를, 그리고 예산역에서 내린 다음에는 시내 버스를 탔다.

농장에 돌아와 보니 이삼일 만인데도 열흘도 넘게 비워 놔던 것처럼 스산했다. 우선 나들이 복장을 벗고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 입기 위해서 관리채로 들어가려는데 웬 쪽지 하나가 출입문에 꽂혀있다. 자기 집으로 전화해 달라는 황보 여사의 쪽지였다. 국태성의 전화를 받은 황보 여사는 한달음에 와서 편지 한 통을 국태성에게 건넨다.

“이 편지를 받아 봤어요.”

우편 집배원이 자기에게 주고 갔다는 얘기다. 이런 일은 그전부터 있어왔다.

국태성이 집에 없을 때는 황보 여사한테, 그리고 황보 여사가 집을 비웠을 때는 국태성한테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집배원에게 해 놔기 때문이다. 국태성이 걸봉을 보니 김귀성 씨한테서 온 편지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임존성

부락으로 귀촌할 준비를 하는 중인데 지난 번 사들인 땅에 두세 가지 정도 특용 작물 재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곧 내려가려고 하니 협조 좀 부탁한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

“김귀성 씨가 곧 오겠다는 편지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젊은 청년이 온다니 더욱 반갑군요.”

“언제 온다고 했나요.”

“아마도 올해는 약초 재배를 먼저 시작해 놓고 내년에는 이사를 올 모양입니다. 그리고 편지에 우리 마을의 이름을 임존성 부락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그럴듯한 이름이네요.”

“저한테 동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두레박 회원이 자꾸만 늘어나야 해요.”

“두레박 총회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 김귀성이라는 분도 참석하시게 해서 환영회를 겸한 총회가 되면 좋겠네요.”

황보 여사의 얘기다.

“회장 선출도 이번에 하기로 통지가 되어 있는 것 여사님도 보셨죠?”

“그렇던가요?”

“맹 영감님을 회장으로 모시자고들 하셨잖습니까?”

“맞아요. 그랬었네요.”

황보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이만 가겠습니다.”

황보 여사는 오래 머물지 않고 선채로 있다가 돌아갔다.

국태성은 오늘은 수세미의 터널 좀 다녀오기로 한다. 그 쪽을 가 본 지가 보름쯤은 되지 싶다. 수세미의 터널에 와서 보니 터널 속 수세미외들이 몸뚱어리를 길쭉길쭉 늘어뜨린 맵시가 소담스럽다. 터널 안팎을 두루 살펴보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국태성은 별채에서 김귀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레박 총회가 9월 10일 목요일에 있으니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춰서 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겠노라는 답변도 받는다.

이날 이후 열 이틀이 지나고 두레박 총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며칠 전에 회원들에게 한번 더 전화를 걸어서 모든 회원들로부터 참석하겠다는 대답도 받아 냈다.

11시가 가까워오자 회원들 23명이 한 명의 결석도 없이 모두 모였다. 오늘 새로 회원이 될 김귀성도 국태성과 함께 회의장에 도착했다. 총회에서는 맹관영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했고 김귀성을 새로운 회원으로 입회시켰다.

곧 이어 맹관영 회장은 국태성을 총무로 지명하더니 자신의 산밭을 판 돈 일 억 여원 전액을 입금시킨 통장을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총무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말했다.

“제가 선친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레박의 사업 자금을 오늘에야 내놓게 되었습니다.”

맹 회장은 이 말만 하고 더 이상의 말은 없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렇게 두레박 총회는 끝나고 주말을 넘긴 월요일에 국태성의 집을 김귀성

이 방문한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원님.”

국태성이 김귀성을 우선은 회원님이라고 부르면서 반가이 맞는다.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태성 동지님.”

김귀성이 국태성을 동지라고 했다. 국태성이 생각하고 있던 동지라는 말을 김귀성쪽에서 먼저 쓴다. 감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고장을 찾아 준 김귀성씨가 더 고맙다. 국태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약초를 가꿀 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을 살 때는 특용 작물이라고만 말하더니 오늘은 약초라고 한다. 두 사람은 밭으로 갔다.

“우선 황기랑 천궁, 그리고 당귀를 내년 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귀성은 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흙을 조금씩 뜨더니 비닐 주머니에 담는다. 토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태성도 뒤를 따르면서 한 시간 넘도록 함께 움직여 왔다.

이날 이후 열 이틀이 지난 9월 26일에 국태성은 월말을 앞두고 예산역에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오른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민아 남매의 마중을 받으면서 용산역에 도착한다.

서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오전에 국태성은 오민아의 집을 찾았다. 오민아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오민아가 오늘은 국태성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국태성이 오민아의 방을 구경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중학교 여선생님의 방은 어떤지 살펴본다.

한쪽 벽에 대어 놓은 작달막한 장롱과 앉은뱅이책상 하나가 전부인데 벽지의 환한 핑크빛 색채가 이것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국태성은 들어서 뿐인 여인의 집에서 오래 머물기 보다는 오늘은 방 구경을 했으니 오민아와는 내일 충무로에서의 점심 약속이나 하고 이내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의 충무로 파전집은 복잡했다. 일요일의 서울 거리는 한산한 편이었는데 그런데도 이곳 골목만은 꽤 붐비고 있었다. 겨우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국태성이 오른손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바싹 대 앉고 보니 남이야 보든 말든 오민아는 국태성에게 젓가락으로 파전이랑 빈대떡을 먹여주곤 해야만 될 정도였다.

장소는 비좁더라도 별러서 이 장소를 택해 별식을 나누는 두 사람은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용산역으로 갔다. 도중에 간간이 걸어서 갈 때는 오민아가 국태성의 팔을 껴잡고 걸었다. 붐비는 곳이 많아서 자칫하면 서로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걱정에 팔짱을 끼고 가야 할 때도 있었다. 오민아가 용산역까지 마중이나 배웅을 가는 것은 서로 말로는 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그렇게 움직여 주고 있다.

이제는 용산역이, 그 광장이 둘에게 만남의 장소이면서 헤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추석 연휴를 기약하면서 오민아와 헤어지고 장항선 열차에 오르면 국태성은 이박 삼일간의 서울 나들이를 마치고 대흥 땅 농장으로 돌아왔다. 국태성에게는 농장이 위치한 이곳 의좋은형제마을과 그리고 별채가 있는 효녀원홍장마을이 고향이 되어 버렸다. 제 2의 고향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한편 국태성을 떠나 보내고 난 오민아는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열 일 제쳐놓고 두 다리 뻗고 눕는다. 태성씨가 있는 농장에서 쇠졌다고 한 추석이 생각해 보니 여드레 앞으로 다가와 있다.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 5일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황금 연휴다. 연휴 기간에는 다시 태성씨한테로 가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 생각해 본다.

가슴이 콩닥콩닥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일은 그때 가서 태성씨에게 맡겨두면 된다. 이날 이후 오민아는 추석 연휴를 국태성과 들어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오직 그 생각 속에서 옛새를 보내고 몽매간에도 그리웠던 예산 땅의 농장으로 향했다.

장항선 하행 열차가 속도를 내자 차창 밖의 산과 들판, 그리고 가옥과 건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지나간다. 용산역을 출발한 열차가 예산역에 도착하기까지 오민아의 눈앞엔 농장의 유리 하우스, 그 속의 산나물들, 수세미외 터널, 관리채, 그리고 별채와 봉수산, 이런 것들이 어른거렸다. 그러던 한 순간 오민아는 파르르 몸을 떠다. 국태성의 얼굴이 성금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민아는 고개를 젓는다. 왜 고개를 가로 젓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러는지 설명이 안된다. 오민아가 예산역에 내렸을 때 맞이방에는 국태성이 나와 있었다.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민아 씨.”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오민아와 함께 가면서 국태성이 하는 말이다.

“저도 그러길래 서둘러서 왔잖겠어요?”

국태성과 팔짱을 끼가며 오민아가 답한다. 이곳 예산역 광장 앞으로는 농장 쪽을 향해서 시내 버스가 하루에 열 일여덟 차례 지나간다. 40 분에 한번 정도다.

“읍내에서 가구점 구경하던 기억이 나네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국태성과 나란히 앉은 오민아가 말했다. 오민아는 한 달쯤 전에 국태성과 함께 읍내에 갔다가 농장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노선의 버스를 탔던 것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다.

“이제 반트럭 한대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반트럭요?”

“우리 민아 씨를 마중 나올 때 써야겠어요. 장도 봐오고요.”

“농장에도 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걸음 칠 때가 많거든요.”

이때 시내 버스가 왔다. 기다리기에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시각에 버스가 승강장 앞에 와서 선다. 응봉을 지나 농장이 있는 대흥을 거쳐서 광시까지 가는 40인승 시내 버스다. 학생들 통학도 시키는 대형 버스다. 버스를 타고 오민아와 국태성이 농장에 와서 보니 김귀성 씨가 관리채 앞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다. 국태성이 예산역을 다녀오는 사이에 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김귀성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인과 함께였다. 김귀성과 묘령의 여인, 그리고 국태성과 오민아가 마주한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김귀성쪽에서 먼저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 만입니까?”

국태성이 손을 내민다. 악수를 청했다.

“한 달은 훨씬 넘었겠죠, 아마?”

악수를 하면서 김귀성이 하는 말이다. 오민아가 김귀성과 그 곁의 여인을 번갈아 바라본다. 여인에게로 그리고 김귀성한테로 바뀌가면서 시선을 가져 갔다.

“제 친구입니다.”

김귀성이 오민아를 보면서 함께 온 여인을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귀성의 소개에 잇달아서 친구라는 여인이 국태성과 오민아쪽을 향해 목례까지 한다.

“반갑습니다.”

오민아도 인사를 했다. 무어라고 인사해야 좋을지 몰라서 반갑다는 말로 대신한다.

국태성은 왜 이 여인이 함께 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친구 관계인지 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물어 볼 수는 없는 일이고 이네들을 우선 별채로 안내한다. 관리채가 옆에 있기는 해도 별채를 택했다. 국태성과 김귀성이 앞서고 김귀성의 친구라는 여인과 오민아가 그 뒤를 따라 네 사람은 별채로 향한다.

“저 사람은 제 약혼녀입니다.”

김귀성이 걸어가면서 국태성에게 하는 말이다. 약혼녀를 친구라고 소개했

다는 얘기가 된다.

김귀성이 이곳에 약혼녀와 함께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였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이곳에 정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태성은 신혼 살림을 이곳에서 차릴 예정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만뒀다. 국태성이 짐작할 때 김귀성쪽에서도 자신과 오민아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다. 굳이 묻지야 않겠지만 만약 물어 온다면 무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혹시 뒤에서 오고 있는 민아씨가 함께 걷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봐도 민아씨 또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정답이 없는 관계, 아직은 채 익지 않은 관계가 자신과 민아씨의 관계이지 싶다.

네 사람이 별채에 들어섰을 때 국태성은 맹관영 회장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의 자리를 함께 갖고 싶어서다. 휴대 전화에다 연락을 하자 지금 곧 오겠다는 대답이다. 황보 여사의 집에 들러서 오겠다고도 했다.

“새살림을 이 고장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채의 안방에 자리를 잡고 앉자 김귀성이 국태성을 보며 하는 말이다. 국태성의 짐작이 맞았다는 얘기다.

국태성은 단짝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감격스러움 같은 심정에 김귀성의 두 손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는 것을 억누른다. 국태성이 여섯 사람 몫의 점심으로 이 고을 별미인 즉석 어죽을 주문하고 오민아는 차 대접을 위해 물을 끓이고 할 때 맹 회장이 황보 여사와 함께 도착했다. 안방에 여섯 명이 모여서 둘러앉고 오민아가 모두의 앞에 인삼차 한 잔씩을 따른다.

“어른들께 인사 드리시죠, 미영 씨.”

모두가 말은 없이 차만 마시며 침묵이 잠시 흐를 때 함께 온 약혼녀에게 김귀성이 말했다.

“인사 드리겠어요. 박미영이라고 불러 주세요.”

박미영은 앉은 채로 인사를 했다. 일어서려고 하다가 김귀성의 눈치를 살피더니 그냥 앉은 자세로 고개만 숙여서 인사한다. 이어서 이번에는 박미영에게 맹 회장과 황보 여사를 김귀성이 소개했다. 성씨 정도만 알려주면서 서로 안면을 트도록 한다.

“이 두 분이 신혼 살림을 우리 마을에서 차리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직은 약혼을 한 사이인데도 국태성이 그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진행을 시켜서 신혼살림으로까지 이르게 했다.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그려.”

맹 회장의 말이다.

오늘부터 나흘간이 추석 연휴다. 모레가 추석이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이 맹 회장한테서 나왔다. 이 고을에 등지를 틀겠다는 예비 부부를 오늘 맞이해서 미처 생각지 않았던 새소식으로 좌중에 화기 충만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즉석 어죽이 배달 되었다. 이곳 예당 호숫가의 별미다.

“이젠 올라가겠습니다.”

식사가 끝날 쯤에 김귀성이 국태성에게 하는 말이다. 서울쪽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추석 연휴를 틈내서 약혼녀에게 이곳을 보여나 주려는 것이 김귀성의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국태성은 언제쯤 신혼살림을 시작할지를 물으려다 그만둔다. 잦힌 밥이 멀겠냐는 말도 있고 또 그런 것까지 묻는 것은 분수에 넘칠 수도 있어서다. 점심 숟가락을 놓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귀성은 일어섰고 약혼녀와 함께 떠났다. 맹 회장과 황보 여사도 잠시 뒤에 돌아가고 별채에는 오민아와 국태성 둘이만 남았다.

국태성은 한 달여 전에 짜 놓은 오민아 선생네 학생들의 수세미외 체험 학습 계획서를 오민아 앞에 가져다 놓는다. 계획서를 본 오민아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싶어 하자 둘이서는 수세미외 터널로 향했다.

“추석은 어디서 쇠श्य요?”

터널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민아가 국태성을 보며 묻는다.

“나는 작년에도 여기서 쇠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해마다 추석에는 소위 민족 대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쪽이 훨씬 낫죠.”

“?...”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으면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 나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श्य요?”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교통도 통신도 발달해서 가족끼리나 친지끼리도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는 세상이니 구태여 북적거리는 명절에 움직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은 수세미의 터널에 왔다.

“어머! 주렁주렁 매달린 것이 많이들 자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영글어야 하나요?”

“곧 수확을 해도 되겠어요.”

“아이들 체험 학습일이 열 사나흘 남았는데…”

“넌 모레부터라도 수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민아와 국태성은 다시 별채로 돌아온다. 국태성은 별채에서 시작해 수세미의 터널을 지나 봉수산 산자락까지를 산책 겸해서 늘 걷고는 했다. 햇살도 쪼고 맑은 공기로 심호흡도 하고 어깻죽지 근육도 풀어 주고 느슨해진 마음도 다잡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다니고 있다.

“어때요, 오늘 본 느낌은?”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묻는다. 나란히 걸으면서다.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 정도면 학생들 체험 자료로는 최고겠죠?”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는 됐습니다. 도회지 학생들에게는 좋은 체험 거리가 될 겁니다.”

별채로 돌아온 국태성은 전화를 걸었다. 반트릭 얘기를 한다. 오민아가 들어 보니 반트릭 구입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다.

“차를 사기로 했어요.”

전화를 끝낸 국태성이 오민아를 보며 하는 말이다. 반트릭 구입 문제를

결말졌다는 얘기다.

“아까 다녀간 분들이 언제쯤 이곳에서 신희 살림을 차릴까요?”

오민아가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간다.

“그렇잖아도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 됐어요.”

국태성과 오민아의 눈이 마주친다. 오민아는 묻느라고 국태성을 바라봤고 국태성은 대답하면서 오민아를 본다. 이때 전화가 울렸다. 국태성이 받아 보니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듣고서는 저쪽이 누구인지 얼굴과 연결지을 수 없고 토지 구입 얘기를 한다.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느지막이 내려와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는 얘기였고 이름은 엄태륜이라고 하면서 땅의 넓이는 천 오백 평 내외면 된다고 했다. 국태성은 멍 회장 생각이 났다. 토지 얘기라면 멍 회장과 대화의 면저일 것 같아서다.

전화를 받은 멍 회장의 대답은 생각한 대로였다. 자기 땅을 필요한 만큼 내놓겠다고 한다. 땅 부자의 통 큰 대답을 들었으니 이제는 팔고 사는 절차를 협의할 일만 남는다. 국태성은 앞으로도 이곳 의좋은형제마을쪽으로 향하는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들의 움직임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태성 씨, 우리 송편 빚어요.”

오민아의 얘기다. 국태성과는 달리 추석 명절 생각을 오민아는 하고 있다.

“송편 거리가 있어야 빚을 텐데요?”

국태성도 그쪽으로 생각을 돌린다.

오민아가 룯색을 가져왔다. 서울에서 올 때 메고 온 룯색이다. 그 룯색에서

오민아는 무명 천으로 짠 다음 다시 비닐 봉지에 넣은 멥쌀가루 반죽 몽치 두 덩어리와 양은 냄비에 담은 송편 소 거리를 꺼낸다. 소 거리는 검정 콩 삶은 것과 녹두 고물이었다. 반죽 몽치 중 한 덩어리는 썩을 넣어서 버무린 것이었다.

오민아는 다시 일어나서 밥상과 손가락 둘을 가져왔다. 함께 앉아서 송편을 빚는데 빚는 솜씨는 국태성쪽이 남자지만 훨씬 나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쟁하듯 빚었다. 이날 이후 오민아는 추석을 국태성과 함께 보내며 닷새 동안을 농장에서 지내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추석 다음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다.

국태성은 주문을 한 그 이튿날 벼락같이 자동차 매매 업자가 가지고 온 반트럭에 오민아를 태우고 이른 아침에 예산역까지 배웅을 갔다와서 일과에 들어간다. 지금 눈 앞에 와 있는 일은 임태륜이라는 이에게 소개해 줄 땅 문제다. 맹 회장과 연락을 해서 평수와 가격 등의 결정을 받아 내야 한다. 맹 회장에게 국태성이 연락을 하자 만나서 얼굴 좀 보자고 한다.

생각해 보니 맹 회장과 만난 지도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다. 전화를 끝내고 곧 두 사람은 만났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생각들을 하다가 점심 식사 겸해서 마을 안에 있는 식당을 택했다. 허름하지만 가까워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늘 아쉬울 때면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국태성의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땅 얘기를 꺼낸다.

“저 쪽은 서울의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인데 우리 마을의 농지를 얼마

좀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마을이 발전하자면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 들어야 합니다.”

맹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땅을 팔 의향이 있어 보였다.

“밭으로 천 오백 평 정도면 좋겠다고 합니다.”

맹 회장이 잠시 생각한다.

“천 이백 평이면 어떨까요? 산을 낀 밭인데.”

맹 회장의 대답이 시간을 별로 끌지 않고 나왔다. 임태륜 회원이 얘기한 넓이 보다는 조금 솔지만 괜찮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시면 제가 중간에 들어서서 두 분의 의견을 맞춰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국태성의 말에 맹 회장은 땅의 금새나 그 밖에 매매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국태성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소개비를 주겠다고도 한다. 거간 비용은 조선 시대랑 그 이전부터도 있어 왔다는 말도 했다.

두 사람이 지금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식당이라는 이곳은 초가집의 지붕을 걷고 새마을 운동 때 슬레이트를 얹었다가 그 후에 함석으로 바꾸고 또다시 얼마후에 기와를 얹은 허름한 집인데 투거리 보다는 장맛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이 집의 어죽은 그 맛이 일품이었다.

맹 회장과 식사를 끝낸 국태성은 별채로 와서 임태륜 씨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서 흥정을 하기 위해서다. 땅 주인을 대신해서 해야 할 흥정이다. 연락을 하고 나니 땅 값을 얼마로 정해야 팔고 사는 양쪽 모두에게 공평할까가 걱정이다. 아무튼 살 사람이 내일 일찍 오겠다고 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거래했거나 들은 것들을 수소문해서 땅 값을 정해 보기로 한다.



다음 날이 되자 약속 대로 엄태륜 씨가 승용차로 도착했고 국태성은 별채로 안내한다. 땅 흥정은 흥정이랄 것도 없이 국태성이 조정해 놓은 금액에 이루어졌다. 계약서를 작성한 엄태륜 씨와 국태성은 다음날 7일에 매매대금의 잔금과 매매 서류를 갖춰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맹 회장의 말처럼 이곳 부락에 이제 또 한 명의 부락민이 생길 것 같다. 땅만 사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오려는 것인지, 이사를 온다면 가족 모두가 옮겨 오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 이 부락과 인연을 맺을 사람이 생긴 것 만은 사실이다. 그날 이후 한 주쯤 지나서 국태성은 오민아 선생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게 될 장소를 끝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한다. 체험 날짜가 10월 17일 금요일이니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국태성은 수세미외 터널로 가서 이번에는 수세미외 한 개를 땀다. 그리고 준비해 가지고 온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려서 껍질을 벗겨 본다. 속은 옹골차다. 수세미외 들은 수확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듯하다. 이제는 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

다시 그 후에 또 이들이 지나고 학생들이 왔다. 오민아 선생도 다른 선생님들 두 명과 함께 있었다. 수세미외 터널과 농장 일대로 흩어진 학생들은 짜여진 순서대로 체험 학습을 마친 후 자신들이 만들어 봤던 수세미를 자기 수중에 넣고들 서울로 돌아갔는데 그때 오민아 선생은 농장에 남는다. 이번 주말 이삼 일간을 국태성과 함께 보내겠다는 생각에서다.

“내년 새 학기에 이쪽 학교로 전근을 올 것 같아요.”

오민아가 국태성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두 사람은 별채에 와 있다.

“기어이 결정을 했군요.”

국태성의 대답이다. 진작에 얘기를 나눈 일이니 국태성으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오민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울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더구나 젊은이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라 하겠지만 자신이 옳다 그르다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적잖이 반가운쪽이라고 말해 줘야 옳지만 그냥 있다.

“반갑지 않으세요?”

오민아가 묻는다. 그런데 그 대답을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국태성이다. 그러다가

“어떨 것 같아요?”

국태성이 되묻는다.

“반갑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부모님 허락은 받았어요.”

오민아한테서 부모님 허락 얘기까지 나오리라는 것은 생각 밖이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국태성은 오민아의 말을 듣고만 있을 뿐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오민아가 왜 그런 질문이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오민아의 속마음이 읽히기는 하지만 국태성은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말로는 내 보이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민아 씨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국태성은 눈빛으로만 반갑지 않을 리가 있겠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대화의 방향을 돌린다.

국태성, 오민아, 황보여사, 맹 회장 등

## 수세미 축제를 고을의 민속 축제로

오민아는 국태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해 보라는 시선을 보낸다. 눈길을 마주쳐 주고 있다.

“이 고장의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민아씨의 생각은 어때요?”

오민아가 눈을 깜빡인다.

“수세미 축제가 어떨까요?”

잠깐 생각을 하는가 싶던 오민아가 금방 대답했다. 진작에 연구라도 해 봤던 것처럼 축제의 이름까지 붙여서 말한다.

“이 마을을 수세미의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너 나할 것 없이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수세미의 마을로요.”

오민아의 눈에서 반짝 빛이 났다.

“그러자면 주민이 따라줘야 하는데...?”

“우선 태성 씨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세미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는 거죠.”

오민아의 말마디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들이 수세미의 체험 학습을 하는 것을 함께 겪으면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인 것 같다.

“자연산 수세미는 말 그대로 자연산이어서 요즈음의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예요.”

국태성이 들을 때 오민아의 생각이 옳기는 하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어느 세월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따라 올 만큼의 소득을 올려 보일 것이냐가 의문이기도 하다.

“수세미외는 일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세미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오민아의 설명이 구체적이다. 그럴 것 같다. 국태성의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농지 중에서 육 칠 할만 수세미외를 재배해도 적잖은 양의 수세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좋아요. 수세미 축제를 우리 마을에다 만들어 보기로 하죠.”

국태성이 오민아를 보면서 말에 힘을 심는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올해 추수철에 거둬들이는 수세미외 씨앗 모두를 내년엔 쓸 종자로 간수해 놓은 다음에 축제 계획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내년에는 이른 봄부터 두레박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씨앗을 뿌리는 일로 축제 준비를 시작해서 가을에는 축제를 여는 것으로 뜻을 모은다.

국태성은 우선 맹 회장을 자택으로 찾아가기로 한다. 두레박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열자면 맹 회장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문에 앞서서 맹 회장에게 전화를 걸자 외지에 나가 있는데 내일 돌아올 것이니 오후에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하루를 넘긴 다음날 국태성은 맹 회장을 자택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수세미 축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맹 회장의 생각을 묻는다.

“말하자면 수세미외를 우리 마을 효자 작물로 만들겠다는 뜻이로군요?”

맹 회장의 대답이다.

“그래서 금년에 저의 밭에서 수확하게 되는 수세미외 씨앗이랑 수세미를 모두 챙겨 놔뒀다가 마을 회의를 열어서 견본으로 분배하려고요.”

“견본요?”

“예, 그렇습니다. 두레박 회원들이 나눠 말아서 무료로 골고루 나눠 주도록 하면 됩니다.”

“모두들 한번 써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들 쓰고 있는 수세미보다 부드럽고 위생상으로도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너도나도 그것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 준 씨앗도 뿌리게 되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

맹 회장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수세미외를 재배하고 수확해서 수세미를 만들어 내고 팔고 하는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시기로 합시다. 그리고 무료로 나눠 주는 견본의 값은 내가 내놓도록 하겠어요.”

“축제를 할 때에는 두레박 회의를 먼저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레박 회의를요?”

“축제에 대한 모든 일들을 두레박에서 도맡는 것이 좋을 듯해서요.”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리고 수확한 수세미의 씨앗이랑 수세미는 생산자가 원한다면 두레박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합시다.”

수세미 축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국태성은 맹 회장의 집을 나와서 곧장 농장으로 향했다. 국태성이 농장으로 돌아와 보니 황보 여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오민아가 와 있었다.

“나물 좀 숙아 내고 싶은데 괜찮겠죠?”

국태성을 본 오민아가 묻는다.

“물론이죠.”

“서울로 가기 전에 다듬어 놓고 가려고요.”

“무슨 나물을 숙으려고요?”

“아랫두둑에 있는 곰취가 좋겠어요.”

오민아는 숙아 낼 나물을 이미 정해둔 듯 금방 대답했다. 나물의 이름을 국태성이 오민아에게 알려준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오민아는 나물 이름을 얘기했다. 사실 오민아는 서울 집에 가면서 유리 하우스의 산나물 이름을 모두 적어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나물에 대해서 배웠다. 곰취가 쌈 채소로는 상추에 못지 않다는 것도 배워 왔다.

“그렇다면 관리체에 가서 나물 바구니를 가져와야겠습니다.”

국태성이 말했다.

“아니고, 여기에다 담아 가면 되겠어요.”

오민아는 두르고 있는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아 올려 보인다. 둘이서는 하우스에 함께 들어가서 국태성은 곰취를 숨아 내고 오민아는 앞치마에 받고 하는 일을 해 나간다.

“오늘 회장님과 대화를 잘 끝내고 왔습니다.”

국태성이 맹 회장과 만나고 온 얘기를 꺼낸다.

“뭐라시던가요?”

“선물 거래를 하자고 하셨어요.”

“선물 거래요?”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걸 두레박에서 모두 사들이기로 약속을 하고 수세미 외를 재배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년부터라도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곧 우리 농장의 수세미외 수확을 끝내고 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

“수확한 수세미외에서 씨앗을 모두 빼내 모은 다음에 두레박 회원들을 통해서 부락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회의도 하고 씨앗도 나눠주고요.”

두 사람은 하우스에서 나왔다. 곰취가 담긴 오민아의 앞치마는 풀어서 국태성이 들고 둘이서는 벌채로 왔다. 유리 하우스에서 벌채까지는 반트럭을 탔다.

“언니 집에 좀 나뒀 가야겠어요.”

별채에 온 오민아의 말이다.

“그러시겠습니까?”

“많지 않지만 가져가면 좋겠어요.”

오민아는 곰취를 다듬어서 한쪽에 간수해 둔다. 그러면서 얼마간 덜어 가지고 보자기에 담아서 황보 여사네 뚝으로 따로 나눠놨다.

“언니 댁에 갑시다.”

국태성이 말 했다.

오민아로서는 어젯밤을 황보 여사의 집에서 보내고 아침 나절에 농장에 왔다가 점심 때에 다시 가는 것이다. 올 적엔 걸어서 왔는데 갈 때는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다.

“이게 뭘니까?”

국태성이 내려놓는 보자기를 본 황보 여사가 묻는다.

“곰취래요, 언니.”

오민아가 보자기를 풀어 보인다.

“곰취? 산나물이군, 그래.”

“이거로 찜을 싸 먹으면 좋대요.”

“그래 볼까? 보리쌀을 조금 넣고 콩나물도 넣고 밥을 지어서 찜을 싸 먹어 보기로 하지.”

황보 여사가 움직인다. 콩나물 보리밥을 지을 모양이다. 오민아도 따라 움직였다.

“서울로는 오후에 올라가겠지?”



주방에 함께 서 있는 오민아에게 황보 여사가 묻는다.

“네, 그래야 겠어요.”

오민아는 곰취를 행귀서 채반에 담는다.

“태성 씨와는 좋은 얘기 많이 나눴나?”

“좋은 얘지요?”

황보 여사의 물음에 오민아는 되묻는다.

좋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몰라도 오민아로서는 이곳 농장에 와 있다는 것이 그냥 즐거울 뿐이다. 그렇게 이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내가 거들어 드릴 것은 없나요?”

국태성이 말했다. 어느새 등 뒤에 와 있다.

“오라! 태성 씨한테 물어 보면 되겠네.”

황보 여사가 국태성 쪽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말했다. 국태성은 황보 여사를 바라다보기만 한다.

“두 분이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냐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황보 여사가 국태성에게 문듯이 말했다. 국태성더러 대답해 보라는 얘기다.

“그럼요,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도 들려 줄 수 없을까요?”

“축제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도요?”

“예, 우리 마을에 수세미 축제를 만들자는 얘기였습니다.”

황보 여사는 콩나물 보리밥 거리가 담긴 무쇠 밥솥을 가스 불 화덕에 올려

놓고 나서 그 옆의 식탁 앞에 앉는다. 오민아도 국태성도 함께 그녀의 좌우로 식탁에 둘러 앉았다. 국태성은 황보 여사에게 수세미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황보 여사에게도 알려 줄 일이기 때문이다. 국태성의 설명이 거의 끝나갈 즈음 맹 회장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마침 잘 오셨네요, 씬밥을 준비 중이에요.”

황보 여사가 맹 회장을 맞아들인다.

“여기서 다시 만나는군요.”

국태성을 보면서 맹 회장이 하는 말이다.

“수세미 축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렴 요. 여사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죠.”

맹 회장과 국태성, 그리고 오민아와 황보 여사, 이렇게 넷이서 식탁을 가운데 두고 합석을 했고 수세미 축제 얘기를 하면서 약속에 없던 씬밥 점심을 함께 한다.

## 국태성과 오민아 그리고 외지에서 온 청년들

### 의좋은형제마을에 귀농 및 이주 터전 마련

그런 다음날에 오민아가 국태성의 반트럭 배운을 받으면서 용산행 열차 편으로 상경을 했고 다시 농장의 별채로 돌아온 국태성은 수세미 축제의 계획표를 작성하기로 한다. 축제 계획을 축제의 내용, 날짜와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축제를 해야 하는지 등 축제 내용 전체에 대해서 널찍한 한장의 표에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담기로 했다. 그래서 용지와 필기구를 챙겨서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 무렵에 서울 집에 와 있는 오민아는 대흥 지역으로 전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우선 부모님의 허락 먼저 받아 놓고 관계 기관을 찾아서 문의를 했다. 그 결과 전근을 갈 학교가 먼저 정해져야 떠날 수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그럴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공리를 해 보니 대흥 지역에서 서울쪽으로 전근하기를 희망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서로 맞고대하면 되잖

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일은 태성 씨를 만나서 상의할 문제로 남긴다.

한편 수세미 축제 계획표를 짜 가지고 맹 회장과 의견을 맞춘 국태성은 먼저 마을 주민 모임의 준비에 들어갔다. 이 모임은 마을 전체를 수세미외 재배 단지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주민들 모두에게 수세미 견본과 수세미외 씨앗을 무료로 나눠 주는 일을 시작으로 두레박이 모임의 주체가 되기로 했다.

수세미 견본과 씨앗은 금년에 국태성이 수세미외 터널에서 수확한 것들이 전부지만 수량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았다. 그후 모임이 열리는 날이 되자 주민들은 자연산 수세미를, 그것도 내 고을에서 생산해 낸 것을 나눠 준다고 하니 흥미 반 관심 반으로 모여 들었다. 그래서 수세미외 씨앗 나눔은 점심 무렵까지 진행이 되었고 모두들 씨앗과 함께 수세미 견본은 물론이고 국태성이 복사 했다가 나눠 주는 축제 계획표도 한장 씩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계획표는 오늘 받은 씨앗을 내년 봄에 싹 틔워 가꿔서 수세미외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그 수세미외를 가지고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서 여는 마을 축제의 내용을 작성해 놓은 그 한 장짜리 표다.

주민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보니 아무런 사전 통지나 연락도 없었는데 두레박 회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음 할 일이 혹시 있지 않겠냐는 생각들인 것 같았다.

“이제는 회원님들을 저의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맹 회장이 큰 소리로 알렸다. 그러더니 휴대 전화를 건다. 전화 내용을 들을 때 점심 식사 주문이었다.

“민물 어죽을 시켰는데 우리 함께들 가지지요.”

전화를 끝낸 회장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장을 선다. 회원들은 회장의 성의를 봐서였던지 모두 회장의 뒤를 따랐다.

그날 이후 열흘이 지난 아침 일찍 국태성은 엄태륜의 전화를 받는다. 지금 농장의 별채로 오는 중이라는 전화다. 거의 다 왔다고도 했다. 오늘이 맹 회장으로부터 엄태륜이 사들이는 토지 매매 대금의 잔금을 지불하면서 소유 권의 이전 수속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국태성도 알고 있다. 국태성은 엄태륜이 곧 당도한다니 집 앞에서 그를 맞이할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엄태륜이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린다.

“안녕하십니까? 국 선생님.”

“반갑습니다. 엄 회원님.”

국태성은 엄태륜을 회원이라고 했다. 강남주말농장동호회 회원이니 그렇게 불렀다. 달리 부를 호칭도 아직은 없다.

국태성은 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지만 땅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땅 주인과의 대면이 필요할 듯 싶어서다. 맹 회장은 곧 이리로 오겠다는 대답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했다.

“이 분이 우리 마을에 새 터전을 마련하실 분입니다.”

국태성이 엄태륜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새 이웃을 맞이하게 되고 보니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저한테 귀한 땅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뭘…”

세 사람의 대면이 짧게 끝난 후에 곧 토지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예산읍내까지 가서 당일로 모든 수속을 끝냈고 엄태륜은 돌아갔다. 이날 국태성은 미안쩍게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한테서 사례금까지 받고 별채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내일은 김귀성 청년이 온다는 날이다. 새신랑 신부가 되어 동부인해서 올 것이다. 언제부터 이곳 살림을 시작할지는 만나 봐야 알 일이다.

국태성이 이제부터는 별채에서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정원수 업자가 수목장에 쓸 상록수 두 그루를 옮겨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였다. 주문했던 대로 하자고 서로 간에 재차 약속을 한다. 전화를 끝내고 생각하니 오늘은 그 상록수를 심을 자리를 정해 놔야 할 것 같다. 대략의 위치는 이미 땅 주인과 상의를 마쳤다. 떼서 팔 수도 있다는 답변까지 받아 봤다. 참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말도 들었다.

정오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국태성은 먼저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삽과 말뚝 두 개를 들고 봉수산 아래로 갔다. 수세미외 터널 바로 옆을 지나서 콘크리트 농로를 따라 100미터쯤을 더 간 후에 산 아래의 평퍼짐한 장소를 골라서 말뚝 두 개를 세웠다. 말뚝과 말뚝 사이에는 10미터 정도의 거리를 뒀다.

그리고 나서 보니 장산인 봉수산이 등 뒤에서 받쳐주고 앞자락에다 예당호를 품고 있는 위치에 두 개의 말뚝, 말하자면 풋말이 나란히 세워지게 되었다. 두 그루의 상록수가 차지할 자리가 정해진 것이다. 풋말만 세워 놓고 보니 지금은 을씨년스러워 보이지만 이 자리에 늘푸른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이 하더라도 그저 흐뭇할 뿐이다.

국태성은 별채로 왔다. 그리고 황보 여사에게 전화를 건다. 내일은 김귀성 회원이 농장에 오는 날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전화를 받은 황보 여사는 그렇다면 자기도 내일 농장에 오겠다고 했다. 김귀성 회원이 이곳을 왕래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록 반가운 일이다. 묵은 집터를 샀으니 아마도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때문이다. 그런 기대와 짐작 속에서 하루를 넘긴 다음 날 김귀성이 왔다.

점심 무렵에 오더니 인사를 나누자 마자 먼저 평평한 장소를 잡아서 차에 싣고 온 돛자리를 깔고 보따리를 푼다. 돛자리 깔 장소를 미리 봐 둔 사람 같다.

“점심 전이시죠?”

김귀성이 묻는다. 그러면서 약혼녀라고 했던 박미영이라는 여인은 보따리에서 도시락과 찬밥 등속을 꺼내 놓는다.

“저희가 점심 좀 준비해 왔습니다.”

김귀성이 말 했다. 이네들이 점심 준비까지 해 가지고 온 데는 그들대로의 생각한 점이 있어 보이니 국태성도 황보 여사쪽도 무어라 말할 것 없이 음식 앞에 둘러 앉는다.

“결혼식을 올리실 때는 저에게도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김귀성을 보며 국태성이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성의 대답이다.

“결혼을 하시면 신혼 살림을 이곳에서 차리시겠네요?”

황보 여사가 물었다. 박미영을 보면서 묻는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박미영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귀성을 본다. 자기네 끼리 합의가 되었음을 그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집을 곧 지으시겠군요?”

이번에는 김귀성에게 국태성이 물었다.

“예, 지금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언제 집을 짓게 될지는 모르지만 김귀성의 대답으로 볼 때 묵은 집터를 끼고 있는 땅이니 곧 집도 짓고 그가 말하던 특용 작물 재배도 하고 살림도 차리고 할 것 같아 보인다. 식사가 끝나자 김귀성은 자리를 정돈하고 약혼녀와 함께 자기네 땅을 한번 더 둘러본 다음에 돌아갔다. 황보 여사하고도 헤어진 국태성은 별채로 돌아와서 며칠 전에 책상 서랍에 넣어 뒀던 원고를 꺼냈다.

목판에다 현판을 조각하려고 먹물로 화선지에 써 놓은 밑글씨다. 가로 60센티미터에 세로는 25센티미터의 규격이다. 다시금 볼 때 귀농선실이라고 힘줘서 쓴 네 글자가 새롭다. 이 밑글씨를 가지고 솜씨는 없지만 현판을 직접 새겨서 걸기로 한다. 그동안 자신의 거처를 별채라고 불러 왔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귀농선실」이라고 지어 놓을 생각이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민아가 오는 것 같다. 틀림없이 오민아가 들어오는 기척이다.

“이건 서예 작품이네요?”

방안으로 들어온 오민아가 국태성 앞에 놓인 밑글씨를 보면서 하는 말이다.



“언제 오셨습니까, 민아 씨?”

국태성이 오민아를 보면서 조금은 놀라는 기색을 보인다.

“여기에 와 있잖아요.”

옳은 말이다. 민아 씨가 서울에서 왔다. 반갑게도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번에는 소식도 없이 마을 다니듯이 온 것이다. 국태성은 반가웠지만 얼굴을 쳐다만 봤을 뿐 말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다시 작품으로 시선을 가져간다.

“이것을 나무에다 조각해서 별채에 걸어 놓으려고요.”

국태성이 밑글씨를 감상하듯 바라보면서 말 했다.

“이 네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읽기도 어렵네요.”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터전이 되는 집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국태성은 소리내서 글자를 두 번 반복해서 읽어 보인다.

“그렇군요.”

오민아는 자신도 소리를 내서 두 번 읽고 세 번을 읽어 본다.

“언니네 집에 다녀오겠어요.”

오민아가 앉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더니 황보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황보 여사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은 그 다음날 농장으로 다시 온 오민아는 국태성과 마주한다.

“제가 이리로 전근을 오려면 이 고장의 선생님 중 한 분과 서로 자리 바꿈을 해야 되겠어요.”

오민아는 국태성의 얼굴을 바라봤다. 국태성은 오민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 한다.

“그렇다면 자리 바꿈하실 선생님을 내가 찾아보죠.”

국태성이 생각보다는 쉽게 대답했다. 오민아는 언제쯤 되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만둔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국태성이 맡아 줬으니 큰 숙제를 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

두레박 회원들  
봉수산 아래에 모여

이 고을의 수목장에 쓰고자  
상록수 두 그루를 심다

그날 이후 옛새가 지난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각에 농장에 상록수가 도착해서 지체함 없이 정해진 자리를 차지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두 그루의 늘푸른 나무가 봉수산 아래에 나란히 심겼다. 이곳에는 두레박 회원들이 모두 모여 있다. 그리고 다같이 공을 들여서 심은 상록수 두 그루의 중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가로로 「귀농부촌」이라고 새겨진 한글 네 글자가 뚜렷하다.

상록수는 두레박 회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그 후손들까지도 오래도록 이어가며 수목장에 쓰기 위해서 수명이 긴 편으로 알려진 나무를 택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거나 묻지를 않는다. 오로지 장산의 앞자락에 안겨 어엿이 그리고 곳곳이 서 있을 따름이다.

끝